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960-961 1982년 10월 22일(금) & 23일(토)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 Friday & Saturday, October 22 & 23, 1982

EAST ASIAN LIBRARY OCT 25 1982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영규
편 집 인 : 이석현
인 쇄 인 : 박정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WORLD SERIES 1982

최후의 승리자는 카디널스

↓월드시리즈를 제패 케처 포터와 피처 셔터를 중심으로 엉켜붙은 센트루이스·카디널스 선수들

6:3으로 밀워키물리치고 사상처음 우승

MVP에 포터, 엔도하-서터 투수진대활약

(세인트·루이스) 밀워키의 마지막 공격차례인 9회초 투아웃·투스트라익·쓰리볼, 스코아는 카디널스6, 브르워스3, 타자는 아메리칸리그 최다홈런타자(39개) 고든·토마스●투수는 내셔날리그 최고 구원투수(36게임 구원) 브루스·셔터, 풀카운트후 4개연속 파울볼을 날리던 토마스는 셔터의 빠른 하이볼에 속아 방망이를 헛 치고 말았다.

1982년 10월20일 밤10시14분 세인트·루이스의 부세스타디엄.

세인트·루이스·카디널스는 마침내 밀워키·브루어스를 6:3으로 물리치고 제79회 82년도 월드시리즈를 제패했다

카디널스의 창단이래 최초의 우승이며 67년이래 처음으로 7게임까지 가는 열전의 끝이었다. 그러나 경기는 점수처럼 일방적은 아니었다.

카디널스는 에이스 자퀸·엔도하를 내세워 5회초 브루어스의 세실·쿠퍼에 홈런을 맞기까지 무실점으로 밀워키강타봉을 막으면서 1:0으로 리드했었다.

쿠퍼의 홈런후 6회초에 2점을 더 내준 도미니카태생의 투수 엔도하는 후속타선을 끊었고 6회말 카디널스의 타봉이 다시 살아나 브루어스의 투수 피터·브코비와 구원투수 매크루를 두들겨 3점을 추가 4:3으로 역전했다.

8회말 1점 리드라는 살얼음 같은 승세를 유지하던 카디널스는 노아웃에 로니·스미스가 2루타를 날려 세컨드까지 갔으나 후속타의 번트 미스등으로 투아웃, 런너는 휘스트와 써드까지 갔다. 다음타자는 월드시리즈 최우수선수(MVP)인 케처 대릴·포터, 그는 라이트쪽 안타를 날려 승리의 쐐기를 박는 추가점을 올렸다.

세인트·루이스가 월드시리즈를 우승하는데는 실질적으로 2년이 걸렸다. 80년과 81년 프로야구 스카웃시장에서 연속적인 대량 딜을 벌려 야구인들의 관심을 몰았던 매너저 위티·허저그의 공이 이제야 드러난 셈이다. 그는 필라델피아의 로니·스미스, 캔사스·시티의 대릴·포터, 이날의 구원투수인 부루스·셔터등을 사왔고 당시 카디널스의 보물이던 투수 던·셔턴등을 팔았다.

카디널스의 감독 허저그는 게임후, "7회까지 분투한 엔도하의 공을 높이 살만하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돈을 주고있는 내셔날리그 최고의 구원투수 브루스·셔터도 갖고 있었다"고 예상을 적중한 투수로테이션작전을 자랑했다.

반면 밀워키는 결과적으로 투수로테이션에 실패했다. 6회말 투수 브코비치가 원아웃, 주자 2·3루의 위기를 당하자 구원투수 매크루를 내 보냈으나 오히려 3실점을 했고 또 매크루가 8회말 카디널스의 공격을 투아웃까지 끌어나가는 찬스에 또다른 구원투수 해스를 내 세웠으나 또 2실점을 했다.

이날 월드시리즈 최우수선수로 선정된 대릴·포터는 케처이면서도 왼쪽타자이며, 케처로서는 특이하게도 안경을쓰 눈길을 끈다. 그는 감독 허저그가 캔사스·시티에 있었을때 캐처로 활약하면서 80년 월드시리즈에 진출했었다. 세인트·루이스로 이적한후 별다른 활약을 못 보이다가 이번 월드시리즈에서 폭발, 5타점 1홈런등 타율 0.286을 올려 카디널스의 우승에 결정적 수훈을 세웠다.

카디널스의 월드시리즈제패는 1년정도 앞당겨 졌을수도 있었다.

81년에 카디널스는 선수들의 파업으로 전·후기로 나누어진 리그전에서 전·후기 각 2위로 밀려 한번도 우승을 못했으나 실질적인 리그 통산전적은 내셔날리그 동부조 1위였다.

어쨌든 82년 내셔날리그 챔피온 세인트·루이스·카디널스가 아메리칸리그 챔피온 밀워키·브루어스를 또 물리침으로써 내셔날리그는 19년이래 4년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또 해마다 리그중반에 벌어지는 올스타게임에서도 내셔날리그가 11년 연속 승리를 차지했다.

"리튼폭발 책임있다"

반핵단체 디렉트·액션 성명발표

자칭 디랙트·액숀(직접행동대)이라고 하는 단체가 지난주 리톤 미사일부품공장에서 일어난 폭발사고와 또한 지난 5월 뱅쿠버·아일랜드의 한 수력발전소 폭파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디랙트·액숀 20일 1개 좌익계 신문, 2개 반핵단체와 익명을 요구하는 2명의 메트로거주자에게 보낸 성명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성명문에서 디랙트·액숀 은 캐나다와 캐나다의 핵산업에 대항, 이와같은 테로행위와 "전후적 저항"을 계속하겠다고 위협했다.

메트로와 브리티시·콜롬비아경찰은 이와같은 위협을 심각하게 접수, 지난 7월 28일 브리티시·콜롬비아의 스쿠아미쉬근처 고속도로 공사장에서 2,000파운드이상의 다이나마이트가 분실된 배후가 디랙트·엑숀이인지 아닌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메트로경찰은 리튼회사의 폭팔에 사용된 550파운드의 다이나마이트가 스쿠아미쉬 공사장에서 분실된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회사제품(CLI회사)이라는 점을 밝혔다.

캐나다연방경찰(RCMP)은 미국과 유럽경찰과 긴밀한 협조하에 디랙트·엑숀 에 대해 5개월이나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를 아직 밝혀내지 못한 실정이다.

디랙트·액숀 은 9페이지에 달하는 이 성명을 통해 "우리는 이 행동(폭파)으로 사람을 다치게하데 대해서는 죄책감을 느끼나 크루스·미사일의 유도두뇌 생산을 사보타지하기 위한 우리의 결정에는 조금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전재하고 핵무기 경쟁과 크루드·미사일의 생산및 실험에 캐나다와 개입된 것을 비난했다.

지난주 렉스데일의 미사일부품공장 리톤사의 주차장에서 다이나마이트가 터져 3명의 경찰관을 포함한 7명이 부상을 입고, 5백만 달러의 재산피해를 냈다.

31일 써머타임 끝 새벽2시가 1시로

오는 31일 새벽 2시를 기해 써머타임이 끝나고 표준시각이 시작된다.

일요일인 이날 새벽2시는 새벽1시가 된다.

써머타임은 지난 4월25일부터 시작되었다. 표준시각은 내년 4월하순까지 계속된다.

"박관현 고문사 아니다"

배법무, 국회에서 답변

(서울21일=연합) 배명인 법무장관은 20일 광주사건 관련 수감자 박관현(30)씨의 사망원인이 고문때문이라는 소문을 부인했다.

배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 5년형을 복역중이던 박씨가 혹독한 고문에 시달려 지난 12일 숨쳤다는 소문에 대한 질의에 답변, 박씨는 출혈성 심장마비로 사망했으며 검시 보고서에서도 그가 외상을 입었다는 기록은 없다고 주장했다.

배장관은 10월10일 심장마비를 일으키기 전까지 박씨는 전혀 병색을 보이지 않았으며 지난 8일 박씨를 방문, 단식투쟁을 중단하라고 설득한 2명의 목사들도 그의 건강을 확인했다고 밝히면서 박씨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형무소당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조건을 내세우며 단식투쟁,33회에 걸쳐 식사를 거부해 왔다고 답변했다.

社 告

해방37년이 넘었으나 「독립관」이 없읍니다

소름끼치는 36년간의 일본식민지 시대를 회상해서 조국은 독립기념관 건립모금운동을 벌이고 있읍니다.

일제의 설움을 같이 당했던 우리는 외국에 산다해서 이 운동을 외면하겠읍니까?

성금을 부탁드립니다.

금 액 : 다소불문
기 간 : 1982년 10월말까지
보낼곳 : 토론토한국일보사
1025 Dupont St. Toronto, Ont. M6H 1Z7
전화 : (416) 533-2361
※수표작성 Payable to…)은 The Korea Times앞.
※겉봉이나 수표에 「독립기념관 기금」이라고 쓸것.

※폐사는 일정금액이 모이면 서울본사에 송금하며 기증자 명단은 토론토 한국일보및 서울 본지에 게재됩니다.

- 토론토 한국일보사 -

오늘의 예금금리(10/19부터)			
한인신용조합			
기 간	일반정기예금	오뚜기정기예금	일반은행
30일	11.5%		10.25%
90일	12%		10.75%
180일	12%	11.75%	10.75%
365일	12%	11.75%	10.75%
※$100,000이상은 특별금리로 우대함.			
보험이 보장하는 한인신용조합 Tel : 533-938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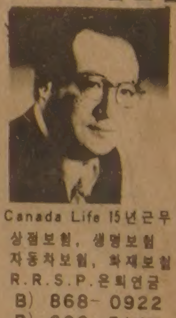
캐나다한국 외환은행
●본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은하 보석
ROLEX
가장 믿고 살수있는 로렉스지정판매대리점
란콤화장품 대리점 귀국선물
☎ : 534-9977, 7791 620A Bloor St. 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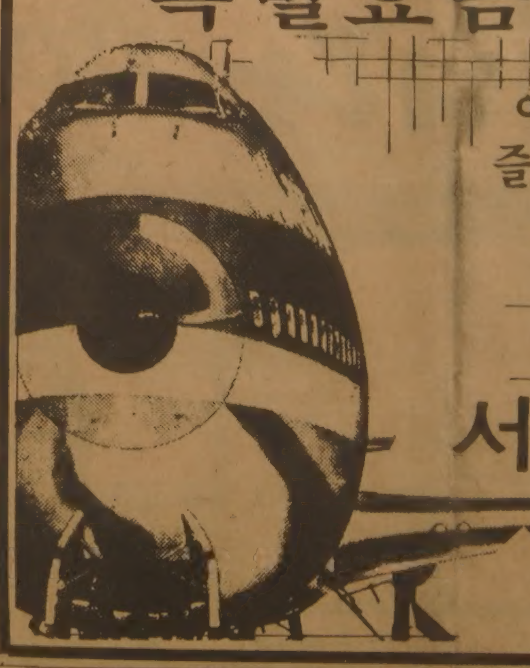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R.S.P
사업보험, 상점보험
B) 497-3800
R) 284-9052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B) 536-1692
(R) 245-3539

강학수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R.S.P.은퇴연금
B) 868-0922
B) 622-5147

SBS Specialized Business Systems Limited
$395
작은 비즈네스를 위해 크고 비싼 계산기가 필요없읍니다
신제품 ONLY
(파나소닉제) $395
⊙작고 값이 싼 파나소닉 제품
⊙세금을 따로 쩍을 필요없이 계산됨.
⊙간단하고 편리한 제품
822 The Queensway
(Queensway x Islington)
252-7377 안 수 일

특별요금으로 모십니다!

여러분의 便安하고 즐거운 旅行을 위해 저희가 있읍니다
최 동 주
535-6004
535 8801
서울여행사
IATA
SEOUL TRAVEL
631 BLOOR ST. W

결혼 예물, 보석시계

OMEGA
오메가시계 남·녀용

다이아몬드
반 지
목걸이
팔 찌
귀걸이
미도파백화점
454 BLOOR ST. W. TORONTO (B) 536-1692 (R) 245-3539

DEAR MAILPERSON: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북한외교관 추행사건 미법정서 다루어져야

~유엔고위관리 주장~

(서울21일=연합) 유엔주재 북한외교관 오남철의 추행혐의 사건은 미국의 법정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한 고위유엔관리가 21일 주장했다.

지난 9월5일 뉴욕에서 중년부인을 강간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있는 오는 사건이후 자기사무실에 숨어있으며 외교관의 치외법권상 뉴욕경찰은 오를 체포하기위해 밖에서 대기 중이다.

유엔사무총장의 법률자문으로 있는 에릭·서이씨는 20일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유엔의 정식회원이 아니고 옵저버자격, 이며 북한은 또 미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있지도 않아 외교관으로서 치외법권을 누릴 수 없다고 말했다.

유엔기구가 주관하는 세미나에 참가차 서울에 체류중인 서이씨는 북한외교관의 특권은 공식활동에 관련된 것에만 제한 적용된다고 말했다.

북한당국은 오가 무죄라고 주장하며 그를 뉴욕경찰에 인도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독일제 폭스바겐 래빗·디젤

가장 연료가 적게 드는 차는?

래빗·디젤,100Km당 4.5리터

(오타와) 독일제 폭스바겐 래빗·디젤이 금년을 포함, 지난6년간 가장 연료가 적게드는 차로 판명됐다.

19일의 교통부발표에 의하면 83년형 레빗은 가장연료가 많이드는 롤스·로이스의 케마그(Camargue)보다 5분의1밖에 들지않는다.

이번 테스트에서 1.6리터 엔진과 수동식4단 변속기를 부착한 래빗·디젤은 100키로당 연료를 4.3리터(1갤론당 약65마일)를 소비했고 케마그와 같은 로스·로이스의 코니쉬는 100키로당 21.4리터를 소비했다.

총625차종을 선정, 테스트결과 래비트 다음으로 연료가 적게 드는 차종은 닛산·센트라·디젤, 혼다·시빅, 도요다·스타렛등 3개 일본차로 모두 100키로당 4,7리터가 들었다.

북미산 차종에서는 캐디락·프릿우드 리무진이 가장 연료가 많이 들어 100키로당 19,9리터를 소비했으며 가장 적게든 차종은 시보레의 쉐벳 디젤, 아카디안디젤, 폰티악1,000디젤등 3개 GM모델로 100Km당 5리터를 소모했다.

金聖鍾작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第5의 사나이

<92>

『바로 그 손님이 12월4일 이전에 여자와 함께 여기서 식사를 하다가 이지훈 때문입니까?』

『네, 그 손님이 맞아요.』

여직원도 지배인도 웨이터도 이구동성으로 대답했다. 지배인은 이렇게 덧붙이기까지 했다.

『제가 보기에는 자기 부인 같지가 않았읍니다. 자기 부인이라면 장소가 식당에서 그렇게 무리가 빠르리가 있겠읍니까.』

『부인이 아니라면 그럼 뭐란 말인가요?』

『아마 모르면 몰라도 떳떳치못한 관계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낮에 호텔에 들었겠지요.』

마침 사는 청구서를 훑어지게 들여다보고 있었다. 거기에는 이름과 사인, 그리고 투숙한 방의 번호가 적혀 있었다. 이름은 「毛世」였고, 호실 넘버는 1529번 이었다.

『모세라…특이한 이름이군.』

『이 이름을 찾아보죠.』

얼굴없는 死者 ⑯

드디어 毛世의 숙박카드 4장 찾아내…

이름을 알아낸 이상 다른 청구서를 찾는 일은 그다지 어렵지않았다.

마침내 그들은 10월27일자 청구서중에서 「毛世」앞으로 된 청구서를 또하나 찾아내는데 성공했다.

『바로 이날 여자와 함께 여기에 들어와서 여자를 구타한 모양이죠?』

『네, 맞습니다. 그때 처음 여기에 나타났는데 비싼 요리만 시켰읍니다. 그리고 선글라스를 끝까지 벗지 않았읍니다. 어쩐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요. 그 사람이 범인입니까?』

『범인이 아니라 살해된거요. 토막 토막 잘려서…』

『아니, 그럼 신문에 난 바로 그 …』

『지금 수사가 진행중이니까 아직 뭐라고 단정내릴 수는 없어요.』

지배인은 말을 잇지 못하고 입을 다물어버렸다.

10월27일에 투숙한방의 호수는 2019호실이었다 형사들은 10월27일부터 12월4일까지 사이의 청구서를 다시 훑었다. 그 결과 12월1일자로 된 청구서가 또한장 나타났다. 그때의 투숙호실은 1937번이었다.

『그 친구…어지간히 중국요리를 즐겨하는군.』

『돈도 많았던 모양입니다. 특급호텔에 묵고, 비싼 요리만 시켜먹은걸 보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형사들은 고무풍선처럼 부풀어오른 기대를 내색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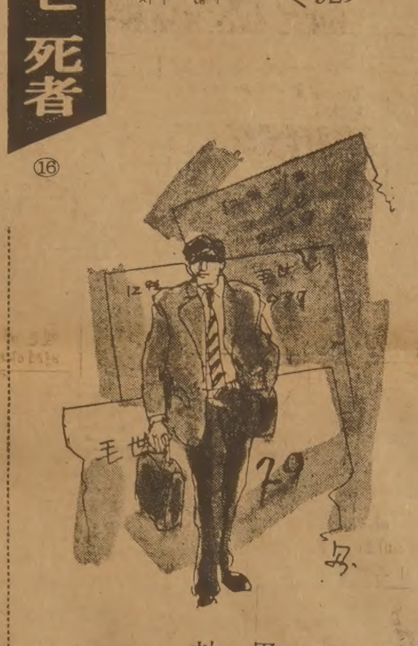
다음에 그들이 해야할 일은 이미 정하져 있었다.

다행히 프런트에서는 묵은 숙박카드를 버리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다. 프런트계는 숙박카드는 1년동안 보관되었다가 소각된다고 했다. 따라서 형사들이 찾는 카드는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다.

그들은 10월27일, 12월1일, 12월4일에 투숙한 것으로 되어있는 모세의 숙박카드 석장을 찾아낸 다음 좀더 거슬러 올라가보았다. 그랬더니 9월29일자 숙박카드가 또 한장 나왔다. 그들은 1월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았다. 그러나 그이상은 없었다.

『모세라는 사람은 9월29일에 처음으로 이 호텔에 투숙했던 모양입니다. 하루 이상은 투숙하지 않았읍니다.』

지배인은 네장의 카드를 훑어보며 말했다.



朴 男 그림

"그래도 캐나다가 좋아"

85%가 국가에 만족표시

계속되는 불경기, 높은 실업율등 많은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 대다수의 캐네디안들은 다른 나라 시민이 될것을 생각해 본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발표된 갤럽여론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이 된 성인 1,054명중 85%가 캐나다국민임에 만족했으며 15%만이 타국으로의 이주를 희망했다.

이같은 만족도는 77년의 여론조사에서 10명중 9명이 캐나다에 만족하고 있었던 것에 비하면 다소 하락된 것이다. 5년전에는 9%만이 타국으로의 이주를 희망했다.

지난 9월 실시된 조사에서 나타난 이주 희망국은 미국, 호주, 스위스및 스웨덴등이다.

캐나다국민인 것에 가장 만족을 표시한 지역은 대서양 연안 지역으로 10명중 9명이상이 캐나다에 계속 머물러 있기를 원했으며 온타리오의 경우는 5명중 4명이상이 만족을 표시했다.

한편 만족을 표시한 사람이 가장 적은 지역은 서부 평원주(알버타, 사스카치완, 마니토바주)와 브리티시·콜롬비아로 5명중 1명이 캐나다를 떠나기를 원했다.

연령별로는 18세에서 29세 사이의 응답자중에서 만족도가 가장 낮아 18%가 다른 나라로 이주하기를 희망했으며 50대이상의 노인층이 가장 만족도가 높아 11%만이 이주의사를 표시했다.

한국일보
533-2361

교민동정

◆원미자(실비아)=한국인 최초로 신부드레스를 전문취급하는 웨딩·드레스 상점을 최근 구입, 지난 15일 개업파티를 가졌다. 박영철부총영사등 약1백명의 하객은 진열된 많은 신부드레스를 구경하면서 성공을 빌었다. 웨딩드레스는 판매 또는 렌트한다. 이 상점은 "파티용등 특별한 때 입는 특별복, 신부꽃, 청첩장, 여자들러리복용등 결혼할 여성을 위한 모든 것을 갖추었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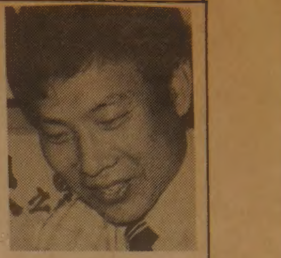
원여사는 원창호(체육회이사장)씨부인으로 골프실력도 만만치 않다. 상점위치는 1503 베이뷰(at 밀우드 : 데이비스빌 북쪽1블록). 전화: 485-9419.

◆임수철=미시사가에서 한국계 식품점 「한밭식품」을 경영하는 임씨는 밑반찬 수입하는 문제로 1주전 귀국, 11월중순 돌아온다. 그동안 상점은 부인 설동란씨가 맡는다.

〈특별기고〉

한인 총연합회에 대해①

정일송(한인총연합회원· 전런던한인회장)



◆정일송씨

한국계 교민은 모두 회원자격 지역별 비례대표제 바람직

한인총연합회에서 주관한 「한인의날」행사를 전후하여 한인총연합회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는 요즈음, 동행사에 참석했던 회원의 한사람으로서 송구스런 마음 금할길 없다. 한편 비록 미흡한 점이 있기는 했지만 동행사를 준비하느라고 몇개월에 걸쳐 개인 생활을 희생해 가면서 수고한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임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린다.

다음에, 본인은 한인총연합의 1. 필요성(목적) 2. 구성(조직) 3. 운영(활동)등에 관하여 현재 일부지상에서 비판되고 있는 점의 일부에 대한 대답과 아울러 한인총연합회의 방향제시를 겸한 나의 의견을 말하고자 한다.

1. 필요성(목적)

가) 근원적인 필요성

우리는 현재 캐나다에 살고 있지만 한국인 또는 그 후예라는 숙명적 사실에 의하여 이탈리안이나 재패니스가 아닌 코리언캐나디언이라는 하나의 공동운명체에 속한다. 파쟁으로 얼룩진 역사 끝에 동족이 상쟁하는 국토의 분단이란 피맺힌 한을 안고 있는 우리이기에, 조국이 아닌 이곳에서나마 크게 하나로 뭉치고 싶은 소망이 있는 것이다.

나) 현실적인 필요성

1)캐나다는 다민족으로 형성된 사회이며 각 민족의 전통을 인정하는 복합문화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이다. 그러므로 때로는 민족의 대표자 회의가 있고 그 민족의 의사표시를 요구받을 때도 있다. 이에 한민족을 대표하는 기관이나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한 것이다.

2)적극적인 의미에서 한국계캐나다 시민들의 통일된 의사나 욕구를 보다 강력하게 연방정부에 반영시키며 우리의 지위와 권익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 집합체가 요구되는 것이다.

3)각 지역 한인회간의 친선과 상호정보교환등을 통하여 발전을 꾀할 수 있고 전국적인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는 모체가 될수 있다.

2. 구성(조직)

가) 회원

한인총연합회가 필요한 기구라면 누가(구성분자 즉 회원) 어떻게 조직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현 총연합회 내에서도 이것이 문제점으로 등장해 있으며 교민들도 의견이 많은줄로 안다. 참고로 현행회칙을 약술해 보면 회원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창립회원
2. 현직한인회장
3. 본회에 봉사한 임원
4. 총회에서 인준받은 인사.(79. 11.31개정)

나) 대표기관

캐나다내의 전교민이 한자리에 모여 회의를 하거나 의사를 결정한다는 것은 이상이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회원들은 각 지역에서 대표자를 선출함으로써 자신의 의사 표시를 할 수 밖에 없다. 문제는 얼마나 많은 대표자를 어떻게 선출하는가?이다.

여기에서 생각해야 할 것은 한인총연합회의 각 지역을 연결한 연합체적인 면과 전 교민을 대표한다는 대표기관적인 면이다.

이 두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대표기관에 참여하는 대표자수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첫째 연합체적인 측면에서, 각 지역에서는 같은수의 대표를 파견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각 지역에서는 그 지역의 한인회장을 총회에서 선출하는 것이 통례인 것으로 안다. 그러므로 현재의 한인회장이 대표로 참석할 수 있을것이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서는 회장의 임기가 다르고 회장유고시가 생기며 또한 총연합회의 계속성을 고려하여 바로 전직 한인회장도 자동으로 지역한인회를 대표하여 총연합회에 대표기관의 일원으로 참여해도 좋을 것이다. 즉 각지역 한인회는 균등하게 2명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가시킬 수 있다. 둘째, 전교민의 대표기관적인 면이다. 회원 100명미만의 지역한인회와 3만명이상을 가진 지역한인회가 똑같은 의사표시의 권한밖에 없다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에 필요한 것이 비례 대표이다. 그러나 정비례를 적용함으로써 오는 대표자의 숫적 확대와 연합체적인 성격을 고려하여 조정된 비례대표를 선발할 수 밖에 없다.

본인이 생각해본 한가지 예는 다음과 같다.

회원 1천미만의 지역한인회에서는 1명, 2천명미만 2명, 5천명미만 3명, 1만명미만 5명, 2만미만 7명, 2만이상, 9명의 대표자를 선발한다면 대략 30명정도가 된다. 여기에 지역한인회의 바로 직전과 현직 한인회장 30명(현재 15개지역 한인회)을 포함하면 총60여명의 대표로 구성된 대표기관(위원회)을 조직할 수 있을것이다. 이 위원회에서 집행부(회장단)와 소위원회(이사회)를 선출하여 한인총연합회의 기능을 수행해 나간다면 현실에 비추어 가능한 한 방법이 될 것이다.

비례에 의한 대표자의 선출방법은 각지역의 실정에 따라 적당한 방법이 있겠지만 원칙적으로는 그지역한인회의 총회에서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현집행부에서 개정을 시도한 개정안에 의하면 회원자격규정에서 「1.각지역의 역대및 현직한인회장 2.본회에 봉사한 임원 3.회장단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인준받은 유공인사및 법인체의 대표」로 되어있다. 이 개정안은 유인물로 서면 결의를 얻는 과정을 거쳤으나 효력여부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형편에 있다.

그 효력여부는 별문제로 하고 회원의 자격에 대한 나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한인총연합회의 회원은 캐나다에 살고 있는 전체 한국계 교민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즉 한국계 교민이면 누구나 한인총연합회의 회원 될 자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계 교민의 정의는 구체적인 조항에서 규정할 수도 있고 관례로 해석할 수도 있다. 즉 1.시민권자에 한하는가? 2.영주권자를 포함하는가? 3.유학생이나 일시 체류자를 포함하는가? 4.외국에 체재중인 한국계 캐나다시민권자를 포함하는가? 등.

3. 운영(활동)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회(단체)의 올바른 운영이다. 아무리 좋은 법과 규칙을 가졌더라도 운영하는 자가 그것을 잘 지키지 않을때에 시비가 일어나며 단체의 존재 가치마저 의심받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짧은 이민사를 가진 소수민족으로서 대부분의 교민들이 오늘도 생활전선에서 피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일반회원이든 대표자로 선출된 사람이건 직업적인 정치인도 아니요, 전문적인 법률가도 아니다. 개인의 일이건 단체의 일이건 시행착오를 범하고 있는것이 피치못할 처지인지 모른다. 더구나 출발하는 단계에서 미비한 회칙을 갖고 있는 실정이라 회칙대로 하자니 일을착수할수 조차도 없고 백입은 말았으니 아니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일을 추진 시켜놓고 보니 본의아닌 오류를 범하게 된다.

그래서 본인은 이번 「한인의 날」행사를 주관한 집행부의 노고에 대해서 서두에 감사를 표했다. 그러나 우리는 같은 오류를 계속 범할수는 없는 것이다. 회칙이 틀렸거나 적절하지 못하면 고쳐야 하고 예측되는 실수를 방지할 제도를 갖추어 나가야 하는 것이다. 한인총연합회의 운영도 집행부와 의결기관이 총연합회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상호 협조와 견제의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회칙에 잘 규정하고 선출된 분들은 그것을 잘 지키면서 회의목적에 적합한 활동을 펴 나가야 할 것이다. (계속)

▲현존하는 5명의 전퍼스트레이디-18일 전트루먼대통령미망인 베스·트루먼여사가 사망하여, 이제 현존하는 전대통령부인들은 왼쪽부터 베티·포드(75년사진), 버드·존슨(64년사진), 로잘린카터(79년사진), 재클린·케네디·오나시스(61년사진), 패트·닉슨(72년사진)등 5명이다. (캔사스시티·몬타나-UPI)

김일성 승용차 42년만에 한국에

참전협회가 $75,000에 구입

(로스·앤젤레스 20일=연합) 한국동란때 김일성이 타고 다니다가 50년 10월22일 평양 북동부에서 한국군이 노획한 승용차가 부산에 도착한다.

이 승용차는 당시의 이승만대통령이 한국동란에서 전사한 워커소장의 미망인에게 선물로 증정한 것이며 워커소장부인은 이 차가 고장이 나자 미화 $600에 중고차딜러에 팔았었다.

소련제인 이 차가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 것은 서울 유엔참전국협회가 수소문한 끝에 지난 9월15일 뉴저지의 자동차중고상으로 부터 $75,000에 사들였기 때문이다.

식자안내
컴퓨터 사진식자기
● 훨씬저렴한 가격
● 빠른 써비스
책종류 환영함
토론토 한국일보
(416)533-2361

뭔가 다릅니다.
기간 : 10월22일 ~30일까지
와 보시면 금방 느끼실 수 있읍니다.
·스페샬가격·

• PAMPERS NEWBORN 48's	$45,02
DAYTIME	$46,06
OVERNIGHT 22's	$46,06
TODDLER 24's	$56,76
DAYTIME 60's	$36,95
TODDLER 48's	$36,95
• CREST MINT TOOTHPASTE 18×150ML	$29,95
• CREST GEL TOOTHPASTE 24×50ML	$16,39
• HEAD & SHOULDERS(REG & COND) 12×350ML	$36,80
• WONDRA(SCENTED, UNSCENTED) 12×180ML	$13,19
• SECRET(SCENTED) 12×150ML	$17,95
• SECRET(UNSCENTED) SUPER DRY 12×200ML	$19,50
• Y & S SUPER TWIZZLERS 10C BLACK	$2,69
• Y $ S SUPER TWIZZLERS 5C BLACK	$1,69
• ACTA	$5,35

• VICKS(CHERRY, LEMON, MENTHOL, FRESH MINT)	$5,55
• LIFE SAVERS(ALL FLAVOUR)	$4,59
• PAL(LEAF) 2C×290	$3,09
• O-PEE-CHEE SUNDAE CONE 35C×24	$5,49
• HALLS PRE-PACK	$37,98
• CHOCOLATE REGULAR BAR 36's	$8,99
• NEILSON CHUNKS 4-FLAVOURS	$8,99
• NEILSON TREASURES CARAMELS	$8,99
• LOWNEY NUT MILK, CARAVAN	$8,99
• CADBURY RUM & BUTTER, STAR BAR	$8,99
• HERSHEY ALMOND, MILK CHOCOLATE	$8,99
• HERSHEY REESE(CRUNCHY)	$8,99
• TRIDENT GUM(ALL FLAVOUR)	$3,99
• TRIDENT MINT(ALL FAVOUR)	$3,99
• DUETS(PEANUTS, RASINS) 20×35G	$4,99

선풍적인 인기를모우고 있는 하키 앨범스티커 새로 대량입하!
주식회사 한인연합상사 United Konadian LTD.
U. K. L. CASH & CARRY
27 RANGEMORE RD. TORONTO Phone: 251-6578 · 251-6579
대표: 김현모

세계각국의 새 상품

빗물닦는 裝置된 안경 西獨여성에 人氣
美·日 초미니TV 개발붐 손목시계용도

서독에서 최근 비오는날에도 앞을 선명히 볼 수 있도록 안경유리에 「빗물닦는 장치」(와이퍼)를 달고 다니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 약간의 장난기가 섞인 안경의 와이퍼는 서베를린의 유명백화점에서 22달러를 받고 달아주고있다. 와이퍼는 소형건전지를 넣은 모터로 작동한다.

한편 미국과 일본에서는 호주머니나 핸드백에 넣을 수 있고 팔목에다 차고다닐 수 있는 소형 TV세트가 소비자들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소형TV는 일본의 3개전자회사가 지난 봄부터 미국과 일본 시장에 선을 보였는데 판매고가 날로 늘고 있다.

지난2월 일본의 마쓰시다사가 길이 3.81cm짜리 소형흑백TV세트를 개발한데 이어 소니사는 길이 5.8cm짜리 평면TV세트를 내 놓았으며 세이코사는 손목시계에 달린 길이 3.048cm짜리 TV세트를 개발, 곧 시판할 예정이다.

마쓰시다의 TV세트는 현재 한달에 1만5천개, 소니제품은 한달에 5천개씩이 미국과 일본시장에서 팔리고 있다. 두회사관계자들은 초미니TV를 처음에 선보일 때 연간 20만세트가 팔릴것으로 예상했으나 현재 추세대로 간다면 연간 30만세트의 판매는 무난할 것으로 보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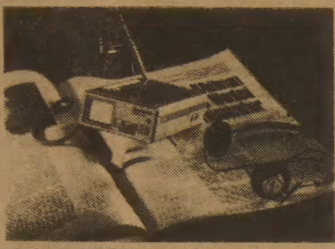
특히 1대에 4백달러 하는 소니의 평면TV세트는 호주머니나 핸드백에 넣고 다닐수 있어 인기가 있다.

세이코가 최근 개발한 시계TV는 1세트당 4백달러 가격으로 곧 미국과 일본 시장에서 시판 될 예정이다.

〈여행사〉

신세계여행사	536-2155
서울여행사	535-6004
제일여행사	535-2377
북미여행사	366-0960
천우여행사	928-3335

▼빗물 닦는 안경



◇마쓰시다의 책반페이지만한 TV세트

◇세이코社의 시계TV。

◇소니社가 개발한 길이5.8cm의TV세트。

제2회 청소년문예콩쿨
한글 또는 영어,31일 마감

「한국일보」미주본사(LA)가 모집중인 제2회 북미청소년 문예콩쿨 작품이 오는 31일 접수마감 된다.

이 콩쿨은 미주교포 청소년의 모국과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한국인으로서의 긍지를 북돋아, 장기적 안목에서 건전한 교포사회를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LA한국문화원과 각지역 공관이 후원한다.

응모자격은 한인교포 중·고등학생및 대학생이며, 올해의 주제는 1)「한미수교 1백주년」과 2)「자랑스런 한국인」이다.

그러나 작품이 주제와 관련이 없어도 대회목적에 맞는 작품이면 접수된다.

모든 문예작품은 한글이나 영어, 어느 것으로 써도 되며, 작품심사는 11월1일부터 30일까지, 입상자는 12월1일 발표한다.

응모작품의 길이는 200자원고지 20매이내 이다.

이번 제2회 문예콩쿨시상은 아래와 같다.

◆장원(주미대사상): 2명
상패및 모국초청 방문(6박7일, 83년초 예정)·부상
◆우수상(한국일보 미주본사장상): 3명
상패및 부상
◆준우수상(LA문화원장및 뉴욕문화원장상): 8명
상패및 부상

작품접수처: 한국일보 미주본사
Korea Times,L.A.
141 N.Vermont Ave.
LA, CA90004
U.S.A.

이민사자료 추가분
(10월21일자)

◆제3차로 접수된 이민사 자료및 기증자(2)

◉길병태씨
1)동인시집 「3악시」(제3집(1977년)
2)「시조문학」 78년여름·가을호
3)「가원문학」7집(1979년)
4)씨얼문학회 「신서정」(1981년 겨울)
5)씨얼문학회 「신서정」(1978년 가을)
6)씨얼문학회 「아멘, 아멘 아멘」(길미자)
7)씨얼문학회 「시문학」(1977년 9월호)
8)한국문인사진(모윤숙·김종문등 9명)

533-2363 World Book 백과사전

〈유인형수필선〉

콤 퓨 터

◆유인형씨

콤퓨터가 중매를 선다. 이러저러한 요구사항과 제한조건을 제시하면 "또드락 딱딱"하면서 배우자를 찾는다.

한명도 아니고, 가장 비슷한 여건의 후보들을 나열해 준다. 배우자 선정의 기준은 언제나 공통점이 있다. 생물학적인 조건과 경제적인 자립여부와 심리적인 분석을 구체화시켜 놓았다.

결혼이란 선택이고 계약이지만 서로 손해를 덜 보겠다는 조건 때문에 여간 중대한 일이 아니다. 잘못 만났다간 혼자 사는게 훨씬 더 좋겠다는 「창살없는 감옥」의 감시자가 되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눈 가리고 아웅인 그 결혼이 보통 어려운게 아니다. 지쳤다고 바겐세일을 할 수도 없고, 아무나 하고 해버릴 수도 없고, 제가 무슨 수녀라고 끝까지 버티기도 뭣한 것이다. 모두들 정신 못차리게 바쁜 세상에 옛날처럼 중매 서겠다는 아줌마도 없고 보니 역시 자존심을 다치지 않는 콤퓨터가 좋은 것이다.

「거짓말탐지기」를 철저하게 거쳐야 기록이 되기 때문에 외형적인 분석자료는 우선 믿을 수 있다. 문제는 그 속마음이고, 개성과 성품인 것이다. 그래서 그 딱 맞아떨어지는 천생연분은 복권당첨만큼 어려운 일이니까 어쨌건 결혼은 해놓고 보는 것이다.

결혼의 목표가 무엇이냐고 묻지 말고, 자우간 결혼해서 천생연분을 만들어 나가다 보면 스스로 알게 된다. 마치 남편이 수전노처럼 돈벌이에만 열중하거나 사회적인 지위에 오른다고 잘 선택한 결혼이라고 볼 수도 없다. 아름답고 관능적인 아내를 선택하여 주눅이 들다 못해 남편이 가출해 버리고 마는 걸 행복하다고 말 할수도 없다.

「콤퓨터 아줌마!」

「왜 또 왔어요?」

「참 저휜들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건가요? 이번에는 공짜 좋아하는 대머리는 싫고요…….」

「싫은 걸 왜 물어? 코가 큰 것은 안물어 봐?」

「떠들지 좀 말아요. 코가 큰 녀석치고 싱겁지 않은……. 아휴! 나 좀 봐. 네, 표준형으로요.」

「어디 표준형이야? 김삿갓이야? 아니면 헬멧·킹이야?」

「바보 온달형이 좋아요. 하라는 대로 잘해주는 바보형이 좋아요!」

「이봐요. 이때가 어느 때인데 바보가 있어요? 약삭빠른 고양이가 밤눈들이 어두워 갖고선 일년에도 몇번씩 시집을 가는데……」

이번에는 총각들이 콤퓨터상담실을 찾는다. 삼엄한 철제상자 속에 보호되어 있다. 성질 급한 총각은 상담을 하다가 수틀리면 디립다 차버리니까 아예 철제상자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마, 성깔있고, 꼼꼼하고, 끄치고치 캐묻길 좋아하고, 눈 똑바로 뜨고, 잘 대어드는 살짝 곰보에다, 배말떠가시나를 찾아봐 주소 예?」

「야 야, 말도 마라. 니는 장가 들긴 숫제 틀린기라. 노오 스피크!」

「뭐라카노? 노오 스피크가 뭐꼬? 니 맛좀 볼라카나?」

「알았다구. 또드락 딱딱·……. 음, 정형수술은 했지만 웃을 때 볼우물이 지고, 마음씨는 너무 곱고, 아까운 아가씨로구나.」

「그게 뭔 말이여 잇? 그러콤 매력있는 아가씨를 저 문둥이에게 소개해 줘서 쓰잣남? 앗따 이 한량은…….」

「유 아 넥스트!」

그럭 저럭 때가 오면 장가 들고, 시집을 간다. 세상에 태어나서 그것보다 더 좋고 해볼만한 일이 또 뭐가 있느냐고 한다. 아들이건 딸이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비밀도 콤퓨터는 알고 있다. 아내만이 출산의 고통을 감수하면 천 옛말이 되었다. 수태기간이 끝나면 시험관 아기를 키우듯이 남편들도 임신을 하는 것이다. 무슨 선거에 후보를 하려면 만삭의 남성이 당연히 표밭을 휩쓴다. 그만큼 생명의 탄생이 어렵다는 걸 몸소 체험하니까 절대적인 평화주의자가 되고, 또한 여성들의 그 어려운 입장을 이해하니까 세금 무서운 줄 아는 까닭이다.

가끔씩 엉뚱한 발언도 있지만 그건 애교일 뿐이다.

「참, 호시절도 있었지요. 휴우— 숨차. 의자 좀 이리 줘요. 마누라님! 여러 동지 남성 여러분. 이건 해도 너무 합니다. 이민을 와서 남자가 임신까지 해야 한다니 너무 하십니다요. 저쪽에선— 마누라가 시부모 공경이 시원찮아도 집을 나가야 했고, 아기를 못낳아도 쫓겨나고, 질투심이 강해도, 말이 많아도, 심지어는 병이 나서 아파도 보따리를 챙겨야 했던 남성들 최고의 호시절이 있었읍니다.」

「옳소!」

「웃기셨어. 뭐가 옳아요?」

「글쎄, 이건 뭐 시집살이보다 더 심한 장모살이를 해야 한다니…….」

「얘얘, 저 물건 누굿거냐 응? 내쫓든지, 한참 교육을 더 시키든지 해야지 정말 못봐 주겠다 얘!」

「그러니까 대머리 아니니 뭐. 대머리에다 임신 9개월이니 오죽하겠니. 그래도 한표 찍어 주겠다 얘.」

「여러분 아무리 변하는게 많아도 역시 콤퓨터에만 의존했던 우리들의 과오가 있었나 봅니다. 콤퓨터는 좋기도 하지만 차라리 없는 것만 못 합니다. 아들, 딸까지 콤퓨터가 정해주니 도대체 신비로운게 어디 있읍니까. 자연과학도 좋고, 세분화된 분업도 좋지만 중매만은 사람이 하는게 더 좋겠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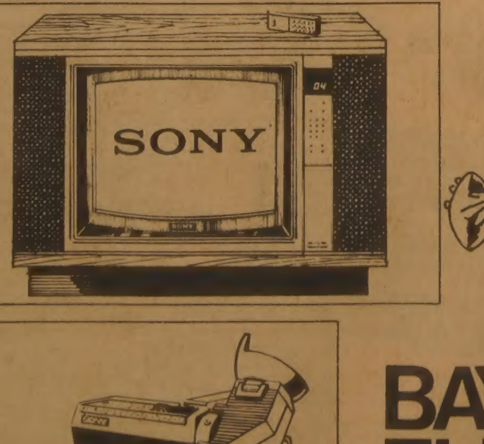
「또드락 딱딱……. 다음에 또 찾아 왔다간 콤퓨터인 로보트와 결혼을 시켜야지! 결혼이란 주어지는게 아니라, 서로 창조해 나가는 인격의 만남이란 걸 스스로 알도록 말이야. 좋은 색시감 골라줬더니 무슨 불평이 그렇게 많아? 그럴바엔 아무나 하고 할 것이지……. 콤퓨터가 콤퓨터이지, 총각 처녀의 행복까지 어떻게 알아? 또드락 딱딱…….」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 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 /yr. $9. /mo. 구독료 (신규) 년$99. 월$9. 영구구독: $500.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새로개업한
서울식품
좋은품질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 합니다
해밀톤지점 ☎: 1-385-1485
서부지점 ☎: 243-9544

훼미리·닥터 (의사 왕운린)
(B 968-1543·R 363-9196)
600 SHERBOURNE ST. #402
월~금: 오전10시~오후7시
토: 오전11시~오후3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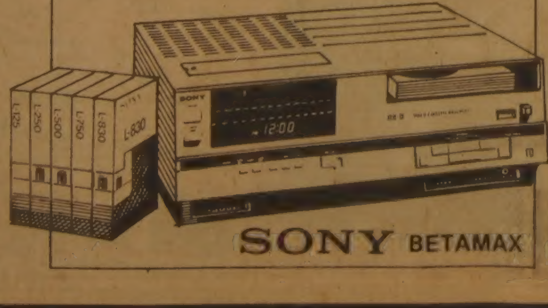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 ·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 TV판매
☎ 532-0210 손병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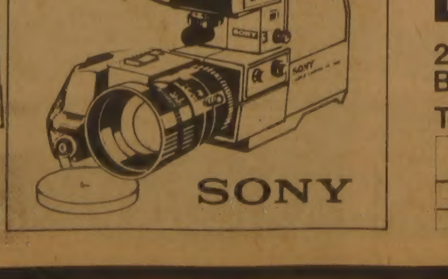


최고품질의 스테레오, 텔레비존 혹은 비디오를 구입하시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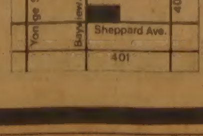
취급품목
Stereo • Television • Video

취급메이커
Sony • Luxman • Pioneer • Sansui
J.V.C. • Toshiba • Panasonic
Sanyo • A.K.G. • Sennheiser





BAYVIEW ELECTRONICS
2901 Bayview Avenue, Willowdale, Ont.
Bayview Village Shopping Centre.
Tel: 224-1622 대표 김 항 섭



〈추가특별보증기간〉
82년10월15일부터 83년1월30일까지에 한하여 5년간 완전 보증합니다.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공인회계사
이 영 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 · 은퇴
부 동 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 각종보석
▲ 다이야몬드
품질보장
▲ 최저가격
▲ 뉴디자인
▲ 보석개조
교환매매
▲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太平洋頂上회담 계속檢討

韓·印尼頂上 공동성명

印尼 직업訓鍊센터設立 협력

◇惜別의 情 나눠
全斗煥대통령이 공항에서 3泊4일간의 訪韓일정을 마치고 離韓하는 수하르토 대통령과 포옹하면서 석별의 정을 나누고 있다。

全斗煥대통령과 수하르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19일 상오 양국 頂上회담을 결산하는 공동성명을 발표, 太平洋頂上회담의 개최가 太平洋연안국의 공동발전과 번영을 위해 필요하고 유익할것이라는 全대통령의 설명에 수하르토대통령은 이를 찬양하고 앞으로 계속해 검토해야할 훌륭한 구상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수하르토 대통령의 離韓에 앞서 발표된 19개項의 이공동성명에서 全대통령은 太平洋지역내의 개발도상국간의 협력증진을 위해 한국정부가 인도네시아에 직업훈련센터를 설립하는데 협력을 제공할 의향을 표명했으며 수하르토 대통령은 이같은 한국정부의 협력이 인도네시아의 산업개발과 양국민간의 우호관계를 가일층 증진시키는데 기여할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수하르토, 한국平和노력 지지…어제離韓

兩國대통령은 이어 東北亞및 東南亞의 평화와 안전이 상호긴밀히 관련되어 있으며 아시아·太平洋지역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평화와 安定유지에도 필수불가결하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특히 한국과 아세안(東南亞국가연합) 회원국간에 긴밀한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있음에 留意하면서 韓·아세안회원국간의 互惠的인 협력증진이 太平洋지역의 평화와번영에 중요하다는데 합의했다。

공동성명에서 全대통령은 또 인도네시아의 경제및 사회개발을 위해 한국이 인도네시아의 건설·교통및 資源개발 사업등에 기꺼이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양국대통령은 민간부문 合作사업증진과 과학및 기술협력확대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공동성명은 양국원수가 상호 雙務協力관계를 더욱 확대시킬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효과적인 경제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위해 항공협정, 2重課稅방지협정및 投資보장협정의 조속한 체결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은 全대통령이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을 포함한 韓半島의 긴장완화와 항구적인 평화定着을위한 한국의 노력과 의지를 상세히 설명한데 대해 수하르토대통령은 한국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南北韓간의 직접회담을 지지했다고 말했다。

수하르토대통령은 이날 공동성명이 발표된뒤 3박4일간의 공식訪韓일정을 모두 마치고 상오10시20분 일본을 비공식방문하기위해 離韓했다。

수하르토 대통령은 離韓에 앞서 청와대로 全대통령 내외를 告別방문하고 이어 全대통령내외와 함께 金浦공항으로 향했으며 金浦공항 귀빈실에서 환송인사를 나눈뒤 한국제선청사 3층에서 있은 환송행사에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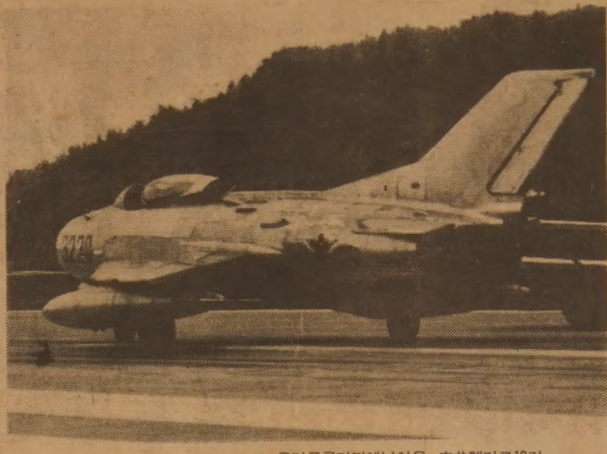
社會漫評

"별볼일 없구나…"

中共軍조종사 1명 서울로 脫出

미그19機몰고 西海건너 우리基地에

國防部발표 第3國 亡命희망…調査후 依法처리



◇脫出 미그19기 우리공군기지에날아온 中共製미그19기。 몸통에는 중공군 표지인 좌우 赤線이 이어진 붉은 별과 앞쪽에는 3220이란 붉은색 機番이 적혀있다。

중공군 조종사 1명이 MIG19전투기를 몰고 우리나라로 탈출해왔다。 국방부는 19일 중공군조종사 1명이 지난 16일하오2시34분 중공제MIG19전투기(일명F6)를 타고 서해를건너 우리공군기지에 착륙했다고 발표했다。

★관련기사3면

朴鍾楨국방부대변인 발표에의하면 이 전투기조정사는 중공군정찰1단소속 吳모씨(25)이며 우리기지에 도착시 제3국으로 망명할 의사를 밝혔다는것。

국방부는 조종사 吳씨가 현재 관계당국의 보호를 받고있으며 그의 신병과 전투기 기체의 제3국 송환등 제반문제는 조사가 끝나는대로 법절차에 따라 처리될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적성국관계에있는 중공군 비행기가 우리나라에 귀순해온것은 지난61년9월15일 高佑宗·邵希彦등 두조종사가 AN2수송기를 몰고 濟州道에 도착한 이래 이번이 두번째이며 盧今錫대위, 朴順國소좌등 북괴군의 월남탈출을 합치면 적성국 군용기로는 7번째가 된다。

또 군용기의 기종별로볼때 MIG19기가 날아온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건국이후 우리나라로 귀순해온 敵性國군용기와 조종사들은 다음과 같다。

▲50년4월28일=북괴군李健淳소위(IL10연락기) ▲53년9월21일=북괴군盧今錫대위(MIG15전투기) ▲55년6월21일=북괴군李雲鏞상위·李仁善소위(YAK18훈련기) ▲60년8월3일=북괴군鄭洛賢소위(MIG15전투기) ▲61년9월15일=중공군高佑宗·邵希彦(AN2수송기) ▲70년12월3일=북괴군朴順國소좌(MIG15전투기)

蘇製를 改良生産 中共製 미그19機

지난16일 서울로 날아온 MIG19기는 滿州 瀋陽에있는 중공군수공장에서 생산되어 「瀋陽F6」이라 불리는 전투기。

소련제 MIG19SF를 토대로 63년 개량생산을개시, 중공제 전투기로는 처음으로 「마하」시대를 연 기종이다。

MIG19는 나중에 개발된 MIG21이나 MIG23에 비해 성능이 뒤지기 때문에 소련에서는생산이 중단된 구형이지만 중공에서는 최근까지 약3천대가 생산되었고 현재 중공과북괴, 파키스탄등 국가에서 주력기종으로 쓰이고 있다。 중공에서는 「殲6」이라고부르고 있는데 「殲」은 殲擊(섬격)의 약자。

중공산 MIG19 가운데는 「미그19PF」「미그19PM」등 제한적 전천후형도 있으나 가장 많은것은 주간전투기형인 「미그19S」다。

기형인 「미그19S」는 소형엔진 크리모프RD B쌍발엔진을 사용, 기체를 가볍게하여 착륙공간이 좁은것이 특징이며 체공시간은 2시간38분。

瀋陽F6은 현재 알바니아(36대) 탄자니아(10대) 이집트(60대) 파키스탄(1백40대)에 제공되었고 북괴에도 50여대가 배치되고있는것으로 알려졌다。

동체아랫부분 앞쪽에 수직및 사각자동이 가능한 카메라설비를 갖춤으로써 전술정찰임무도 수행할수 있다。

지난 77년7월에도 중공군 조종사 1명이 福建성기지로부터 이기종을 몰고 臺灣으로 탈출해간적이 있다。

제원 ▲전장14·9m ▲폭9·2mm ▲높이4·02mm ▲무게5천7백60kg(무장시8천7백kg) ▲최대속도=시간당1천4백52km ▲순항속도=9백50km ▲전투행동반경=6백85km ▲무장=30mm기관포3문 사이드와인더로키트2 12連로키트포 또는 8개의 대공로키트장착 5백파운드폭탄2

"開戰初 3일決戰 만반態勢"

國會常委, 部處보고받고 질의

국회는 19일하오 外務·保社委를 제외한 11개 常委를 열고 소관 부처의 업무현況을 보고받고 일부常委에서정책질의를 벌였다。

의료보험 一元化 문제로 18일 空轉한 保社委는 19일 3당간사회의와 의료보험 심의 小委(위원장 崔永喆 보사위원장)를 열고 與野간에 절충을 시도했으나 야당측이 醫保一元化법안을 제출하지 않는한 회의에 응할수없다고 계속 버텨20일 다시 회의를 갖기로 한채 自動流會, 이틀째 空轉되었다。

國防委 黃永時육군참모총장은 『육군은地上전투에 있어서 開戰初 3일을 勝敗의 결정적시기로보아 이에대한 완벽한대응책을강구해놓았다』고 말하고 敵의기도로보아初戰양상은 正規戰과 非정규전을배합, 현전선을 돌파, 早期에 赤化야욕을 달성하려할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黃총장은 『육군은 이에 대응해 강력하게 준비한 현전선에서 多重봉쇄개념에 의한 地帶化방어를 실시하는 한편 공해주축의 전력을 投入, 반격의 결정적 好機로삼을만한 공해전략개념을 이미 수립해놓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제로베이스(零基點) 개념하에서 예산을편성, 제반 낭비요인을 사전에발본하고 物資관리제도를 자금관리제도로전환했다』고 말했다。

運營委 金聖基사회정화위원장은 『사회정화위는 限時기구로서 그동안 누적되어온 사회부조리를 제거하고 제도와 환경을 개선, 정의사회구현을 위한 국민의 의식개혁에 집중하고있다』며 『이때까지 사회정화위 중앙기구가 각종 지원을 위해 존속해야하나 이 목적이 완수되고 지역정화위가 확립되면 없어져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역淨化委존속의 法的근거를위한 社會淨化운동조직육성법을마련, 年內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체 정화위원 만여명중 지역정화위원은 5485만명으로 그중엔 정화대상인 물도 들어있다』면서 『道단위로 정화위원의 자질과 신망도를 검토해 문제의 정화위원은 연말까지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農水產委 李秉禧, 李龍鎬, 鄭輝東, 吳漢九(이상民正), 徐鍾烈, 金珍培(이상民正) 金永光(국민) 愼熙範(民正) 의원등은 질의에서 『생산비의 加重과 농가부채등으로 영농비의 보전이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올秋穀價는 생산비가 보장되는 선에서 결정돼야하며 희망량은 전량수매돼야한다』고 주장했다。

独立紀念館건립誠金

우리의 작은 精誠… 큰뜻 이루게

<19일접수>

(株)리치 吳判元·吳南玹대표 外 2백6만원
코락(株) JM 앤더슨 社長 外 1백28만원
컴스트랜드韓國支店 65만원
서울祭基洞裵春根씨 50만원
大巡眞理會(大邱대명5지구) 30만원
東隆物產(株)임직원 26만원
古美術商會全北支會 18만원
大巡眞理會(大邱대봉7지구) 11만원
〃 (大邱신암6지구) 11만원
新林洞 新新 새마을金庫 11만원
商業銀行淸凉里지점 11만원
驛村洞聖一감리교회 10만원

▲(株)리치·利置 상사 대표 吳判元씨·吳南玹씨外 임직원一同=2백6만6백74원
▲코락(株)사장 제이·엠·앤더슨씨외 직원一同=1백28만7천원
▲컴스트랜드(株)韓國支店 대표 金東成씨外19명=65만9천원
▲東大門區 祭基洞 한전아파트 라棟501호 裵春根씨=50만원
▲종단大巡眞理會大邱 대명5지구 대표 과외수씨外道人一同=30만3천원 【大邱지사접수】
▲東隆物產(株) 임직원一同=26만1천6백80원
▲사단법인 韓國古美術商中央會 全北支會長 吳東鎬씨外 회원一同=18만2천원
▲종단大巡眞理會 大邱대봉동7지구 대표 林應澤씨外 道人一同=11만8천원 【大邱지사접수】
▲종단大巡眞理會 大邱신암6지구 대표 崔淑祚씨外 道人一同=11만원 【〃】
▲冠岳區新林洞 新新새마을金庫 임직원一同=11만5천원 【신림지국접수】
▲韓國商業銀行淸凉里지점 직원一同=11만원
▲驛村洞 聖一감리교회 孫學農목사외 교인一同=10만원
▲城北區貞陵2洞1통 주민一同=8만9천5백원 【정릉보급소접수】
▲李興基씨(城東區九宜洞231의45)=5만원
▲九老區開峰1洞25통1반(반장 韓元燮)주민一同=4만3천원
▲江東區城內2洞17통6반·7반주민一同=3만7천3백원 【성내보급소접수】
▲江原道鐵原郡金化邑鶴沙1里 권일섭씨=2만원
▲江原道鐵原郡金化邑鶴沙1里 유재호씨=5천원 【金化지국접수】
▲道峰2洞79번지 道峰시민아파트3동주민一同=1만6천8백원 【金化지국접수】
▲가락시영아파트91동4반주민一同=1만원 【송파보급소접수】
▲西大門區신촌 任玉仙씨=1만원

접수電話 722-4171

29일 黨政회의

3黨3役 25일會同

정부와 民正黨은 오는29일 하오 民正黨중앙당사에서 黨政책조정회의를열고 전반적인 정기국회대책을 포함, 野黨이 제출한 政治關係法처리문제, 각종稅法, 새해예산안심의문제등을 논의한다。

民正 民韓 국민등 3黨의 3役들은 오는24일 비공식개별접촉을 가진데이어 25, 26일께 공식모임을 갖고 당면한 國政현안문제를 논의할예정인것으로 19일 알려졌다。

地平線

전국체육대회가 열전6일만에 막을내렸다。 인정의 港都 馬山이 개최지였던만큼 후한인심, 깨끗한 거리가 돋보였고 질서와 화합의 대제전을 무사히 치러 88서울올림픽에의 디딤돌을 더 굳건히 다진데서 그성과는 돋보인다。▼질서와 스포츠맨십이 유난히 강조된 이번대회에선 한국신 20여개가 쏟아져나온것 이외에 시도선발팀마다 신인들의 기대이상의 선전상을보인점이 두드러졌다。 선수들이 각 고장의 명예를 걸고 페어플레이로 당당하게 승부를겨루는 가운데 오히려 강호팀이 탈락하는 등 이변이 없지 않았는가하면 개최지인 마산시민의 정성과 긍지도 광장하여 체전성금으로 1천5백만원을 선뜻 내놓은 한 시민까지 있었다。▼이런 열광을보면서 쿠베르탱이 近代올림픽을 부활시킨 1896년 아테네대회때의 에피소드가 생각난다。 맨먼저 종목선정 때 안들어있던 마라톤이 프랑스측제의로 경기종목에 들게되자 아테네시민들은 마라토너에게 온갖성원을 아끼지 않았다。 선수로 뽑힌 물지게꾼 S·로웨스를 격려하기위해 그가 우승하면 거액의 상금에 보태서 자기딸을 시집 보내겠다는 부호도 나왔다。▼그런가하면 이발소와 양복점에선 일생동안 이발을 공짜로하고 양복을 마음대로 골라입으라는 프로포즈까지 있었다。 초컬리트공장 주인은 초컬리트를 1톤이나 주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돈엔별 욕심이 없었지만 로웨스는 힘껏뛰어 1등을 차지, 희랍을 떠들썩하게했다。 그는 혼자였기 때문에 처녀 장가를 다시 들진 않았으나 일생 먹을것이 생겨 요새말로 생활 보장은 되었던 것이다。▼지금까지 비인기종목으로 외면당했던 육상이 이번체전에선 관중동원에 성공, 육상붐조성에 청신호를 올린것도 주목을 끈다。 메인스타디움에 사흘동안 매일 2만여 관중이 몰려 신기록이 나올때마다 박수와 함성을 터쳤다。 육상의 묘미를 우리국민들도 더한층 터득한것같아 가슴이 뿌듯하다는 체육인들이 많았다。 하나 이러한 육상붐에도 불구하고 마라톤은 8년전기록으로 되돌아간 저조를보였다。 마라톤신기록이 나왔으면 로웨스의경우처럼 금상첨화가 되었을 텐데…。▼질서체전을 표방한만큼 올체전은 화합속에 겨레의 질서의식을 높이면서 마무리되어 88올림픽을향한 한걸음의 전진을 이룩하였다。 馬山체전을 이을 仁川체전에선 그아름다움이 더욱 발전되었으면—。

The 5th Concert of Toronto Korean Philharmonic Orchestra

토론토 한인교향악단
제5회공연
바이올리니스트
박영대
첫 독주회

수많은 음악 애호가들을
매혹시킬 바이올리니스트
박영대 첫 독주회가
라이어슨 무대에서
그 역사적인
막을 올립니다.
깊어가는 가을밤
바이올린 선율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 시 : Nov. 13, 1982(Sat.) 8:00 p.m.
장 소 : Ryerson Theatre(43 Gerrard St. E.)
▸협 연 : 바이올리니스트 박 영 대
Solist : Young-Dae Park(Violin)
▸지 휘 : 김 승 순
Conductor : Sung-Soon Kim
▸곡 목 : ●Beethoven Overture Coriolan Opus 62
●Bruch Violin Concerto No. 1 in G-Minor Opus 26
●Mozart; Symphony #41 (Jupiter)
▸예매처 : 각식품점

TORONTO KOREAN PHILHARMONIC ORCHESTRA
2900 STEELES AVENUE EAST, SUITE 220, THORNHILL, ONTARIO CANADA L3T 4X1
연락처:모자르트 음악학원 TEL: (416) 881-8211

美、東海서 최대艦隊훈련

이달初 核航母·1萬5천將兵참가

北韓 經濟水域에 영향

【東京=聯合】美제7함대의 核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號(7만5천7백톤급)와 항모 미드웨이(5만1천톤급)등 13척의 각종水上함정과 장병 1만5천여명이 참가한 미국의 대규모함대기동훈련이 이달초 東海로부터 일본의 쓰가루(津經)해협에 걸쳐 실시됐음이 확인됐다고 산께이 신문이 19일 보도했다. 특히 이번 훈련은 北韓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경제수역내까지 영향을 미치는광범위한 것이었다고 이 신문은 말했다.

산께이는 이같은 사실을도오쿄의 美日두나라 군사소식통으로부터 확인했다면서 核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號가 東海의 함대기동훈련에참가한 것은 13년만에 처음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산께이는 미국의 이번 함대기동훈련이 극동의 蘇해군력증강, 백파이어 장거리폭격기증강 배치등과 관련, 베트남전쟁이후 脫 아시아정책을 취해온 미국이 그같은 미온적 자세에서 벗어나 아시아, 특히 극동지역의 군사적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전략전환의일환에서이루어진것으로 평가된다고지적하고 미사와(三澤)기지의 F16機배치 결정을 비롯, 미국은 금년에 들어 東海·北태평양 오호츠크해에서의 해군력강화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산께이는 미국의 함대기동훈련이 캄차카반도의 蘇해군기지인 페트로파블로프스크의 동쪽 7백24㎞ 떨어진 해역에서 항공모함 탑재기에의한 航母공격을 중심으로한 일련의 훈련을 실시한 다음 지난6일 일본의 쓰가루해협을 통과, 동해상에서 항모타격전·防空戰·對水上艦戰·對잠수함전·해상보급훈련등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제마옐과 UN총장 아민·제마옐 레바논 대통령이 18일 대통령 취임후 처음으로 美國을 방문, 유엔총회에서 연설한후 하비에르·페레즈·데·케야르 유엔사무총장과 악수를 나누고있다. 【뉴욕 19일 UPI電=聯合】

레이건 TV연설

對蘇가스管 장비禁輸 美서 解除검토

【워싱턴=聯合】레이건美대통령은 18일 미국은 폴란드사태와 관련 소련에 부과한 시베리아 가스관건설공사 장비금수조치를 해제하고 다른 對소응징방법으로 대체하는 문제를 유럽맹방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레이건대통령은 이날 공화당정치자금모금단체들을 상대로 행한 폐쇄회로 TV연설에서 미국은 폴란드사태에 관한 대소응징조치를 논의하기위한 유럽맹방들과의 협상이 결렬되면 어쩔수없이 이같은 對蘇禁輸조치를 취했으나 다른 더좋은 제재방법이 있다면 對소금수조치를 철회할수 있다고 말했다.

레바논 제마옐 外國軍철수、援助등호소

【유엔본부=聯合】아민·제마옐 레바논대통령은 18일유엔총회및 安保理연설을 통해 레바논주둔 외국군의 즉각전면 무조건철수를 촉구하고레바논재건에 필요한 국제원조를 제공해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제마옐 대통령은 1백57개 유엔회원국중 1백56개국대표들로부터 열광적인 기립환영을 받으면서 총회장에 입장, 영어로 연설하면서 레바논은 앞으로수년뒤『잿더미속에서 다시 솟아오르는 不死鳥』의 모습으로 재건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벨物理學賞 美윌슨敎授

化學賞엔 英國클루거敎授

【스톡홀름AP·聯合】美코넬대학의 케네드·G·윌슨교수(46)와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의 에런·클루그교수(56)가 82년 노벨물리학상과 화학상 수상자로 각기 선정됐다.

스웨덴왕립과학원은 18일 윌슨교수가 사물이 각기 다른 상황에서 변화하는 이유를 이론적으로 밝힌 이른바『臨界현상』에 관해 명확하고 중요한 해답을 제시、물리학분야의 숙제중의하나를 해결한 공로로 노벨상의 영광을 차지했다고발표했다.

과학원은 또 南阿공화국출신의 분자미생물학전공인 클루그교수는 結晶電子현미경 검사법과 核酸단백질에 관한 연구에 끼친 공로로 화학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말했다.

◇윌슨敎授

◇클루그敎授

美國家安保局 私企業사찰

私生活도 情報대상

議會 未發刊보고서

【워싱턴=聯合】미국정부기관인 국가안보국(NSA)이 전자도청장치를 이용、미국내 私企業들의 업무내용을 정기적으로 탐지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사생활영역까지 그정보수집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美의회의 한 未發刊 보고서에 의해 18일 밝혀졌다.

이번 훈련에서 주목할것은 고있는 해역내까지 미치고있는 훈련의 실시범위가 북한이 그들의 경제수역이라고 주장하는 점이라고 이신문은 덧붙였다.

「南南협력」의 標本으로

韓·印尼 頂上회담의 成果

民間합작등 實質협력확대

해설

3泊4일간에 걸친 수하르토 인도네시아대통령의 이번訪韓은 全斗煥대통령이 지난해6월 인도네시아를 방문、양국간에 다진 협력관계를 한차원 높은실질적인 관계로 올려놓은계기가 된것으로 평가된다。수하르토대통령의 離韓에 앞서 발표된 양국頂上회담의 공동성명은 이같은 양국간의 구체적인 협력의 청사진을 담고있다。

양국頂上이 공동성명에서 상호보완적인 경제협력의 구현방안으로 인도네시아의 건설·교통및 資源개발등에 한국이 적극 참여하는 한편 민간 合作사업 및 과학기술협력등을 확대키로 합의한것은 바로 이를 뒷받침하는것으로 볼수 있다。

이번 공동성명에서 특히 눈길 끄는 대목은 太平洋 沿岸國들의 공동발전과 번영을 위한 정상회담에 관한 제3항과 6항이다。

성명은 양국원수간에 太平洋정상회담구상이 건설적으로 토의됐고 全대통령이 지난7월제창한 太平洋연안국정상회담의 개최가 유용하다고 강조한데 대해 수하르토 대통령은 이 정상회담구상을 『계속해서 검토해야할 훌륭한 구상』이라고 언명한것으로 밝히고 있다。

수하르토대통령의 이같은 의견표시는 이문제가 두나라 頂上간의 회담을 계기로 構想단계를 넘어 진지하게 논의한것은 太平洋시대의 개막을 향한 전향적이고 구체적인 一步를 내딛게된것으로평가된다。『계속해서 검토해야할 구상』이라는 표현은 어떤 면에서 보면 낙관만은 할수없는 부분이 남아있음을 엿볼수 있게하는 것이기도 하다。그러나 수하르토 대통령이 특히 太平洋정상회담의 이익을 제공할 의향이 있음을 밝혔고 이에대해 수하르토대통령은 심심한 사의를표시、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공동성명은 밝히고있다。

참가대상국중 가장많은 국가 그룹이라 할 수있는 아세안(東南亞국가연합) 5개국중에서 영향력이 큰 인도네시아의 국가원수라는 점과 인도네시아가 국제무대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에 비추어 韓·印尼 역내국가간의 「南南협력」의 구체적인 표본이 될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이밖에 양국원수는 두나라사이의 경제관계에 있어 상호보완성의 필요성을 강조한후 효과적인 경제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항공협정、2重과세방지협정、투자보장협정의 조속한 체결을 약속하고 있어 양국간의 實務협력관계의 확대가 실질적인 단계에 이르고 있음을 말해주고있다。

이번 수하르토대통령의 訪韓은 공동성명에서 밝힌 것처럼 한국과 인도네시아간의 기존우호관계를 더욱 다지고 한국과 아세안간의 협력、나아가서 太平洋연안국간의 공동번영을 위한 초석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수 있다。【河長春기자】

韓·印尼 공동聲明 (要旨)

▲양국원수는 太平洋頂上會談구상을 포함한 제반상호관심사항에 관하여 건설적인 의견교환과 실질적인 토의를 가졌다。

▲양국 大統領은 아시아및 太平洋지역을 중심으로한 최근의 국제정세를 검토하고、東北亞및 東南亞의 平和와安全은 상호긴밀히 관련되어있으며 아시아·太平洋지역뿐아니라 전세계의 平和와 安定유지에 필수불가결함을 재확인했다。

▲全대통령은 1982년7월31일 鎭海기자회견에서 천명한 5개원칙에입각하여 태평양연안국 정상회담구상을 수하르토대통령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이지역국가들이 급속한 사회경제적 성장과 상호의존의 증대에 비추어 동국가들의 공동발전과 번영을촉진하기 위하여 太平洋頂上會談을 개최하는것이 필요하고 유익한 것이라고 언급했다。수하르토대통령은 全대통령의 태평양정상회담구상을 찬양하였으며 同구상은 수하르토대통령이 계속하여 검토해야할훌륭한 구상이라고 언명했다。

▲全대통령은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를 개관하는가운데 자신이 최근 제의한「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포함、韓半島내의 긴장완화와 항구적인평화정착을 위한 大韓民國의 노력과 의지를 상세히 설명했다。

수하르토대통령은 韓半島의 평화적통일달성을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을 높이평가하면서 한반도문제가 대화를통한 평화적인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인도네시아정부의 입장을 재 강조함과동시에 南北韓간의 직접회담을 지지했다。

▲全대통령은 南北韓의 국제연합 가입이 한국의평화통일 달성시까지의 잠정조치로서 한반도의 긴장완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견해를 재강조했다。

▲全대통령은 아세안의 지역협력을 위한 국제적이고도 중요한 역할을 인정하면서 大韓民國정부는 아세안과의 가일층의 관계강화를 중요시한다고 언급했다。

양국대통령은 大韓民國과 아세안회원국간에 긴밀한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있음에 유의하면서 大韓民國과 아세안회원국간의 호혜적인 여합은 민족화합과 평화、통일에 유리한 국제적여건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것이라는 견해를 표시했다。

▲全대통령은 太平洋지역 내 개발도상국간 협력증진의 표시로서 한국정부가 인도네시아내의 職業訓練센터를 설립하는데 협력을 제공할 의향이 있음을 표명했다。

수하르토대통령은 全대통령의 우호표시에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이는 인도네시아의 산업개발과 양국민간의 우호관계를 가일층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양국대통령은 양국간 雙務協力관계를 더욱 확대시킬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효과적인 경제협력을 제도적으로뒷받침할 목적으로 航空協定、二重課稅방지협정및 投資保障협정등 현안중인 협정의조속한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대통령은 금번 수하르토대통령의 답방이 양국대통령간의 친분관계를 더욱 돈독히하고 아울러 양국간의 친선우호관계를 공고히 하는데 매우유익하였음에 만족을 표명하고 양국간의 각급상호교류가 증진되기를희망했다。

民正黨 반대키로 保證手票 實名制

19일 현재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保證手票(은행발행자기앞수표)에 實名制를 적용시키는 방침에 대해 반대키로 결정했다。

民正黨의 黨職者 회의는

本社來訪

▲金榮基씨(철도청공보담당관) 新任인사차

社說

永遠한 人類평화 照明

—「세계博物館협의회」와 국제協力

박물관은 숨결이 끊긴 化石문화의 집합체가 아닌 살아있는 역사다。까마득한 先史시대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인류가 共有한 찬란한 문화를 밝혀주는 寶庫다。따라서 그 문화적 기능은 날로 확대되고 그 眞價가 더욱 널리 인식되어 가고 있다。

다양한 각국 박물관의 상호협력과 정보교환을 통해 인류문화를 照明해 보려는 제3차세계박물관협의회(ICOM) 아시아지역회의가 우리나라에서 18일부터 열려 그성과에 기대가 모아 진다。

지금 우리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중앙청건물로의 이전、독립기념관 건립등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이런 마당에 17개아시아 회원국이 참가한 이모임의 의미는 유별나다 하겠다。歐美와 특히 공산권 옵저버의 참석은 이념과 체제를 초월한 문화행사로 示唆되는바 크다고 생각된다。

개회 치사를 통해 정부당국자는 新安바다에서 건져올린 1만8천여점의 宋·元代 유물을 북한과 중국대륙의 학자들에게도 공개、공동연구를환영한다는 중대한 제의를 내놓았다。李振鐵문공장관은 한걸음 더 나가서 新安유물에만 국한하지 않고 한국의 문화예술을 공산권에 널리 개방할 용의가 있음도 밝혔다。

인류문화의 창조와발전에는 때로 국민 또는 민족문화의 개성과 우월성이 강조되나、상호교류작용의 바른 인식 없이는 이해·접근이 사실상 어렵다。

동양권문화는 개별적 민족문화권으로 분리시켜 놓을때 더욱 그참모습을 밝히기가 힘들다。한국의 古代史를바르게 연구하려면 강대했던 고구려·발해의 유적이 산재한 만주·연해주는물론、중국대륙에까지 학문의 시야를 넓혀야함이 필수적이다。

분단이후 남북한 지역에선 구석기시대에서 삼국시대에 이르는 많은 유적과 유물이 발굴되었다。이 귀중한 민족사와 유산이 이념과 체제의 장벽에 가로막혀 상호보완 연구가 불가능한 상태다。이러한「학술교류의 斷絶」은 민족의 일체감 조성을 방해하는 장애요인이기도 하다。

우리는 76년에 이미 남북한 古美術品 교환전시를 북한에 제의했고、지난해엔 정부가 거듭「남북한문화교류」를 제의한바 있다。사상을 뛰어넘은 문화교류라는 우리의 평화의지는 이제 중국대륙에까지 범위를 크게 넓혔다。

新安유물은 宋·元代자기사와 무역활동을 밝혀줄 결정적 단서이며 자료다。중국학자들의 관심이 쏠리는 것도 당연한「학문의 良識」이다。우리의 공동연구제의에 북한과 중공이 머뭇거릴 이유는 없다고 믿는다。학문의 발전과 문화의 창조는 정치를초월해서 이뤄진다는것이 역사의 생생한 교훈임을 강조해둔다。따라서 이제 東北亞의 문화자산을 함께 연구·평가하는 작업은 東洋문화의 大局的인 발전을 뜻하므로 이일엔 어떤 政治오염도 배제 되어야 한다。

국제협력을 통한 인류문화의 조명을 목적으로 열린 이번 회의를 계기로 우리는 박물관의 기능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다듬어야 하겠다。박물관의 기본기능은 자료의 수집과 완벽한 보존·보관이며 아울러 연구와교육에 있다고 한다。

세계박물관협의회 헌장도「연구·교육·위락을 목적으로 문화·과학적으로 의미있는 자료를 보관·전시하는 상설기관」이 박물관이라 정의하고있다。

박물관엔 문화·예술의 애정이 새겨져야 한다。시민의 학교로、평생교육의 터전으로、그리고 문화센터의 구실을해야「살아있는 박물관」의 큰뜻이 부각된다。

전통문화의 중요성이 강조될수록박물관의 위치는 높아진다。전통문화의 확인은 자기발전과 동시에 인류문화의 공감·共有로 승화될수 있다。박물관은 과거와 오늘을 연결시켜주며 문화교류에 관한 힘찬 의지를 상징한다。오늘은「문화의 날」이다。국제협력이 평가받는 박물관문화의 새로운 章이 열리는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

國際行事의 洗鍊性

—「82貿易博」成果속에 새겨둘 教訓

건국이래 최대규모였던「82서울국제무역박람회」는 예상밖의 큰성과와 푸짐한 기록을 거두면서 18일 그막을 내렸다。

이번박람회는 그시설투자만도 통산해서 1조원에 달하는 규모의행사였다。그동안 박람회를찾아든 외국 바이어가 1만명 이상이고 수출상담이 추진된것이 14억달러、폐막때까지의 수출계약 4억2천5백만달러에 이르렀다는 것이다。또 관람객의 연인원은 2백25만명을 기록、당초 예상을 훨씬 웃돌았다。

이런 外形的성과로미루어 무역박람회를 계기로 많은 외국고객들을 유치하여 국내 수출부진 타개의 돌파구를 마련함과 동시에 국내경제의발전상을 일반에게 보임으로써 국민적 긍지를 더욱 높이려던 당초 목적은 상당히 달성된 것으로 볼수있겠다。

전시장을 둘러본 사람은 모두 국내산업기술의 높은 수준과 質·量양면에서 급속히 팽창한 우리 경제규모에 새삼 감탄했다고 한다。또 그 관람을 통해 우리 상업이「컴퓨터시대」로 진입하였으며 유전자공학같은 2천년대의 첨단산업기술에 도전하고 있음을 목격할수 있었다는 것이다。이는 우리 경제의 밝은미래상을 엿보게하는 일면이라 할것이다。

서울무역박람회에 참가한업체는 국내 6백76개、해외 2백62개(40개국)로서 처음 계획했던 업체는 거의 다 참가한 셈이다。원래 무역박람회는 서로의 제품기술을 비교하고 정보를 교환하는데 편의를 제공하고 또 상호간의 교역기회를 다변적으로 갖게 해주는데 뜻을 두고있다。따라서 처음 목표대로 9백개를 넘는 많은 국내외 업체를 한자리에 모이게 한것은 일단 국제박람회로서 성공을 거둔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런 외면적성과 못지않게 內面的인문제점 또한 적지않았던것을 함께 지적해둬야하겠다。우선 사전준비와 예상에 차질이 없지않은듯한 점을 우리는못내 아쉽게 생각한다。

주최측은 이번 국제박람회가 몰고올 人波의「열기」를 예상치 못한데다 행사진행중에도 임기응변적인 조치마저 미흡하였다。

하루 4만명의 관람객이 입장할것으로 예상하여 6만평의 전시장을 확보하였다하나、행사중 내내 9만명이상의 입장객이 있었다는것을 보면 그예상은 너무 빗나갔다고 하겠다。그결과 국제적행사를 거행하는 자리에서 뜻하지않게 커다란「무질서」를 노출하고 말았다。

가급적 많은 관람객이 들어가 우리 상품을 보는것은 좋은 일이라하더라도 질서가 무너지면 국제행사로서의 품위를잃는다。연일 전시장이 인산인해를 이룬데서 막상 관람해야할 사람은관람을 기피하게 되었다。입장객도 한곳의 전시장을 보기위해 2~3시간씩 장사진을 치고 대기해야하는등 정력과시간을 낭비한경우가 많았다。

더구나 인파의 대열이 녹지대를 짓밟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며 심지어 노상 취식까지 하였다는데는 그저 씁쓸해질 따름이다。매일 4·5톤트럭 60대분의 불결물이 수거되었다는 사실은 무질서와 시설미비의 한 수치스런 단면을 현실로 드러낸것이나 진배없다。

그런 무질서속에서 생긴 다른폐단을 여기 일일이 더 열거하고 싶지는 않다。다만 종반에서 질서찾기운동이 벌어져 얼마간 상황이 회복되었고 또 보안이 그런대로 유지되어 큰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음을 다행으로 생각할 따름이다。

86·88년의 양대경기를 비롯하여 기타 규모큰 국제행사를 우리는 앞으로도 많이 맞게된다。우리가 이런 행사를 당할때마다「경제」에선 컸어도「시민문화」에서는 자라지않았다는 비판은 받지말아야 할것이다。

이번 박람회는 주최측의 계획미흡·운영미숙이 혼잡의 주인이었다。하나 일부의질서의식에도 문제점이 없지않음을 똑똑히 드러냈던것이다。국제박람회의 커다란 성과와 더불어 후일을위한 교훈을 그 박람회장에서 깊이 새겨야 할것같다。

政局往來

◆비행기가 못뜰만큼 비가왔으면…

인도네시아의 수하르토대통령내외는 3박4일간의 訪韓일정을 모두 마치고 19일상오 離韓에앞서 청와대로全斗煥대통령내외를告別예방、약20분동안 惜別의아쉬움을 나눴다。

全대통령은 이 자리에서『아쉬운 분이 떠나시려니 비가 온다』며『비가 올바에야 비행기가 못뜰만큼 많이 내려 며칠 더 계시게 했으면 좋겠는데…』라고했고、수하르토대통령은『그랬으면 좋겠지만 갈길이 있어서…』라고 말했다。

全대통령이 또『최근 몇달동안가뭄이 이번 비는 농민들도 반가와하겠다』고 말하자 수하르토 대통령은『인도네시아에서도 3개월간 비가 안내려 걱정을 했는데、내가출국한뒤 3번 가량 비가와 걱정을덜게 됐다』고 소개。

이어 全대통령내외와 함께 金浦공항 국제선 廳舍 3층에 마련된 환송식장에 도착、환송행사를마친수하르토 대통령내외는 출영인사들과 만면에 웃음을 띄며 석별의 인사를 교환。

양국원수는 이어 인도네시아 민요 붕가완·솔로가 연주되는 가운데 屋內 탑승구앞까지 가 포옹으로 마지막 작별을 했고、全대통령은 인도네시아말로『셀라마트 잘란(안녕히가십시오)』이라며 손을 들어 전송。

全대통령내외는 이날 공항 귀빈실에서 수하르토 대통령의 특별기가 완전 離陸하는것을 본뒤 靑瓦臺로 돌아왔다。

◆與의원 신랄한추궁에野서 잠잠했다

19일 국회農水産委에서 與野의원들은 秋穀 수매가와 수매량이 主이슈로 제기되는 가운데 입을맞춰「농어민의 소리」를 경쟁적으로代辯。

이날 金永光의원(국민)은『오이의 産地한접가격은 3백원인데서울에선 3천원、수박은 1개에 1백50원인데 2천5백원』이라고 예시한뒤『이렇듯 엄청난 마진을 먹는 것은 중간장사꾼들이고 농민들은 골탕만을 먹을 뿐』이라고 유통구조의 개선을 촉구。

民韓黨의 金珍培의원은『지난農政은 過多보고로 始終하더니 풍년이 들고 부터는 축소보고의 경향이 있다』며 外米도입을 신랄히 비판했고 徐鍾烈의원은 水産자원보호령과 수산청告示가 배치됨으로써 수많은漁民들이 막심한 私有재산을 침해 당하고있다고 조목조목지적하며폭로。

또 李龍鎬의원(民正)은『우리 농촌은 알고 죽는 해소병처럼 시름 앓아왔다』鄭輝東의원(民正)은『農政의 획일화와 下向式농정이 농업통계의 虛構를 불러일으켰다』고 지난농정을 비난하면서『밝고맑은 청사진을 제시할수 있는 農水畜産業의 現住所를 밝히라』고요구。

李의원은 특히『쇠고기는 부족파동을、돼지·닭고기는 과잉파동을 겪고 있다』는 農水畜産物의 지난해수입은 30억달러인데 수출은11억달러에 불과하다』고 농정의 문제점을 낱낱이 지적、야당의원들로 부터『잘했다』는 격려를 받기도。

한편 愼然範의원은『올림픽을 앞두고 國茶로 雪綠茶를 개발하라』고 충고하기도。

◆「묵은感情」싸고 攻擊 反擊실랑이

국회 商工委는 19일「한국중공업」의 보고를 듣기 직전 民韓黨간사인 柳在熙의원이 느닷없이 朴正基 한국중공업사장의 태도가 不誠實하다고 지적하자 與黨의원들이 반격하는등 잠시 옥신각신。

『朴사장의 정신상태는 해이되어있다』고 서두를 뗀 柳의원은『지난 6월 준공식때 여러의원들이 초청을 받아갔는데 상공위원장의 자리도 없었고 귀빈들을 초청해놓고 고맙다는 말조차 하지 않았다』는등「5가지 묵은感情(?)」을 지적한뒤『종업원이 5천명인데도 1만2천명으로 허위보고하는것은 불성실한 태도의 표본이라고 흥분。

이같은 흥분에 화가난 金正男의원(民正)은『인격에 상처를주는 일은 신중하게 발언해야하며 상대방의입장도 존중할줄알아야 한다』고공박하는등 與黨측 분위기가 심상치않게 돌아가자 徐錫宰의원(民韓)이 재빨리 停會를요구、고비를 넘기기도。

◆무작정호통보다는정확한추궁을

정기국회제2차常委활동이 점차 熱氣를 띠고있는것과 때를맞추어與野간부들간에는 立法府의 권위와選良의 品位를위해서 발언태도에 自省論이 擡頭。

즉 간부들은 일부의원들이 장관과 고위관리들에게 반말과 人身공격、그리고 무작정한 호통을 치는것은 오히려 국회의 위신을 높이려는것은 잘못된일이라면서 國政의갖가지 문젯점을 정확하고 신랄하게 지적、추궁하거나 무게있고 內實있는 질의에보다 力點을 둬야할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지적과 自省은 18일 저녁에 있은 3黨총무들 會食에서도 잠시 화제로 올랐는데 야당측은 특히 정부측의 보다정확한 답변과 자료제출이 未備하다고 是正을 요구。

"정부관계자들 實名病에 걸렸는지 不信病에 걸렸는지…"

◆民正黨 保手實名制 집중성토

19일상오 民正黨당직자회의는 姜慶植재무장관이 전날 국회財務委에서 밝힌『保手에 實名制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에 대해 집중聲討。

한 高位당직자는『姜장관이 保手에 實名制를 적용하는 문제를 검토하고있다는 발언을 해 실시할지도 모른다는 餘韻을남겼다』고 지적하고『정부관계자들이 實名病에 걸렸는지 不信病에 걸렸는지 알수가 없다』고 原色的인 표현으로 비난。

회의는 또 18일의 文公委에서 植民史觀을 가진 史學者의 명단을 제출하라는 주장이 있었으나 植民史觀 史學者가 등록되어있는것도 아니므로 이러한 주장은 무리라는 의견도 나왔었다고 金琢泰대변인이 전했다。

LOEB

CASH "N" CARRY

※ 온타리오주에 10개소의 도매상(토론토에는 3개소)들이 당신의 비즈네스를 위해 성심성의껏 친절 봉사코 있읍니다.

매주 광고전단을 만들어 각 소매상에 우편으로 보내드리오니, 원하시는분은 저희 도매상에 오셔서 신청을 하시면, 스페샬품목의 광고전단을 즉시 보내드리겠읍니다.(예 : Allen's Pure Apple Juice 48온스 $13.77 8월16일 ~ 8월28일)

★★★★ 당신의 M.Loeb Cash & Carry ★★★★

3 CONVENIENT TORONTO LOCATIONS

TORONTO
20 Orfus Road
Mgr. Dennis Schulz
782-8892

TORONTO
160 Evans Ave.
Mgr. Frank Arnone
255-6366

SCARBOROUGH
55 Bertrand Ave.
Mgr. Norm Carmichael
752-7292

LONDON
304 Adelaide St. S
Mgr. Ernie Kormendi
686-7590

WINDSOR
2629 McDougall St.
Mgr. Gary Villemaire
969-9610

SARNIA
135 Water St.
Mgr. Keith Hood
337-2751

ST. CATHERINES
189 Bunting Road
Mgr. John Neufeld
684-9581

HAMILTON
256 Gage St. S
Mgr. Mark Hagan
549-7069

BRANTFORD
16 Morton Ave
Mgr. John Baker
759-4633

CHATHAM
80 William St. S.
Mgr. Peter Antuma
354-3000

○사고시 보험 관계 일체 처리
○수리중 차대여
○완전한 차체수리
○사고차량 TOWING SERVICE
○페인팅(OVEN BAKE FINISHES)

MISSISSAUGA AUTO COLLISION
69 JOHN STREET
BUS. 275-3131, 3133
RES. 622-1171 정 창 헌

11개常委 질의·답변

山林보호위해 資源部신설하라
淨化自律추진 용의없나

질 문

地方行政기구 축소研究
地下鐵부족예산 會社債로 충당

답 변

◇19일하오 육군에대한 정책질의를 벌이고있는 국회國防委. ⓒ는 黃永時육군참모총장.

運營委

▲劉漢烈의원(民韓) 질의=金國士의 67%를 차지하는 山林자원을 보호하기위해 정부조직법을 개정, 山林資源部를 신설할용의가 없나. 처벌위주의 사회淨化운동보다는 사회각계각층의 많은공직자를 포상하고 격려하는방향으로 淨化委를 운영하는게 어떠한가.

▲李敏浩의원(民正)=사회淨化委는 사회정의구현을위한 總合的기관으로 限時的인 조직이며 집행보다는 조정업무가 주업무이다. 淨化委는 정의및도의사회 구현에 있어서 부패의 뿌리를찾아내는 철학적논리가 있어야하며 도덕적 차원에서 그역할을해야한다.

▲朴在旭의원(국민)=사회정화위는 自律淨化에 중점을두는게 어떠한가. 정무장관실업무보고중 국회답변실천제도에 발언책임성提高라는말이 있는데 어떤뜻인가.

▲金正秀의원(議同)=우리나라 지방행정기구가 외국에 비해 복잡 多端한데 중간기구를 축소, 지방행정을 개혁할계획이 없는가. 정화운동중 간접殺人이라고하는 소음에대한 정화계획은 없으며 정화위원회엔 정화될대상이 없는가.

▲孫守益총리行調室長답변=산림자원부新設문제는 흥미있는 案이다. 현재 정부기능분석의 관점에서 작업이 이뤄지고있으니 그와 관련해 검토될 문제다.

지방행정의 중간기구간소화문제는 현재 각계의견을취합중이므로 어느것이 우리실정에 맞는것인가하는 연구결과가 나올것이다.

▲吳世應정무장관=정무장관실업무중 국회에서의 '발언책임성제고'얘기는 정부측에서 국회답변때 '연구, 검토하겠다'는 등의 막연한 답변을 지양, 마무리를짓는 답변을 하도록 제도화하자는 뜻에서다.

▲金聖基사회淨化위원장=정화운동의 기본은 인간의 정신개혁이며 정신개혁의 과제를 선정, 분야마다 의식개혁을 전개하고 있는데 제도, 환경도 개선이 안될때는 관계기관과 협조, 개선되도록해야한다고 생각한다. 83, 84년까지는 淨化이념의 선창발전시기, 85년이후는 정착, 계승단계까지 끌어올리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정화위는 지금까지 문제의 정화위원1백6명을 교체했는데 非行중엔 축첩, 폭행, 도박, 품위손상등이 있다.

▲朴寬用의원(民韓) 질의=국무총리行調室은 불과 47명의 인원으로 방대한 서울시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고 보는지. 그 업무집행과정에서 지방議會의 필요성을 얼마나 느꼈는가. 국민복지 年金法과 도서관법이 오래전에 생겼는데 아직껏 시행령, 시행규칙을 만들지 못하는 이유는.

▲孫守益행정조정실장답변=지하철2호선과 3·4호선

▲趙重衍의원(民韓)=國有재산을 보호할수있는 장기대책은. 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어느 부처는 하고 어느부처는 國有재산을 처분하고 있다. 亂脈相을 시정할 용의는.

▲玄敬大의원(民正)=지역단위로 구성되어있는 9만3천여개의 淨化委는 우리사회의 病理를 추방키위해서는 영구존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정부측 견해는.

협의했기때문에 내용을 잘알고있다. 靑瓦臺3黨대표회담내용의 구체화를위해 지금 3黨3役간에 대화가 진행되고있다. 全斗煥대통령은 전국민의 화합을위해 모든계층과 대화를 하고있다. 따라서 야당정치인을 만나지못할 이유가 없으며 國益을위해 필요하다면 이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

▲金聖基정화위원장=公職者부인들에 대한 교육은 淨化가 가정에서도 이뤄져야한다고 보기때문에 실시했다.

국민 재산권 침해 진정에 대한 처리 상황은.

는 수산업법27조(漁業權 免許 우선순위)를 惡用, 私有재산권을 침해하고있다고 보지않는가. 수산물의 內陸地도매시장을 폐쇄하고 새로운 유통단계를 개선할 방안은.

▲李乘寢의원(民正)=牙山灣 방조제가 건설부와 농수산부의 水面관리싸움으로 준공허가가 나지 않고 있는데 그해결책은. 이로인한 災害時 농민들의 복구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 그 대책은. 우리 近海에서도 오징어

대한 근본 대책은.

▲李龍鎬의원(民正)=농민들의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기위해 適正이윤보장책을 마련할때가 되지 않았는가. 금년도 秋穀수매가와 수매량은 복지농촌의 건설, 안보의 강화, 경기부양이라는 측면에서 마련되어야 한다고본다. 만성적인 쇠고기부족 상태를 해소하기위해 송아지수태를 확대할 용의는? 오는 86년도 主穀자급 목표달성은 가능한가.

▲愼順範의원(議政)=88

다시 수입할 계획인가.

막는 대책은? 營農교육의 향상을위해 지도공무원의 교육강화및 영농교육센터를 설립할 용의는?

▲金珍培(民韓)=秋穀수매가는 실질적인 농가구입가격과 일금을 감안할때 20%를 인상시켜야한다. 해마다 都農간의 소득격차는 늘어나고 있는데 사회의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그대책을 마련해야한다.

올해에도 40여萬톤의 外米를 도입했는데 내년도에도또

▲金基洙의원(국민)=말단 里, 洞까지 퍼져있는 정화위원의 그많은 정화위원들이 과연 국민의 모범이 될만한 사람들인가. 또 조직이 말단까지 필요한가.

▲丁時采의원(民正)=총리실에 노인복지部를 자문기구로 만들어 長期的 대책을 세워라. 각 부처의 年金관리 업무를 一元化해 총리실에서 관장토록하라. 里, 洞단위의 지역淨化委를 활성화시킬 방안은.

▲陸完相의원(民韓)=정부가 마련한 幼兒교육진흥법안은 認可단체에서만이 유아교육을 시키도록 되어있는데 과연 절대부족한 우리의교육시설로 가능한 일인가. 校服·頭髮의 자유화이후 각종부작용사례가 많은데 그개선책은.

▲柳漢烈의원(民正)=총리실은 서울市 지하철工事업무에 어느정도의 지휘감독기능을 갖고 있는가. 부동산감정가격이 各部處에따라 算定値가 다른데 이를一元化시킬 용의는. 도로공사나 도시계획을 획기적으로 조정할용의는.

▲金在暎의원(民韓)=서울市에 민간인으로 구성된 行政조정協議會를 구성할 용의는.

練에 2조3천2백65억원이 소요되나 이중 1천7백억원은 재원을 못하고있다. 이는 會社債를 발행하거나 차관을 얻더라도 빠른시일내에 재원을확보, 공사를 마치도록하겠다. 서울시도로변의 간이 주차장은 바람직하지못하나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 지방자치제문제는 현재 내무부에서 검토중이다.

▲吳世應정무장관=야당이 제출한 政治風土刷新法에 대해서는 야당간부들과만나 수시로

化는 농촌보다 도시에 더많은문제가 있기때문에 도시에 역점을 두었다. 里·洞지역정화위원의 활성화를위해 이들에 대한 實質·표창을 확대하겠다.

農水産委

▲徐鍾烈의원(民韓) 질의=수산청告示22호(漁獲수산물의 강제上場)는 수산자원보호령의 立法정신에 배치될뿐만아니라 이로인해 漁民들에게 막심한 피해를 주고있다. 水協중앙회

는 內需가 넘칠정도로 어획되고 있는데 굳이 외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이유는.

▲金永光의원(국민)=농민들의 增産의욕에 미치지못하는 농산물 가격의 개선 방안은. 농촌의 遊休 노동력을 활용키위해 有畜농업을 개발해야하지 않나. 外貨稼得率이 높은 농수산물의 수출계획은. 절대농지에 대한 特定財閥의 專用化 사례가있는데 단속방안은. 해마다늘어나는離農현상에

의 올림픽을 앞두고 우리 고유의 國茶를 개발할 용의는? 광활한 漁場과 풍부한 漁族을 갖고있는 全南과 慶南지역에 水産局을 부활시킬 용의는? 水協과 수산청은 수산물의 강제上場制를 임의상장제로 전환할것을 강력히촉구한다.

▲鄭鎭東의원(民正)=농업계가 부진한것은 農政의 획일화, 下向式때문이며 식량 수급상의 차질이나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폭락을

▲吳漢九의원(民正)=농업용水의 長期債 이자를 현행5·5%에서 3·5%로 인하할 용의는? 水利원상회복시킬 용의는? 시설없 補修예산을 증액할 용의는? 보리 수확량이 현저히 줄고 있는데 보리 수급의 장기대책은 무엇인가.

法司委

▲朴炳一의원(民韓) 질의=금년부터 일반 사법시험 합격자를3백명씩이나 배출하고 있는데 剩餘人力이 예상된다. 이들을 軍法務官으로 흡수, 채용할수 있으리라고본다는데 굳이 隔年制로 軍법무관의 시험을 실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防衛兵의 범죄행위가 적지않은데 이는 교육부족과 훈련의 부족때문이 아닌가.

▲趙正濟의원(民正)=고등군법회의의 관할에대한 대법원상고건수와 처리결과에 대한 의 관할관의 확인조치등에서 減刑과刑면제자수도 밝혀라. 한 숫자와 보통·고등군법회의 국가를 당사자로한 소송을 군법무관이 수행하고 있는데 여기엔 訴訟기술이 중요한데 이에대한 교육대책은.

▲金永俊의원(民韓)=금년들어 국가를 상대로한 賠償사건에 73·8%만 배상금을 지급한 이유는. 과거 배상금 조작사건으로 큰 물의를 빚었고 국가적 손실이 많았는데 그후에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金重權의원(民正)=軍법무관종사자가 일반判·檢事보다 대우면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 현행 군법회의 編制가 적절한 것인지 묻고 싶다. 처리건수가 몇건되지 않는 국방부에 보통·고등군법회의를 꼭 설치할 필요가 있는가. 군법회의에서 피고인이 2년이상 형을 받도록 선고를 바라는 최후진술을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왜 일반교도소복역을원하는지 軍行刑관리상의문제점은 없는가.

▲李建鎬의원(民正)=2년이상 刑선고를 받은자는민간교도소로 移監한다는데 이것은 별로 이론적인 배경이 없다고 본다. 차라리 軍교도소는 없애고 민간교도소와 통합할필요는 없는가.

▲羅碩昊의원(民正)=군사법업무는 국방업무와 연관된다는 점에서 특수한 것으로 취급된다. 그런데 군법회의에서 처리된 것은 국민에게 잘 알려지지 않음으로해서 종종 부당한 오해를 낳을수 있다. 차라리 국민에게 알려지도록하는게 좋지않는가.

▲權寧珏국방부차관답변=사법고시합격자는 일반적으로 의무복무기간이 끝나면 제대를 하는 경향이 있다. 年도 司試합격자중 상당수가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방위병범죄문제가 상당한 몫을 차지하는 것은 현역병보다 질이 낮아서가 아니라 교육의 미흡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메아리

못찾겠다 꾀꼬리

『숨어라 숨어라 꼭꼭 숨어라』

시골에서 어린이들의 술래잡기는 신난다. 장독대뒤에도 숨고 볏가리속에도 숨고 숨을데는 얼마든지있다. 끝까지 들키지 않고 몰래 숨어있을수 있다는것은 어린이들에게 여간한 드릴감이 아니다. 찾기란 언제나 숨기보다 어렵다. 술래는 찾다찾다 아무도 찾지못하면 「못찾겠다 꾀꼬리」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을 들어버린다. 숨었던 어린이들은 와재재를부르며 나오고, 술래는 다시 술래가 된다.

이 놀이가 어린이들에게 숨기를 훈련시키는것인지 찾기를 훈련시키는것인지 모르지만, 인생은 쫓는자와 쫓기는자의 게임이라는 寓意가 술래잡기에 들어있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하다.

최근에는 「못찾겠다 꾀꼬리」란 노래가 한창유행하여 큰 도시에서는 숨을 곳이 없어 잃어버린 이 놀이를 그립게 하기도했다.

우리나라 刑事訴訟法에는 公訴時效라는것이있다. 판결이 확정되기전에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나면 刑罰權이 소멸되는 제도다. 어떤 사건의 범인이 일정기간동안 붙잡히지 않으면 죄를 물을수없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 公訴時效가 15년이다. 15년이지나면 법이 범인에게 「못찾겠다 꾀꼬리」를 선언한것이다.

지난16일로 釜山金根夏군유괴살해사건의 公訴時效가 끝났다. 수사과정에 말썽도많았던 이사건은 최근 대한민국 연극제에 참가한 實驗劇場의 「神話 1900」의 테마가 되기도했다.

金根夏군사건의 公訴時效만료 보도에 얼른 생각나는것은 趙斗衡군 유괴사건이다.

꼭20년전인 1962년9월10일 그때 4세이던 두형군은 할머니가 사준 빨간 양말을 자랑하러 강중강중 대문밖으로 뛰어나갔다. 그후로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고있다. 金根夏군사건과 달리 이사건은 용의자가 붙잡힌것이없고 두형군의시체가 발견되지도않았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두형군이 지금까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범인밖에는 아무도 모른다.

두형군사건은 유괴사건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센세이셔널한것이었다. 당시전국이 떠들썩했다. 한어린이찾기에 이때만큼 전국민이 합심한적이없었다. 전국의어머니와 학생들은 말할것없고심지어 우편배달부까지 나서고 노래까지 만들어 부르면서 구석구석을 뒤졌지만 끝내 단서조차 잡지못했다. 그때의 국민의 실망감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 한구석이 저려온다.

그후로 20년이 흘렀다. 두형군이 살았으면 24세, 대학을 갓나온 의젓한 젊은이가 되었겠다. 이 사건은 지난 77년에 이미 15년의 公訴時效가 끝났다. 그때는 아무도 두형군 사건의 公訴時效만료를 의식하지 못하고 지나쳤었다.

법이 용서해준다고 해서 그범인이 당장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는지 모른다. 용서해 주지 않는 피해자의 가족이 있고 분노를 거두지 못하는 온국민이 있다.

그러나 나는 그 범인을 만나 보고 싶다. 범인 당신의 얼굴 모습이 궁금해서가 아니다. 분노를 거두고 당신의 告解를 듣겠다. 어느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의 해답을 알고 싶은 호기심에서가 아니다. 사건의 진상을 앎으로써 당신의 절묘한 완전범죄를 추리소설 읽듯 즐기려는 재미에서도 아니다. 나는 당신의 입을 통해 당신의 범죄가 그토록 완벽할수 있었던 우리 사회의 盲點을 알고 싶다. 당신이 지금까지 숨어살아온 그 구멍, 그 死角에 우리사회의 弱點이 있다. 당신은 어차피 양심의 아픔때문에 이미 죽은 사람, 死刑囚가 眼球를 눈먼사람에게 기증하듯 당신은 우리사회의 어두운데를 밝혀줄수도있다. 우리사회가 당신을 배반한것이 있다면, 그래서 죄를 지은것이라면 지금이라도 우리사회가 당신에게 갚아야지. 그토록 지극했던 열성은 온국민의 그 한 어린이를 구하겠다는 온국민의 그 노력이 어째서 헛되었는지를 알고싶고 그 큰 국민의 호소가 어째서 당신의 가슴에 와닿지 않았는지를 진정으로 알고 싶다. 그래서 유괴된 어린이가 돌아올수있겠는지를 범인 당신에게 묻고 싶다.

범인 「못찾겠다 꾀꼬리」를 불렀으니 당신이 나타날 차례다. 얼굴이 나올수 없으면 목소리로라도 편지로라도 나타날 차례다.

金聖佑 <編輯委員>

英皇室 잇단 口舌數 곤혹
앤드루艶聞등 언론서 계속폭로

영국 황실은 계속되는 영국王家에 관한 언론들의 폭로기사로 우려없는 수난을겪고 있다.

영국의 신문과 방송들은 앤드루왕자가 미국출신 여배우 쿠·스타크양과의 여행사실을 폭로, 엘리자베드영국여왕을 격노케한데 뒤이어 이번에는 찰스황태자와 다이애너 황태자비가 엘리자베드 여왕의 별모럴저택에 머물면서 심한불화를 일으켜 부부싸움을 벌였으며 다이애너 황태자비는 남편과의 불화와 연일 계속되는 비로 지루함을 이기지못해 눈물까지 흘렸다고보도. 이외에도 언론들은 아동구호기금의 회장직을 맡고있는 앤 공주가 기금조달차 남아프리카를 잠시 방문, 인종차별반대운동가들로부터 심한 비난을 받았다고 언급, 잇단영국황실의 구설수에 더욱 부채질했다. 【런던=UPI】

높은生活 관광沮害
★타이觀光廳 要因분석

높은 생활비·안보·정치상황등이 관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3개요인이라고 타이 관광청의 솜차이청장은 밝혔다.

이 관광청의 81년말 조사한 세계에서 물가가 가장비싼 도시들의 순위에 따르면 방콕은 뉴욕 런던 파리 프랑크푸르트 제네바 시드니 홍콩 시카고 멕시코시티 토론토에 이어 제11위였다고 밝히면서 이는 범죄·질병·언어 문제등과함께 외국인들이 타이관광을 기피하는 원인이 되고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작년 여러 단체들이 벌인 『섹스관광』항의시위가 타이의 주요관광고객인 일본인및 서독인들의 타이관광을 감소시켰다고 지적했다. 【방콕=TNA】

◇디오르의 패션쇼 크리스티앙·디오르가 디자인한 흑백줄무늬가 들어있는 자카드풍의 실크원피스가 18일 파리의 패션쇼에서 선보여지고있다. 【파리18日AP發=聯合】

海外토픽

담배 천천히 피우기
★3그램으로 2시간56분

일본의 다까오까·유다까라는 사람은 스페인의 팔마데말로르카에서 개최된 제5회 파이프담배 천천히 피우기 국제선수권 대회에서 3g의 담배를 2시간56분동안 피워서 여성24명이 포함된 3백50명의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우승을 차지했다고. 그런데 이제까지 이 부분에서의 최고기록은 3시간40분이라는 것. 【팔마데말로르카=AP】

이란 反政지도자再婚 사드르前 대통령딸과

프랑스에 망명중인 이란의 반정부 인민무자헤딘 운동지도자 마수드·라자비가 지난16일 역시 파리에 망명중인 아볼하산·바니·사드르 전이란대통령의 딸 피로제·바니·사드르양과 결혼식을 올렸다.

작년2월 테헤란에서 이란 보안군의 습격으로 아내를 잃은 라자비와 피로제양의 결혼식은 파리북쪽 15㎞의 오베르·쉬르·와즈에 있는 라자비의 집에서 거행됐는데 라자비의 새아내가 가져온 지참물은 회교신앙의 상징인 코란, 조국애의 상징인 이란기, 국가평화의 상징인 올리브가지, 독립과 사랑을 상징하는 사탕과자 등이었다고. 【파리】

또다른戀人 帶同
★앤드루王子휴가파문

엘리자베드 영국여왕의 둘째아들 앤드루 왕자는 영화배우 쿠·스타크 양과 카리브해의 무스티크 섬에서 휴가를 즐긴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스타크양외에 또다른 묘령의 아가씨가 그의 곁에 있었다고 영국신문들이 보도. 【런던=AP】

◇日光浴도하고 공부도하며… 美뉴저지州출신의 학생 수전·린트·오브·엘리자베드양이 최근 수업을 마친후 마이애미해안에서 시원한 차림으로 숙제를 하며 일광욕을 즐기고있다. 【마이애미19日AP發=聯合】

威脅많은 記者직업
★肉體·心理的협박빈번

기자들은 현재 많은 나라에서 육체적 위해, 심리적협박및 정부의 강력한 감시등의 위협을 어느 직종보다도 더 많이 받고있는 중이라고 18일 TV가이드誌가 보도했다.

이 잡지는 『협박하는 방법도 여러가지로서 심한 경우는 자신에게 불리한 보도를 막기위해 기자를 죽이겠다고하거나 또 언론기관 간부집에 전화를 뻔질나게 걸어 광고계약을 취소하겠다는등의 위협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잡지는 이어 협박수단이야 어떠하든 그 목적하는 바는 다같아 결국 기자나 보도기관의 업무에 간섭하려는데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래드노어=UPI】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2361

조종사는「政治的 難民」
亡命과 처리…國際的관례는
臺灣、中共機 귀순에 2백만弗현상
機體반환 의무없으나 정치적變數

타국인이 정치적 망명을 염두에 아무런 법적근거나 약정없이 비상착륙 했을경우, 특히 국교가없는 나라로 부터 전투기를 몰고와 망명을요청할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또는 기체고장등의 불가항력적인 조건때문에 불시착 한 것인지 아닌지 조종사가 정치적 망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지를 구별해야 한다.

지난16일 미그19기를 몰고 한국공군기지에 착륙, 제3국으로의 망명의사를 밝힌 中共軍조종사를 정부당국은 국제법상의 관례에 따라 처리할 것인 것이다.

국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따라 처리하는 것이 상례이다. 국제법이란 한나라의 헌법이나 형법과는 달리 강력한 국제 제성이 부여되지않는 국가 간의 관례나 일반적인 사회의 원칙 적용에 기초하고 있다.

불시착의 경우는 불가항력적인 재난에의한 긴급피난이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조종사와 기체를 모두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관례다. 그러나 망명타국의 비행기가 自國의 의사를 표명할경우 일단 「정치적 피난민」으로 분류되어 정치적망명을 받아들이는것이 통례다.

「정치적 피난민」이란 自國에서 정치범죄를 범하고 訴追를 면하기위해 다른국가로 피난하는경우 「정치범불인도원칙」에 따라 보호조치를 받을수있다. 그러나 정치범이 아니고 정치적 박해 또는 「정치적신조를 달리해 피난한」「정치적난민」에 대해서는 보호의무를 정하지않고 보호하는것이 1차대전후 국제법상의 원칙으로 적용되고 있다.

「정치적난민」의 처리과정에서 세계 각국이 취하는 조치는 비슷하다.

우선 해당국가의 조사당국이 불법입국사정과 망명의사를 확인한후 소정의 법적절차를 거쳐 망명요청자 신병을 출입국관리당국으로 넘기고 외교당국은 망명희망국 (제3국의 경우)과 망명교섭을 하게된다.

망명희망국이 동의한 경우 별문제가 없으나 망명자에대해 「적국의사」가 아닌 「誤解」정부의 인수의사를 밝힐경우 유엔난민고등판무관 (UNHCR·제네바소재)과 협의를 거쳐 주선을 일임하는방법이 채택되기도한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지난 10월 말 판문점을 통해 한국으로 넘어와 망명의사를 밝힌 체코슬로바키아의 로베르트·오르스차크일병의 경우다. 그는 UNHCR로 넘겨져 미국으로 망명했다.

망명자가 몰고온 비행기는 대체로 돌려줄 의무는 없는것으로 되어있다. 지난76년9월 소련의 벨렌코중위가 신예 미그25機를 몰고 일본 函館공항에 불시착했을때도 소련은 기체반환을 요구했으나 일본정부는 소련기의 불법영공침해와 자유의사에의한 망명사건으로 처리, 소련측의 요구를 거부했다. 일본정부는 또 미그25기의 조사방침을 공식으로 밝히고 미국과 공동조사후 반환한다는 결정을 소련당국에 통보했다.

조종사인 벨렌코중위는 본인의 의사에따라 미국에 망명했고 기체는 11월15일 소련측에 인도되었다.

일단 아무런 법적근거없이 한국가에 불법영공침해, 불법입국을 범하게되면 기체의 반환여부와 절차문제에대한 선택권은 피해당사국에 있게된다.

이번 中共미그19機의 비상착륙후 자유중국 軍당국은 조종사및 기체가 자유중국으로 인도될경우 조종사에게 2백만달러 이상의 보상금을 주겠다고 제의한것으로 전해졌다.

자유중국측의 보상금지불방법은 기종에따라 다른데 미그19機의경우는 약38kg의 金에 해당하는 약2백20만8천달러가 주어지는것으로 알려져있다.

중공조종사들이 중공을 탈출, 臺北으로 귀순한 예는 지난60년, 62년, 65년, 67년에 걸쳐 수차례 있었으며 현재 4명의 귀순조종사가 생존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에 지난81년에는 자유중국공군 황·시·청소령이 美製F5제트기를 몰고 중공으로 넘어가 32만5천달러상당의 보상금을 받는 환대를 받은일도 있다.

물론 이번 중공기및조종사의 처리문제는 국제법상의 관례에따라 이뤄질것으로 보이나 여기에는 자유중국과의 국교, 중공의 국제적위치와함께 한반도주변의 복잡하고 미묘한 정치환경등 무시할수없는 여러가지 변수가 내포되어있다. 【盧海雲기자】

캐나다한인총연합

대한부인회바자회

일시 : 1982년11월13일 (토)
상오11시～하오4시

장소 : 토론토지구 한인회
20 MOBILE DR. TORONTO, ONT. M4A 1H9
☎ 755-9288

품 목 : 떡종류, 된장, 고추장, 빈대떡, 밑반찬 젓갈 등등…
식사류 : 곰탕, 진주비빔밥(각 $3)
복 권 : 1장 $3.00
복권상품 : 1등—편물로 짠 이불1개 • 2등—흑백TV
3등—장미쌀 50LB • 4등~10등—장미쌀 25LB.
문의처 : 494-1856(양혜신)

●각 교회의 교우여러분은 나오셔서 저희 대한부인회를 도와 주시고
*무엇이든지 갖고 오셔서 매매 하실분. 환영합니다.

캐나다한인총연합 대한부인회 회장 양혜신 외임원일동삼가

후원 : 총영사관, 한인회, 체육회, 칠성인쇄소, 한국일보사, 코리안 저널, 양로원 건립위원회, 한인신용조합, 실업인협회

逮捕狀제도 생긴다

不法연행등 人權침해 없게
令狀발부앞서 判事가 결정

법무부, 刑事訴訟法개선안 國會제출

우리나라에도 「체포장(逮捕狀) 제도」가 도입된다.

체포장제도란 구속영장신청여부를 결정하기전에 판사가 적법절차에 따라 발부한 구인장(拘引狀)으로 피의자나 용의자를 연행할수 있게 하는것으로 인권침해 시비가 많은 불법연행과 불법감금사태를 막는 인권보호의 장치중 하나다.

법무부는 19일 「체포장제도의 시행을 검토」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개선안을 정기국회에 냈다.

선진외국의 경우 구인(拘引)과 구금(拘禁)이 엄격히 구분돼있어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고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구인과 구금을 모두 구속영장으로 집행할수밖에 없는 절름발이 형사소송법을 시행해온것이 현실이다.

이때문에 적법한 수사를 하려면 연행때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하나 이는 「명문규정」에 그칠뿐이고 대부분의 연행은 명목상의 「임의동행」 형식을 취하거나 「강제연행」으로 이루어져 불법수사라는 논란이 계속돼왔다.

이렇게 연행된 피의자는 아무런 법적근거없이 24시간~48시간, 심지어는 며칠씩 경찰서보호실에 유치돼 있다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풀려나오는것이 실정이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현행범일경우에만 영장없이 체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있어 그외의 연행(구인)은 피의자가 임의로 동행에 응하지않는한 불법강제연행을 할수밖에 없었다.

결국 현행형사소송법 아래서는 구속영장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때문에 체포는 대부분의 경우 불법일수밖에 없어 법자체가 인권을 침해하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법무부가 체포장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것은▲국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법적근거없는 체포, 연행이 앞으로는 지금보다 훨씬 논란의 대상이 될것이며▲최근 법원의 판례경향에 비추어 가까운 시일안에 영장없는 체포, 연행이 판결로 제동이 걸리게되고▲법원이 현재 추진중인 영장실질 심사제의 시행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것이다.

체포장제도가 실시되면 정식구속영장을 심사하는 법원이 피의자를 적법하게 출석시켜 진술을 듣거나 계속구금의 필요성을 입증할 자료를 수사기관에 요구할수도 있게된다.

현재 日本의 경우 피의자의 신병확보를 목적으로한 체포때는 반드시 법원에서 체포장을 발부받도록하고 있으며 경찰이 체포장에의해 체포했을때는 48시간이내에 검찰에 송치하거나 또는 석방하도록 돼있다.

또 검찰은 송치받은때로부터 24시간이내에 (검찰이 직접 체포했을때는 48시간이내에) 정식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계속하거나 석방하도록 돼있다.

美國에서는 수사기관에 법적으로 체포권이 부여돼있으며 州에따라 일정시간 (24~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예심판사앞에 출석시켜 계속구속여부 보석결정을 받도록 하고있다.

현재 법원이 추진중인 「영장실질심사제도」는 연행된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할때 피의자를 판사가 불러 진술을 듣고 소명자료를 수사기관에 요청해 영장발부에 신중을 기하자는 취지이나 판사앞에 구인(拘引)해야 하는 연행의 법적근거가 없어 검찰이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형편이다.

현재 체포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의 입법취지는 최초의 구인(체포)은 법에따라 쉽게하되 계속구금여부는 법원이 엄격히 따져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데에 목적이 있다. 【崔奎植기자】

◇겨울 재촉…발걸음 총총 가을가뭄을 해소시킨 비가 내렸다. 그러나 이 비는 겨울을 재촉하는 가을비이기도했다. 월동준비를한 나무사이로 우산을 쓴 행인들이 웅크린체 걸어가고 있다. (19일하오 德壽宮에서)

천둥번개속 가을비
어제새벽 全國에…가뭄 다소 해갈

가을 가뭄끝에 19일새벽 5시께부터 서울을비롯한 전국에 천둥과 벼락을동반한 비가내려 메마른 대지를 적셔 다소 해갈이됐다.

중앙기상대는 서해해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이날늦게까지 비가온후 20일부터는 차차개겠다고 예보하고 기압골의 기층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뇌전현상이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날 내린비로 서울·경기등 중부지방은 다소 해갈이 됐으나 尙州·聞慶·醴泉·安東을 비롯한 영남지방은 여전히 가을가뭄이 계속돼보리파종을 하지못하고 있으며 김장채소의 생육도 크게부진, 감수가 예상되고 있다.

慶北북부지방에는 지난8월27일 34㎜의 비가 내린후 19일 현재까지 尙州4·5㎜, 聞慶4·1㎜, 醴泉4·3㎜에 불과해 지난해 같은 기간중의 1백50㎜에 비해 2·7% 수준에 그치고있다.

또 安東지방에도 9월이래 이날 현재까지 예년의 12분의1 수준인 14·9㎜의 비가 내리는데 그쳐 농민들이 애를 태우고있다.

한편 중앙기상대는 19일상오 11시를기해 서해남부와 남해서부해상에, 하오1시를 기해 동해중부해상에 각각 풍랑주의보를 내렸다.

예상풍랑은 남서후 북서풍 13~18m, 파도의 높이는 3~4m이다.

이날하오1시 현재 지역별 강우량은 다음과같다. (단위㎜)

▲仁川 19·3▲서울17·7▲水原26·6▲春川19·9▲瑞山17·9▲大田16·2▲淸州9·2▲東草0·6▲江陵0·8▲群山10·6▲全州27·5▲光州2·3▲木浦2·5▲麗水1·4▲濟州5·0▲西歸浦0·4

南原에 함박눈

【南原】19일상오 10시부터 11시30분 사이에 전북南原郡 雲峰面長橋里 일대에 우박을 동반한 함박눈이 15㎜가량내렸다.

이눈은 11시30분이후 소나기로 변했는데 이날 눈으로 벼는 이미 수확을 끝내 피해가 없으나 일부 밭작물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聯】

釜山 해안도로에 피투성이 變死體

【釜山】19일 새벽4시께 부산시南區廣安2洞200번지 廣安里해수욕장 해안도로에서 서울西大門區北阿峴洞1의24 池鎭永씨(22)가 피투성이가 된채 숨져 있는 것을 길을 지나던 백마기업소속 부산1바9296호 택시운전사 姜義明씨(35)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숨진 池씨가 머리가 깨어지고 전신에 찰과상을 입고있는 것으로 미루어 차에 치인것으로보고 달아난 사고차량을 수배하는한편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 【聯】

곳곳에 우박
채소등 農作物피해 극심

【大邱·三千浦】경북 龜尾·大邱·高靈·軍威·善山·義城등지와 경남 三千浦·泗川일대에 19일낮12시께부터 우박이 쏟아져 수확기의 각종 농작물에 큰 피해를 입혔다.

경북지역에는 12시40분부터 직경3~7㎜크기의 우박이 소나기와 함께 2시30분까지 산발적으로 내려 수확기에 접어든 감·사과를 비롯, 김장용 배추와 무우등이 피해를 입었다.

義城郡의 경우 17개 邑面가운데 鳳陽·丹村·點谷·玉山·北安·安平面등 7개 邑面에는 하오 2시부터 콩알만한 크기의 우박이 산발적으로 내렸다.

한편 경남三千浦市와 泗川지방에는 낮12시15분부터 30분까지 약 15분동안 우박을 동반한 초속 7·5m의 강풍이 몰아쳐 논위에 놓은 볏단이 날아가고 비닐하우스에 재배중이던 고등채소들이 우박을 맞아 못쓰게 되는등 피해를 입었고 남해안 일대 연안에서 조업중이던 5백여척의 어선들이 인근섬으로 긴급 대피하는 소동을 벌였다. 【聯】

콘크리트構造物서 불장난하다
어린이 3명 窒息死

【公州】18일 하오6시40분께 충남 公州郡正安面沙峴里 진등부락앞 正安川에 묻혀져 있는 가로2m 세로2·5m 높이 1m가량의 콘크리트구조물안에 이동네 안인철씨(64)의 손자 희국군(5)과 희주군(4)등 2명과 이 동네 송도씨(50)의 아들 거묵군(5)등 3명이 숨져있는것을 같은마을 최병수군(18)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밤 친구 2명과함께 正安川변에 산책나갔다가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연기가나 박스안에 들어가보니 안쪽 세어린이가 숨진채 엎어져 있었고 구조물안에는 타다남은 볏짚과재가 남아 있었다는 것.

경찰은 콘크리트 구조물이 연기로 그을린 흔적이 있고 타다남은 볏짚이 남아있는데다 콘크리트 박스안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어린이1명정도만 겨우 들어갈수 있을 정도로 좁은것으로 미루어 이들 어린이들이 콘크리트박스안에서 불장난을 하다 연기에 질식돼 숨진것으로 보고있다.

콘크리트박스는 원래 기와공장에서 쓰던것으로 지난해 수해때 떠내려가 正安川변에 묻혀있는 것이었다. 【聯】

남편老患등 悲觀 70대노파自殺

【釜山】18일 하오 9시30분께 부산시 西區 草場洞3가 2 姜말양씨(75·여)가 남편 정현규씨(82)가 3년전부터 노환으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데다 차남 정덕실씨(40)가 실직된것을 비관, 2명의 손자를 맡기고 모두 가출해버리자 농약을 먹고 자살했다. 【聯】

조업중 船員변사

【釜山】19일상오 7시께 경남統營郡欲知面 국도남방 60마일해상에서 조업중이던 부산시中區忠武洞1가42 섬해수산소속 트롤어선 제51섬해호(80톤)선실에서 기관장 金鍾洙씨(35·西區長林洞60)가 숨진시체로 발견됐다.

선원 이용득씨(21·경남巨堤郡屯德面述亦里86)가 해경에 무전으로 보고한바에 따르면 숨진 金씨는 지난18일 하오8시께 8명의 동료와함께 우동한그릇씩을 먹고 이날 새벽 1시30분께 침실로가 잠들었는데 시체로 발견됐다는것이다. 【聯】

5行뉴스

◆天安지역에 우박내려

【天安】19일 상오 8시50분께부터 약3분동안 天安市와 天原郡 일대에 12㎜의 비와 함께 팥알크기인 직경4㎜의 우박이 내렸다. 【聯】

◆長水郡서 論介祭典열려

【鎭安】삼신호국의 표상인 論介의 애국충절을 기리기위한 제17회 論介제전이 19일 상오 전북長水郡長水읍 論介사당과 생가지인 長水군溪內면大谷리주촌마을에서 각기관장, 유림대표등이 참가한가운데 각각 성대하게 열렸다. 【聯】

다시 고개든 「유치원雜賦金」
法定額3배까지…석달치 미리받아

단속으로 한때 자취를 감추었던 유치원의 잡부금 징수 악폐가 다시 고개를 들고있다. 교실비품대, 특별활동비, 생일잔치비등 갖가지 명목의 잡부금이 늘어나고 있는데다가 일부 유치원이나 미취학 아동 대상의 예능학원에서는 월 납부금을 법정액수인 1만4천6백30원 보다 훨씬 많은 1만9천~2만5천원 씩을 받고있고 4만원이 넘는 보육료를 받는곳까지있다.

생일잔치비등 名目도 갖가지

서울江南區狎鷗亭洞에 있는 A유치원의 경우 보통유치반은 1학기분으로 15만원을 한꺼번에 받고 있고 미술특기유치반을 만들어 4개월에 17만원을 받는다.

이같은 액수는 1년에 30만원, 51만원으로 중학생의 1년수업료와 육성회비를 합친 18만2백40원보다 3배에 가깝고 고교생 연간 납부금총액 29만8천원보다도 많은 셈이다.

또 유치원 보육료는 월치를 1기분으로 동시에 3개월 납부토록 규정되어있으나 일부 유치원들은 이같은 규정을 무시, 학부모들에게 목돈을 요구하고있다. 이같은 변태영 유치원들은 소문이날것이 두려워 납입금 명세서 고지서 조차 발부하지 않고 학부모들을 불러모아 원장이 납입금액수와 납기일을 통고하고있다.

A유치원의 특기유치반의 경우는 오는11월부터 내년2월까지의 3개월분보육료 17만원을 지난9월23일에 이미 받았다.

장남을 미술특기유치반에 보내고있는 李모씨 (32·현대아파트31동)는 3기분이나 2기분 (7월~10월) 의 경우 방학 2달을 빼면 사실상 2개월밖에 다니지 않는셈이라고 말했다.

江南區方背洞 S유치원의 경우 월수업료 1만7천5백원, 간식비 6천원, 버스비 4천5백원을 3개월치씩 받고있다.

이곳에서는 피아노를 가르치며 월1만5천원씩을 더 받고 있는데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다른 아이가 피아노를 하니까 우리집 아이도 가르치지 않을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유치원들은 그밖에도 생일잔치비 월동비 졸업선물비등의 명목으로 수시로 2천~5천원까지 받는가하면 운동회 소풍등 행사때 마다 사진을 찍어서는 1장에 3백원~4백원씩을 받는곳도있다.

西大門區葛峴洞에 있는 S유치원은 공지사항으로 월동비를 5천원씩 받았으며 학부모 몇몇 사람에게는 교실 커튼을 바꾼다며 2만원씩을 징수한후 커튼을 바꾸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과외돈을 거둬들이는 어린이 작품 콘테스트등도 다시 성행하고있다.

작품을 응모하는 원아들의 학부모들로부터 참가비 명목으로 작품1점에 1천원정도 씩을거두고 또입상자의 학부모들로 부터 「사례비」조로 2~4만원씩을 낼 것을 「권유」하기도한다.

장남을 유치원에 보내고있는 서울冠岳區新林11洞 李鐘熙씨 (34)는 『D예능진흥회라는 단체가 유치원을 통해 아동작품을 모집한다기에 응모, 최우수상을 받고 유치원의 권위에 따라 이 단체에 3만원을 사례비로주었으나 나중에알고보니 최우수상수상자가 5명이나되었다』고말했다.

차남을 유치원에 보내고있는 恩平區佛光2洞 李모씨는 『학부모들이 人性교육이라는 유치원교육의 참뜻을 망각하고 지나치게 지능·기능위주의 교육에 집착하고 있고 여기에 허영심, 경쟁심 교사로부터의 편애요구등이 겹쳐 유치원 잡부금의 액수만 늘리는 결과를 빚고있다』고 말했다. 【鄭在龍기자】

둘째며느리 "시어머니 못모신다"
남편과 말다툼…自殺

18일낮12시께 서울城北區下月谷洞37의21 李永洙씨(31·회사원)집 안방에서 李씨의 부인 朴順壽씨(30)가 시어머니를 모시는 문제로 남편과 다투던끝에 극약을 마시고 자살했다.

李씨에 의하면 어머니 李鍾禮씨(60)는 그동안 큰아들집에서 살아왔는데 큰며느리와 불화가 잦자 최근 『머리를 깎고 절에 들어가겠다』고 말해 이날 李씨가 부인朴씨에게 어머니를 모실것을 제의했으나 朴씨가 『둘째아들이 왜 어머니를 모시느냐』며 반발, 심하게 다투었다는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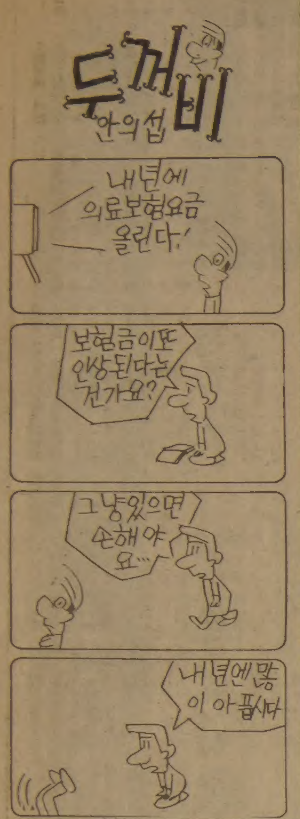
李씨는 말다툼끝에 『어머니를 모시지 못하겠다면 이혼하자』면서 짐을싸놓고 집을나서려는순간 朴씨가 갑자기 방안에있던 극약을마셔 慶熙의료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는것.

李씨의 어머니는 6·25때 남편을잃고 원호대상자로 원호금을받아 두아들을 어렵게 키워왔는데 두아들이 모두 중류정도의 생활을하고 있었다.

부인때려 숨지게
"술만마시고 다닌다" 핀잔받고

【井州】전북 井州경찰서는 19일 술에 취해 자기처를 때려 숨지게한 김성근씨(32·井邑郡山內面梅竹里703)를 폭행치사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18일하오3시께 만취된채 귀가하자 부인 김귀자씨(26)가 일손이 바쁜 농번기에 술만먹고 다닌다고 나무라는데 격분, 부인을 구타, 실신시킨후 잠들었는데 이튿날아침 6시께 깨어보니 부인이 숨져 있더라는것이다. 【聯】



결혼예물 보석및시계
미도파
다이아몬드, 반지
목거리, 팔지, 목거리
B536-1692
H245-3539

大酒家

철도청 前「名物공보관」 金德基씨
"取材활동은 관료사회의 活力素"

엊그제까지 철도청의 명물공보관으로 한가닥하던 金德基씨 (사진·46·교통공무원 교육원 교무과장)는 왁자지껄한 분위기파다. 자기의 주장을 펴고 따지면서 해결점을 모색하는 타이프로 상관이 보기엔 다소 괘씸하게 보이곤 하는 그런 공보관이다. 공보관이란 으레 매스컴에 대한 방탄용으로 곡해하고 있는게 우리의 관가풍토속이긴 하지만 金씨는 이런게 늘못마땅했던 모양이다.

그래서 그는 2년여의 공보관시절 철도청에 불리한 기사를 막기보다 기사보도의 불가피성을 외려되게주장하다 상관의핀잔을 맞기도 했다.

앞머리, 뒷머리가 다 튀어나온 야무진 인상이면서도 잇몸을 드러내며 웃을때는 바로 호인이다. 어렸을땐 고향인 烏致院에서 달리는 철마를 향해 돌팔매질을 했다는 장난꾸러기. 그게 인연이된탓인지 철도고등학교를 나와 제코스대로 철도인이 되었다. 그래서 서기관직급이면서도 괄시를 받지않았다.

그러나 그의 공보관으로서의 성가는 대주가(大酒家)이기 때문에 얻어진것이라는게 통설.

그의 주량은 놀랍다. 앉은 자리에서 맥주는 1상자, 양주는 3병마셔야 마신기분이 난다는 사람이다. 사이다컵에 양주를 채워 벌컥벌컥마시는걸 보면 목숨을건 사람같은데 이튿날 제시간에나와 멀쩡하게 일을 하고 있다. 술잘마시는 언론인이 이런 그를 호락호락하게 대할수가 없는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교통부의 출입기자가 바뀔땐 선임자는 항상 『떡기 (별명)와 단둘이 마시다간 죽는다』고 충고를 한다. 그러나 간결하고 명확하게 홍보자료를 내놓는 재간도 없는게아니다. 취재경쟁이 불붙을땐 그도 여느공보관처럼 파편이 튈까 신경을 곤두세우지만 『기자의 취재보도 활동이야말로 관료사회가 정체되지않게 바람을 불어넣는 활력소』라고 자신있게 말한다.

취재활동이 관료적타성을 깨는 良藥이라는것을 내포하는것인지… 『떡기는 서울역장감이요』하고 농담을 걸면 『공보관으로 재미본는사람 모가지 떨모양』이라고 얼굴붉히던 그가 새자리에 가서도 계속 「대주가」일 수 있을까. 【金普宗기자】

순복음 토론토교회
창립 제6주년 기념
안수집사 및 권사 취임 예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순복음 토론토교회에서는 창립 제6주년을 맞이 하여 다음과 같이 안수집사및 권사 취임식을 통해 충성된 주님의 일꾼들로 불러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귀한 직분을 감당케 하려고 하오니 함께 오셔서 축복해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기 를 원합니다.

안수집사 : 윤종수 집사, 박두만 집사
권사취임 : 유선은 집사, 최성남 집사, 임선비 집사
장 소 : 순복음토론토교회 ☎ : 881－7162, 247－9577
1 King St. Weston (Weston & Lawrence)
일 시 : 1982년 10월31일(주일) 오후5시 — 예식
오후6시30분 — 축하연

순복음 토론토교회 당회장이필주 목사및 교우일동

記錄풍년…서울 2連覇

「질서體典」폐막…내년大會는 仁川서

2위 全南·3위 慶南차지

한국新20·타이1·大會新 81개 쏟아져

【마산=체전취재반】제63회 전국 체육 대회는 서울이35, 416점으로 종합우승, 작년에 이어 2連覇를 차지한 가운데 16일 馬山종합운동장서 6일간의 열전을 끝내고 폐막됐다. 馬山을 비롯·昌原·鎭海·晋州등서 분산개최된 이번 전국체전서 서울은 수영·탁구·궁도·태권도등에서 강세를 보이고 다른 종목에서 고른 득점을 올려 여유있게 우승을 차지했다. 전남은 33, 642점을 얻어 대회개최도 경남을 204점차로 따돌리고 2위를 차지했다.

한편 메달레이스에서 서울은 금78개, 은56개, 동56개로 수위를 차지했으며 전남이 금67개, 은53개, 동70개로 2위, 경남이 금54개, 은56개, 동61개로 2위를 마크했다.

이번 체전서는 한국신기록 20개, 한국타이 1개, 대회신 81개, 대회타이 6개가 수립됐다.

最優秀선수 女高마라토너 李美玉양

모범선수단 忠北

이번 대회 모범선수단상은 충북선수단이 차지했으며 제주도는 격려상을 받았다. 대회 최고의 영예인 최우수선수상은 여고 20km단축마라톤에서 한국 최고기록으로 우승, 유망주로 떠오른 충남 대전체고의 李美玉에게돌아갔다.

폐회식에서 鄭周永대회장은 우승팀 서울에 우승기와 함께 대통령배, 준우승 전남에 국무총리배, 3위 경남에 체육부장관배를 각각 수여했다.

◇"육탄돌격"…럭비 결승전 럭비 일반부 결승전。육군 을지 (㊧서울)가 해사 실무 (경남)의 태클을 제치고 대시하고 있다。육군이 61—0으로 승리, 우승을 차지했다。【체전취재반】

國弓·사격·陸上서 좋은성적

▲서울팀盧祐德감독=서울팀의 2連覇는 당연한것이었지만 예상보다 순탄했다. 국궁·사격·육상·럭비등에서 예상보다 좋은 성적을 거두었으나 사이클·조정·복싱·연식정구가 예상보다 저조했다. 서울師大附高가 럭비에서 19년만에 패권을 차지한것은 뜻밖이었다.

洋弓 4관왕 申東己

◇남자양궁의 새로운 호프로 등장한 申東己.【體】

國弓하는 아버지 개인지도로 急成長

무명의 申東己가 양궁서 한국신기록을 세우면서 4관왕을 차지, 이번 체전의 유망주로 각광을 받았다.

申은 전국체전에 처음참가, 70m더블서 6백45점으로 한국신기록(종전6백44점)을 세웠으며 50m더블(6백35점)과 90m더블(5백52점) 그리고 개인종합서 2천5백7점으로 대회신기록(종전2천5백6점)을 세우는등 4관왕을 차지했다.

국궁을 하는 아버지 申命永씨(50·철학가·嶺山시 독산동 512의10)의 영향을받아 嶺山中2년때부터 활을 잡은 申은 78년 제7회 소년체전에 출전하여 선수로서 데뷔했다.

申은 嶺山高에 진학했으나 양궁팀이없어 동료2명과 함께 틈이나면 아버지의 개인지도를받아가며 실력을 쌓아 오늘의 영광을 차지했다. 올봄 졸업과함께 大邱신라섬유에 스카우트되어 金亨鐸코치(33)의 지도아래 하루10시간의 강훈을 쌓아 8개월만에 급성장한 것.

金코치는「양궁의 기본요소중의 하나인 왼쪽어깨가 강해 팔이 안정돼있으나 유연성이 부족하고 시위를 당길때 조금 밀려나는것이 흠인데 이를 고치면 앞으로 유망한 선수가 될것」이라고 칭찬했다.

無名선수 公開선발…創團20년 첫 凱歌

男大농구우승 成均館大

서울成均館大농구팀은19일 남대부결승전서 忠南大를 대파, 창단20년만에 전국대회우승의 첫개가를 올렸다.

강호 延世大, 高麗大등이 빠진가운데 얻은 우승이지만 18일 준결승선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明知大(경기)를 87—73으로 눌러 저력을보였다.

지난20년간 거의 중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던 成大농구팀으로서는 새로운 전기가 될것이 틀림 없다.

그동안 成大농구는 학교측의 지원부족으로 우수선수 스카웃서 열세를보였고 무명선수들을 데려다 근근히 팀을 이끌어 3년전에는 팀해체설까지 나돌았었다. 우승을 차지할수 있었던것은 금년 국내서처음실시한 선수공개선발과 급료를털어 팀운영에 내놓고있는 韓昌道코치의열의때문.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서 농구수학을 마치고 1년전 成大농구팀을 맡은韓코치는 선수 스카웃에 의존않고 무명선수를키워 스타로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공개테스트를 실시, 신입생을 선발했었다.

이번대회서 주전으로 활약을 보인 李相潤·白允種·韓百·李熙帝등 4명이 문제의 선수들이다. 돋보이지 않은 선수들이었지만 아침 저녁 하루 3시간30분간의 집중 강훈련으로 첫해부터 주전으로될만큼 기량이 급상승했다. 새벽에 개인운동을 하고 정규 수업이 끝난 하오 5시이후 팀연습을 시작, 공부하는 선수라는 긍지로연습해왔다.

춘계연맹전서 1승2패로 예선탈락의 고배를 마셨던 成大는 종별대회서 8강, 서울시체전선발전서우승하는등 점차 상승세를보였다.

成大의 가장큰 약점은 신장의 열세. 평균 신장이 1m86이며 최장신인 韓百도 1m90으로 다른팀에 크게 뒤떨어져 슈팅력과 개인기로 맞서야하는 불리한 조건이다.【체전취재반】

질서定着에 기여

鄭周永대회장은 폐회사를 통해「3백50만 경남도민의 화합된 힘과 따뜻한 인정, 정연한 질서속에서 대회를 모범적으로 끝내게되어기쁘다. 국민적 단결과 질서의식을 정착시키는데 기여했다」고 말했다.

6일간 체전을 밝혀주었던 성화가 꺼지고 선수들은 내년仁川에서 다시만날것을 기약하며 이별을 고했다.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2361

◇제63회전국체육대회종합득점표

시·도명	육상 트랙	육상 필드	육상 마라톤	수영	축구	야구	테니스	연식정구	농구	배구	탁구	핸드보울	럭비풋보울	사이클	복싱	레슬링
서울	1490	1175	414	3911	1103	450	1159	809	1343	1049	1241	1036	1440	482	771	816
부산	1593	1904	947	1175	894	845	856	636	597	518	1185	958	450	1484	1136	1569
대구	370	265	370	1468	471	1125	579	928	994	666	987	538	450	185	651	811
인천	1294	764	445	0	595	450	731	690	487	586	463	763	935	420	694	529
경기	1074	463	795	537	968	640	798	474	1121	1178	859	523	840	1179	1023	420
강원	185	1292	1277	1179	606	450	813	684	418	575	551	427	450	956	1048	1214
충북	849	493	668	2315	612	650	766	1180	334	752	531	783	640	556	666	889
충남	2300	981	1202	2468	898	1135	375	774	645	645	814	894	1030	2008	915	1271
전북	1056	913	716	770	776	935	609	1216	671	715	808	1327	450	1430	1221	1370
전남	1571	1018	708	970	730	250	766	1593	977	783	463	1417	450	368	1600	2646
경북	932	881	1289	193	800	640	529	593	344	410	619	392	250	896	964	1043
경남	1606	1313	668	1721	1109	650	1379	756	1169	1122	799	883	935	1115	1748	1582
제주	0	0	159	13	219	0	0	68	0	0	0	218	0	0	182	0
제일	0	117	0	0	0	0	50	0	0	0	295	0	0	0	0	0

시·도명	역도	씨름	유도	검도	궁도	사격	승마	체조	하키	펜싱	배드민턴	태권도	조정	합계	순위
서울	1934	989	1468	989	1407	2374	935	1721	531	821	1049	1925	535	35,416	①
부산	750	1212	1702	746	1036	694	740	609	767	2144	962	1345	685	30,057	⑤
대구	693	818	1731	427	1159	772	1090	291	433	605	762	685	500	20,824	⑧
인천	718	621	427	973	1376	1091	127	56	431	570	672	1037	275	18,220	⑪
경기	2123	673	1191	897	1273	1044	796	1917	929	625	360	899	1375	26,994	⑥
강원	1124	163	692	223	867	805	620	571	883	760	360	869	665	20,707	⑨
충북	838	326	533	859	141	403	0	334	767	1026	849	1336	375	20,471	⑩
충남	1942	253	454	783	813	1437	509	2070	943	805	745	865	750	30,824	④
전북	1489	525	1123	956	603	594	561	1217	493	925	790	982	895	26,136	⑦
전남	2095	967	1169	1237	1907	584	1015	2144	1177	1156	1253	1483	1145	33,642	②
경북	1285	673	996	594	299	322	270	411	322	415	360	506	715	17,943	⑫
경남	1208	1360	944	1086	2208	755	398	918	1165	1307	1200	1466	765	33,338	③
제주	0	0	0	111	53	1326	0	0	0	0	0	503	0	2,852	⑬
제일	0	118	0	0	0	311	0	0	0	0	0	24	0	879	⑭

◇최종일 결승전

▲축구◆고등부
전북군산제일 1 (0-1, 0-0) 0 경남마산

▲동대학부
서울고려대 2 (2-2, 0-0) 2 경기명지대 <승부킥 4-2>

▲동일반
부산대우 0 (0-0) 0 경북포항제철 <승부킥 3-2>

▲야구◆일반부
부산동아대 000 000 000 0 / 대구선발 002 000 000 2 … 0 7 / 2 2

▲동고등부
충남북일고 … 전북군산상 <북일우천승>

▲농구◆남대부
서울성균관대 87 (46-32, 41-25) 57 충남충남대

▲동여일반
서울외환은 79 (44-41, 35-28) 69 경기선경

▲동남고
전주광고 84 (38-23, 46-32) 55 대구계성고

▲동여고
경기수원여고 68 (14-9, 25-26, 29-28 연) 63 서울선일여고

▲동남일반
경남해군 82 (41-34, 41-43) 77 인천현대

▲배구◆남고부
전북백산고 3 (15-8, 15-10, 15-7) 0 대구북사부고

▲동남대
경북성균관? 3 (15-11, 15-10, 15-10) 0 충남교통대

▲동여일반
경기대기 3 (15-9, 15-5, 16-14) 0 서울관균

▲동여일반
경남일한 3 (15-11, 15-9, 15-10) 0 경기로공사

▲동여고
서울일신여 3 (15-13, 15-11, 13-13, 15-15) 1 경남마산제일

▲핸드볼◆여고부
서울신여 20 (10-7, 10-5) 12 충북일신여고

▲동남고
대전부고 12 (8-7, 4-5) 12 동아부산고 <승부타 2-1>

▲동남일반
원광대 24 (11-11, 13-7) 18 경북대

▲동여일반
전북진안 18 (7-10, 11-7) 17 전남광주시청

▲하키◆남고부
충남아산고 3 (1-1, 2-1) 2 전남광주일고

▲동여고부
경기평택여종고 3 (2-0, 1-1) 1 강원호여고

▲동남일반
경남해군 3 (1-1, 2-1) 2 전남조선대 <승부타 3-2>

▲동여일반
전남목포시청 5 (0-4, 0-0) 4 전북선발 <승부타 5-4>

▲럭비◆일반부
서울육군 61 (28-0, 33-0) 0 경남해사실무

▲동고등부
서울고동부 24 (6-7, 18-6) 13 인천기공

▲펜싱◆남고사브르
서울홍대부고 8-8 전남체고 <피돌수차>

▲역도◆일반부1백kg급=①박춘선(경기강화군청) 1백45kg ▲동용상=①박춘선 1백60kg ▲동합계=①박춘선 3백5kg

▲일반부1백10kg급=①유석원(서울중앙체) 1백5kg ▲동용상=①유석원 1백30kg ▲동합계=①유석원 2백35kg

▲일반1백10kg급이상=①박명식(강원삼척탄좌) 1백40kg ▲동용상=①박명식 1백75kg ▲동합계=①박명식 3백15kg

◇메달최종집계

	금	은	동
①서울	78	56	56
②전남	67	53	70
③경남	54	56	61
④충남	47	55	70
⑤부산	42	60	40
⑥경기	41	29	61
⑦전북	38	28	64
⑧충북	25	23	56
⑨대구	21	27	35
⑩경북	20	20	32
⑪강원	19	33	53
⑫인천	17	24	32
⑬제주	3	2	6
⑭재일	0	2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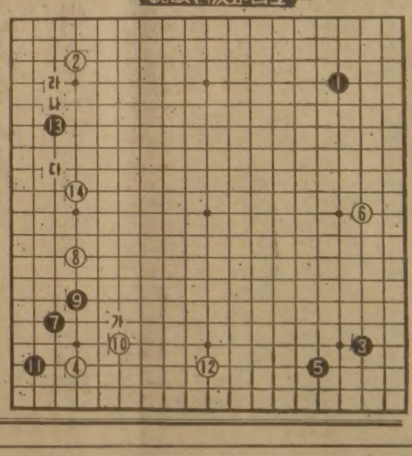
533—2363 World Book 백과사전

名人戰

제14기 挑戰者決定리그

第2局 第1譜 1～14 (각5시간·덤5집반)

白 (7段) 盧 永 夏
黑 (6段) 張 秀 英



盧7단은 유일한 忠北출신의 프로棋士로서 올해30살. 67년까지 아마추어국가대표로 활약하다가 68년에 프로棋士로 전향. 10년만인 77년 7단에 승단했다. 그후 좀체 승단을 못했으나 각타이틀전에서 꾸준히 활약하며 대기만성의 느낌을 주고있다. 名人戰과는 인연이 깊은편으로 제7기부터 등장하여, 중간에 비록 두차례 본선에서 탈락했지만 각각 1년을 쉬고는 바로 복귀했다. 이렇다 두드러진점은 집어넣수없지만 한결음씩 견실하게 터를닦는식. 예하여『소문도없이 승단한다』는 평.

짜여진 布石骨格

도 있을정도인데 오늘 그로서 첫판인 이바둑은 과연 어떤 면모를 보여줄것인지 궁금하다.

黑1이하 白8까지 우선 흔히 보는 포석이고 黑9가 요즘 다시 유행하게 된 옛날정석이다. 얼마전까지는 9로 「가」에 뛰는형이 자주나타났으나 『그보다 변화가 적어 간명하다』는 이유로 이하 黑11, 白12의 정석을 애용하기 시작했다고한다.

張6단은 黑13을 5분가량 생각했다. 이수로 「나」에 걸쳐도 白은 마찬가지로 「다」의 곳에 협공해온다. 이왕 협공을 당할바에는 귀쪽에 여유를 두는편이 낫다고 본것이다. 白14로「라」에 지키면 黑14로서 白8한점이 위협을 받는다. 여기까지 나름대로 허허실실의 과정을 거쳐 포석의 틀이 짜여지고 전투상태에 돌입한다.【一凡】

MARVIN STARR

〈취급종류〉

소형차 : ACADIAN. PHOENIX SKY LARK.J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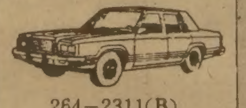
중형차 : LEMANS. GRAND·PRIX CENTURY.A6000. FIRE·BIRD. RIVIERA

대형차 : 스테이션웨곤. PARISIENNE. LESABRE. ELECTRA. PARK·AVENUE. 벤드럭. USED·CAR

Auto Mechanic License, Auto Body Licence 소유 Chassis Frame, Front End Alingnment Certificate 소유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한 차를 구입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Best Price
* Best After Service



264－2311(B)
439－5030(R)
3132 Eglinton Ave.E
Markham × Eglinton

조 의 문

Toronto Memorial Funeral Home 〈장의사〉

중국인경영으로 최선을 다해 봉사합니다.

721 Bloor St. W.
크리스티 써브웨이)
530－1222 Mr. 왕
536－6250 호세환

부동산및사업체 매매 알선 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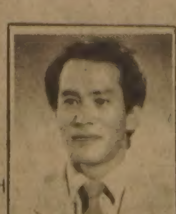
SINCERE REALTY INC
2814 Victoria Park Ave.
Willowdale, Ont., M2J 4A9

각종의 사업체와 부동산 일체의 매매를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사오니,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과 이용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 주택, 대지, 상가, 사업체, 투자처, 아파트
* 이민이나 고소득층을 위한 투자 알선.
* 좋은 사업계획에 투자나 동업인 소개
* 토론토에 새로 오셨거나 오실분 안내.

— 경 력 —

★ 마니토바주립대학 졸업
★ 슈퍼마켓 운영(위니펙)
★ 무역회사 경영(밴쿠버)
★ 부동산업 종사(다년간)
현재 온타리오부동산 브로커



전화 : 〈B〉 (416)497－8900 채 준 성
〈R〉 (416)633－7892 (David Chae)

각종의 리스팅

◉Gift shop: 취급품목－선물, 문방구, 카드, 장난감등, 작년매상 $230,000, 이윤 40%이상, 바쁜 쇼핑몰안에 있으며 일요일은 휴업. Try best offer!

◉Donuts shop: 주매상 $3,500, 리스10년＋10년, 설비값만 $80,000이상 됨, 타 사업관계로 팔고저 함, 전망좋음, Asking $99,000

◉Variety Store: 주매상 $5,500, 윗층의 살림집도 Rent가능, Asking $55,000

◉Hamburger Shop: 주매상 $2,300～$2,500, Rent $700/mo, 리스6년＋5년 Full basement, 40 Seats, 주인의 건강문제로 팔고저 함, $35,000 Downpayment! Asking $65,900

◉Tudk Shop: 주매상 $3,500 Rent $450/mo, 리스2년＋5년, 짧은시간 좋은이윤, Asking $69,900

◉Tuck Shop: 주매상 $5,000이상, Rent $750/mo, 리스5년＋5년 짧은시간 Asking $109,000,

★위의 두 Tuck Shop은 같은 3동의 고층아파트속에 있으며 두 가게를 동시에 인수할 수 있는 가족이나 두 가족에 아주 적합함.

◉Supermarket: 주매상 $30,000, 리스7년＋10년, Store size 8,700s.f.＋7,000s.f.의 지하실, 좋은장비, 경쟁이 없으며 아주좋은 동네의 고층아파트들 속에 있음, 앞으로도 6동의 고층아파트와 6동의 고층사무실이 더 들어설 계획임, 주인 은퇴함, 좋은 전망 기대됨, Asking $299,000

★타 사업체나 주택에 관하여도 문의하여 주십시오

우리가족 건강 365일은
빅·세븐에서 직수입하여온
吉林產 녹용으로!

특별할인봉사

● 진풍웅담 ● 녹용(인삼 제품)

보양강장제는 선택이 중요합니다. 일차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인병철 생활영어 카세트테프와 비데오테프 다량입하!!

랜빅 넥타이, 지반지 Y셔츠

귀국 선물 용품

빅·세븐 선물센타

678 BLOOR ST. WEST
533－7966

資源·기술協力등 확대

어제 韓·印尼 頂上회담 2시간20분

安保의 連繫性 재확인

「南南협력」으로 공동번영 追求

오늘 共同성명 수하르토離韓

全斗煥대통령은 18일상오 청와대에서 수하르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韓·인도네시아頂上회담을 갖고 韓半島를 포함한 東北亞및東南亞 정세등 국제정세전반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수하르토대통령은 3박4일간의 공식일정을 모두마치고 19일 상오10시20분 離韓하며, 離韓에 앞서 양국頂上회담결과를담은 공동성명이 발표된다.

이날 상오10시30분부터 12시50분까지 당초 예정시간을 50분씩이나 초과, 2시간20분동안 單獨으로 진행된 頂上회담에서 양국元首는 개발도상국간의 이른바 南南협력을 더욱확대해나가자는데 의견을같이하고 양국간의 장기적인 資源·기술협력과 人的교류및 통상증대등을 더욱확대발전시켜 나가는데 합의했다고 黃善必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양국원수는 또 全대통령이 제안한 太平洋頂上회담개최문제에 관해서도 진지하게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원수는 특히 東北亞및 東南亞안보의 상호連繫性을 재확인하고 旣存우호관계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상호협력을 더욱 발전시켜나가는 한편 양국의공동번영과 발전을위해 同伴者的 협력의필요성을 거듭다짐한것으로 알려졌다.

이날회담에서 양국 대통령은 또山林·에너지등 資源의 공동개발과 민간기업의合作투자촉진문제와 한국의 개발경험을 傳授하는 문제등에관해서도 폭넓은 의견교환을 가진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단독 頂上회담이 진행되는동안 金埈成부총리, 李範錫외무, 徐相喆 동자부장관은 별실에서 인도네시아측의 위조요 經濟調整相, 목타르外相, 수달모노 官房相과 각각 개별각료회담을갖고 구체적인 협력증진방안을 협의했다.

단독 頂上회담이끝난뒤 양국 원수는 小접견실에서 약 5분간 확대회담을주재했다.

이날 확대회담에는 한국측에서 金부총리, 李외무, 韓宇錫駐인도네시아대사, 咸秉春청와대비서실장, 金炳薰의전, 許和平政務제1, 金在益경제, 黃善必공보수석비서관, 崔東鎭외무부亞洲국장, 李長春청와대政務비서관이참석했으며 인도네시아측 에서는 위조요 경제조정상, 목타르外相, 수달모노官房相, 무르디오노官房차관, 수프랍토駐韓대사, 무나위르政務차관보, 누르경제차관보, 사타리亞太국장이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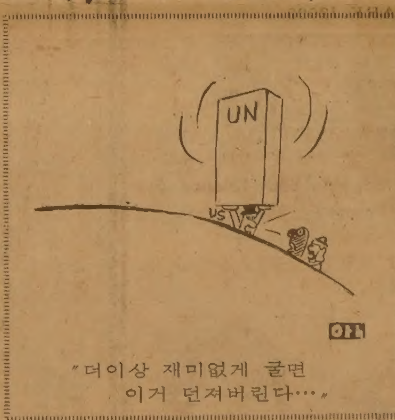
◇友誼다지는 韓·印尼頂上 全斗煥대통령이 韓·인도네시아頂上회담을 갖기에앞서 수하르토대통령을 악수로 반갑게 맞고있다.

金총리內外 접견 經濟단체 午餐참석 수하르토大統領

訪韓3일째를 맞은 수하르토 인도네시아대통령은 18일 상오 全斗煥대통령과 頂上회담을 갖기에 앞서 숙소인 新羅호텔에서 金相浹 국무총리 내외의 예방을 받았다.

수하르토대통령내외는 또 이날낮 新羅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경제4단체가 공동주최한 午餐에 참석했다.

社会漫評



"더이상 재미없게 굴면 이거 던져버린다…"

部處監査 6千명징계

社會淨化委 국회報告

말썽 淨化委員 1백6명 바꿔

社會淨化위원회는 그동안 지탄받는행위를 저지른 淨化위원1백6명을 그때그때 교체시키고 새마을지도자등과 兼職하고있던 정화위원 1만9천3백69명을 解囑하는 한편 2만5천명선이던 여성위원수를 3만1백17명으로 늘리는등 각급 사회정화위원회를 정비했다.

金聖基사회정화위원장은 18일 국회運營委에서 보고를통해 이같이 밝히고 올해들어 9월까지 실시한 공직자動向점검결과 2백2명을 적발, 통보했고 경찰, 세무, 건축, 소방등 취약분야에서 上半期동안 3천6백14명의 非違者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상반기동안 各部處별로 자체적인 특별감사를 한결과 모두 6천4백84명을 적발, 징계조치했고 해외취업사기 또는 專賣사기행위자 61건78명, 직업소개소단속 2백55건등 국민생활침해 행위를 단속했다고 보고했다.

"醫保 一元化 이행하라"

국회11개常委…保社委空轉

"연내에 金利조정 않겠다"

국회는 18일하오 外務 國防등을제외한 11개常委를 일제히열고 소관부처의 업무現況을 청취했다.

이날保社委는 당초 保社部 현황보고를 청취할 예정이었으나 民韓黨등 야당의원들이 의료보험二元化법안을 제출해야 보고를 듣겠다고 고집, 잠시 停會했으나 야당측이 『보사부장관이 一元化법안을 내겠다는 보장이 없이는 회의에 참석할수없다』고 끝내 不參, 散會함으로써 이번 정기국회들어와 첫常委空轉사태를 빚었다.

이날 野圈의 鄭貞薰·沈憲燮·金正秀의원등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만장일치로 결의한 의료보험一元化법안제출을 보사부가 이제와서 거부하는 처사는 명백한 국민배신행위』라고 비난하고 『金正禮보사부장관과 崔永喆보사위원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할것』이라고 주장했다.

林鍾基 民韓黨총무는 이날 19일에있을 保社委의 3黨간사회의에서 정부측이 끝까지 법안제출을 않을경우 의원입법형태로라도 一元化 법안을 제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財務委 張慶宇(民正) 朴完奎 李英駿 金在暎 金文元(이상 民韓) 林采洪의원(議政)등이 ▲당좌수표및 보증수표(은행자기앞수표)의 實名去來적용여부 ▲年末까지의 金利조정여부 ▲長期貸出시 先利子징수慣行 폐지여부등에 대해 물었다.

姜慶植재무장관은 『6·28조치당시 소비자 물가가 작년同期에 비해 4·8%인상된데 비해 지금은 소비자 물가가3·9%만인상되었고 국제 金利도 下向중에있어 年末까지 金利를 上向조정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내년1월1일부터 적용되는 금융 實名去來制에 보증수표를 포함시키는 방안은 검토하고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아직 확정된것은 아니기때문에 이미 제출되어있는 實名化法案의 심의단계에서 정부의방침을 보고토록하겠다』고 말했다.

河永基 한국은행총재는 수출금융의 달러當 융자단가를 6백원에서 6백30원 올릴경우 1천2백억원의 財源이더 필요하기때문에 현행 6백원에서 달러당30원까지 引上하는것은 곤란하다면서 『2~3년짜리의 장기대출에 先利子를 받는것은 문제가 있어 이를 폐지하고 短期性대출(60~90일)은 어음대출의 형식을 취하기때문에 先利子를계속받을수밖에없다』고말했다.

한편 이날 財務委에서 崔昌洛산업은행총재는 『부실기업으로 판정된 한국수산개발공사가 産銀에 지고있는 債務총액은 이자를 포함해 5백85억3천만원』이라고 밝히고 『담보처분등을 통해 회수가 가능한 액수는 1백90억원정도』라고 말했다.

▲法司委 金永均법제처장은 『정부는 가능한한 特例法은 제정하지 않을 방침이며 이미 제정된 특례법의 경우 시행과정에서 운영상원활을 꾀하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지방자치단체條例의 경우는 법제처가 심사하지않고 있지만 앞으로 국무총리 내무부와 협의, 上位法에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시달을 마련, 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宋·元유물 共産圈개방"

李문공 다시밝혀

◇李振羲문공장관

李振羲문화공보부장관은 18일 6세기 동안이나 해저에 묻혀있다가 인양된 1만8천여점의 新安유물연구에 북한은 물론 중국대륙의학자들의 참여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李장관은 이날상오 신라호텔에서 개막된 제3차 세계박물관협의회(ICOM)아시아지역회의에 참석, 치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新安무역선 유물외에도 한국문화재및 학술자료를 공산권에까지 개방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다시한번 천명했다.

李장관은 『우리나라 학계는 민족문화 생성변천현장의 일부인 북한과만주지역 그리고 우리문화와 가장 관계가 깊은 중국대륙 시베리아 몽고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지역및 중앙아시아지역과 부자유스러운 단절상태를 장기간감수, 학술연구를 하는데 많은 지장을 받고있다』고 지적, 이번기회에 아시아 국가간에 이념과 국경을 초월한 활발한 박물관 교류의 실마리가 풀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ICOM본부의 자문위원장과 유네스코본부 문화재담당국장을 비롯, 16개회원국에서 29명, 우리나라에서 28명이 참가하고 있는 이번 회의에는 소련연방정부 문화재박물관 포포프국장도 포함돼있다.

國旗에대한 의례 반드시 지키도록

정부는18일 國旗에대한 의례및애국가제창에관한 국무총리지시를 각부처에시달, 국무회의 차관회의등 각종회의때 국기에대한 경례와애국가를 제창하거나 녹음청비에의한 예의를 받는시간을갖도록했다.

人事異動

山林廳 ▲林業시험장장 朴吉洪(시험장 원조사부장) ▲成林국장 李裕成(林業시험장장) (16日字)

地平線

한국미술 5천년전과 2천년전등 우리문화재의 해외전시에 앞서 지난 70년대 열렸던 국내전에서 미술애호가들이나 일반은 지금까지 수장자로 전혀 이름이 알려진적 없는 인사가 전시 문화재의 백미라 해야할 다수의 고미술품을 출품하여 큰 화제로 됐었다. ▼그도 그럴것이 당자인 湖林 尹章燮씨(61)는 실업인으로서 경제적인 지보를 착실히 닦아 올리고 있었음에는 동향인 개성인을 제외하곤 별로 사회에 이름이 널리 알려진 바가 없었는데 문화재 해외 전시를 위한 국내전에 그처럼 값진 것을 출품, 하루아침에 명성을 떨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윤씨가 과연 어떤 분이며 또 수장 문화재로 무엇을 가졌는지, 그 구체적인 전모는 세상에 알려질 겨를이 없었다. ▼그러던 차에 국보문화재를 포함한 2천5백여점의 그의 유물을 공개 할 호림미술관이 20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일동빌딩에서 드디어 문을 열게 되었다는 소식이다. ▼이는 일찌기 고인이 된 간송 전형필씨가 성북동에 미술관을 남겼고, 생존자로서는 얼마전 이병철씨가 문을 연 호암미술관 그리고 박병래, 이홍근씨 같은 고인들이 평생에 걸쳐 수장한 문화재를 국립박물관에 기증한 쾌거에 이은 문화계의 큰 경사라 하지 않을수 없다. ▼그밖에도 윤씨 주관아래 지난해 발족된 섬보문화재단에서 34억9천여만원의 자산으로 호림미술관의 운영과 여러 연구단체나 개인연구활동을 돕고 있다. 나아가서 앞으로는 5개년계획으로 신림동 1만여평대지에다 본격적인 미술관을 신축하는 한편 특별전시, 미술의집 운영, 학술지를 비롯한 각종 출판물의 간행및 지원, 학술회의 개최등으로 미술관 운영을 활성화하리라고 한다. ▼문화재를 중심으로한 기쁨이 이처럼 겹치는 가운데 윤씨가 고고미술사학계의 원로이자 동향인 황수영 동국대학교총장과 최순우 국립중앙박물관장의 조언을 받아들이며 10여년의 단시일내에 이토록 충실한 내용의 수장을 성취할 수 있었다는 것은 메말라 가는 세정속에서 보기힘든 인간관계의 운사라 할수있을듯 하다. 더구나 앞으로도 수집은 계속 하겠다니 내일이 사뭇 기대되기도한다. ▼때마침 18일 이문공부장관은 『신안앞바다에서 인양된 송·원대 해저유물을 북한학자나 중국대륙의 학자들은 물론, 관심있는 내외 모든 학자들이 연구할수 있도록 공개하겠다』고 제의하였다. 정부서 거침없이 세계를 향해 문화재 관계의 문호를 열고자 하는 것이나 윤씨같은 개인수장가가 혼자만의 은밀한 기쁨보다 개인미술관의 문을 열어 널리 그수장품을 일반에게 공개하고자 하는 일은 다 함께 모든사람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아 마땅할 것이다.

独立紀念館 건립誠金

우리의 작은 精誠… 큰뜻 이루게

<18일접수>

접수電話 722-4171

民正黨(영등포지구당) 5백만원
太陽金屬工業 임직원 4백만원
半島海運(株) 30만원
同星商工(株) 30만원
舍堂3지구대순진리회 31만원
답십1지구 〃 24만원
신사1지구 〃 22만원
미아1지구 〃 20만원
釜山장전1지구 〃 18만원
九老2지구 〃 18만원
봉천1지구 〃 11만원
답십2지구 〃 10만원
면목2지구 〃 10만원
서울전농 국교생들 16만원
山井工業(株)임직원 16만원
常原電子工業社 10만원
서울구산국교 직원 10만원
九宜洞 성동교회 10만원
서울國際 침례교회 10만원
永登浦 용동회 10만원

▲民正黨서울10(영등포)지구당위원장및당원一同=(1차분)=5백만원【소년한국접수】▲太陽金屬工業(株)임직원一同=4백만원 ▲半島海運(株)임직원一同=30만8천원 ▲同星商工(株)代表 金永輝씨外 임직원一同=30만원 ▲(종단)대순진리회 서울사당동제3지구대표 장노백씨外 道人一同=31만8천원 ▲(종단)대순진리회 서울답십리제1지구대표 민영우씨外 道人一同=24만6천원 ▲(종단)대순진리회 서울은평구신사동제1지구대표 이정지씨外 道人一同=22만4천5백원 ▲(종단)대순진리회 서울미아제1지구대표 김인봉씨外 道人一同=20만7천5백원 ▲(종단)대순진리회 부산장전동1지구 대표 정재봉씨外 道人一同=18만9천1백20원【釜山지사접수】▲(종단)대순진리회 서울구로동 제2지구 대표 박준순씨外 道人一同=18만1천원 ▲(종단)대순진리회 서울봉천 제1지구 대표 김춘화씨外 道人一同=11만6천원 ▲(종단)대순진리회 서울답십리 제2지구 대표 이순자씨外 道人一同=10만5천원 ▲(종단)대순진리회 서울면목동 제2지구 대표 한영복씨外 道人一同=10만3천원 ▲서울전농국교(교장 장원준) 교직원및 전교생一同=16만7천1백30원【소년한국접수】▲山井工業(株) 대표이사 李遇謙씨外 임직원一同=16만9천원 ▲尙原電子工業社 대표 김종철씨外 직원一同=10만8천4백50원 ▲서울구산국교 교직원一同=10만7천원 ▲城東區 九宜洞 성동교회 김순길목사外 교우一同=10만원 ▲서울國際침례교회 잭 그린목사=10만원【코리아타임스접수】▲永登浦용동회 회장 신동수씨外 회원一同=10만원【永登浦총국접수】▲籠浦區中洞9통주민一同=7만원 ▲安養市 안양6동 26통주민一同=6만원 ▲安養市 안양5동 3통5반 이금현씨外 주민一同=3만7천원【安養지국접수】▲江原道原城郡文幕面厚用里 후용교회 조재전 전도사外 교우一同=3만4천5백원 ▲道峰區雙門洞 雙信老人會=3만원 ▲鍾路區母岳洞 제13통 지역정화추진위원회 朴熙九위원장외 위원一同=3만원 ▲釜山市海雲臺區 中2洞AID아파트42동107호 김옥남씨=1만원 ▲忠南公州 익명의독자=2천원 ▲대림산업 말레이지아 빈투루수원지현장 오형선씨=말레이지아貨 2백달러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공인회계사
이 영 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은퇴
부동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 각종보석
▲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 최저가격
▲ 뉴디자인
▲ 보석개조 교환매매
▲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영업시간 : 월~토
오전10시~오후8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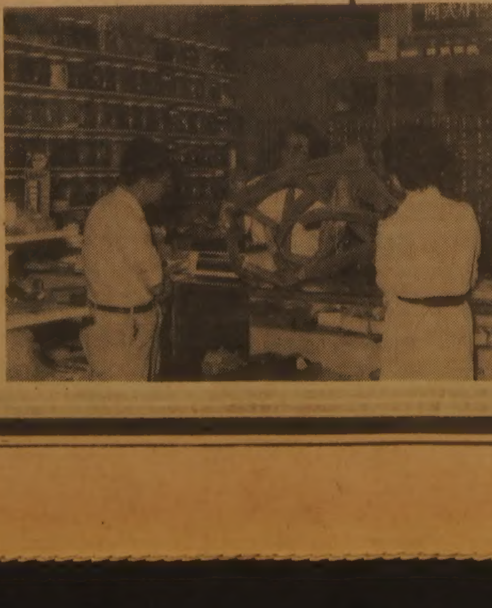
아세아한약방

Health Food Center

원녹용, 생녹용, 길림산 녹용 ★다량확보

보약의 계절에 귀가정의 건강을 위하여 성심껏 봉사코저 하오니
일차 왕림 상담 있으시길 바랍니다.

●종합비타민 ●인 삼 ●웅 담 ●산 삼 ●우황청심환
●Nut 일체 ●녹 용 ●사 향 ●홍 삼 ●보 약
●중 풍 ●심장병 ●간장병 ●비만증 ●신경통
●고혈압 ●부인병 ●양기부족 ●위장병



※지방에 계신 분께는 Mail Order 환영합니다.

645 BLOOR ST. W. TORONTO
☎ : (416)530—0522, 530—4900

中·蘇 공식협상再開 합의

胡耀邦발표 양국 緊張관계 改善

"副外相회담 며칠계속" "蘇패권주의反對 不變"

【北京AP·UPI=聯合】중공당총서기 胡耀邦은 17일 중공과 소련이 20년동안 지속돼온 두나라의 긴장관계개선을 위해 北京과 모스크바에서 공식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胡耀邦은 이날 중공을 방문중인 조르지·마르셰프랑스공산당당수와의 회담에 앞서 프랑스기자들과의 회견에서 양국관계정상화를 위한 공식협상의 재개를 발표하고 『중공측은 두나라의 관계정상화에 가로놓인 장애물이 제거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胡耀邦은 또 『공식협상재개로 두나라관계가 발전을향한 최초의 한걸음을 내딛게 될것』이라 밝히고 『소련이 상당기간 추구해오고있는 패권주의를 중공은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관영 新華社통신은 胡耀邦의 발언내용을 상세히 보도하면서 中·蘇간의 공식협상은 北京과 모스크바에서 번갈아가며 열릴것이라고 보도했다.

北京의 소식통들은 일리체프가 내달초순까지 北京에 머무르면서 몇차례의 회담을 더 가진뒤부터는 회담장소가 모스크바로 옮겨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솔제니친의 臺灣방문 노벨文學賞을 수상한바있는 蘇聯의 망명작가 솔제니친씨가 16일 臺灣의 사설단체인 吳三連문화재단의 초청으로 2주동안 臺灣을 방문키위해 臺北에 도착, 吳三連씨의 안내를 받으며 공항을 빠져나오고있다. 【臺北16일UPI=聯合】

533－2361

이스라엘逐出땐 美유엔脫退不辭

舒茲國務 성명

【워싱턴AP·UPI=聯合】미국은 17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스라엘의 IAEA총회참석을 거부하기로 결정한데 대한 보복으로 IAEA에 대한 미국의 분담금 8백50만 달러를 지불중지키로 결정한데 이어 유엔총회와 산하기구가 이스라엘을 계속축출할경우 미국은 유엔산하단체에 대한 경비분담금지불을 중지하고 그활동 불참가를 경고했다.

조지·舒茲 미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IAEA가 지난9월24일 빈에서 개최된 총회에서 이스라엘의 총회참석을 거부하기로 결의한데대한 보복으로 IAEA의 82년도 소요경비중 미국측 분담금 8백50만달러를 지불하지않기로 결정했다고말했다.

舒茲장관은 또 유엔총회가 이스라엘을 축출하기로 결의할 경우 유엔경비의 미국분담금을 지불하지 않을것이며 미국은 유엔총회에 참석하지 않을것이라고 경고했다.

스페인、爆彈테러

하루9件、4명死傷

【마드리드UPI=聯合】오는 28일의 총선을 11일 앞둔 스페인에서는 17일 최소한 9건의 폭탄폭발사고가 발생하는 가운데 경찰의 발표로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특히 로그로노에서는 社會黨건물 현관에서 폭탄이 터졌고 바르셀로나에서는 보안당국 바깥에서 폭탄이 터져 건물관리인 1명이 부상했다고 말했다.

그밖에 북부 오비에도, 기옹및 비고와 남부 세비야, 동부의 발렌시아, 바스크州의 산·세바스찬과 오아르준등의 은행, 공공건물및 전기시설물등에서도 폭발사고가 일어났다.

경찰은 이날의 폭발사고가 누구의 범행인지는 즉각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관측통들은 이날의 폭탄사고가 프랑코사후 3번째로 실시될 이번 총선을 겨냥, 긴장을 조성하려는 테러분자들의 소행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蘇居住 한국인 잘산다"

日紙보도 農地확대 성공… 勤勉으로 역경克服

소련領 중앙 아시아에 사는 한국인들은 타고난 근면성과 월등한 농경기술로 모두들 잘살고있어 한국인이라면 부자의 대명사처럼 여겨지고있다고 일본 아사히 (朝日)신문이 보도했다.

아사히는 中央 아시아여행기를통해 비닐하우스에서 여러가지 김치를 시장에서 팔고있는 한국여인의 모습등을 담은 컬러사진을 소개하고 1930년대 시베리아로부터 이주해온 한국인들은 처음 뜨거운날씨와 건조한 사막의기후때문에 고생했으나 천성적인 근면과 뛰어난 농경기술을 발휘, 결국 농지확대에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아사히에 의하면 중앙아시아에 산재해있는 한국인집단농장은 모두 풍요한생활을 영위하고있어 극동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인이라면 부자의 대명사처럼 불려지고있다.

아프가니스탄과 인접한 타직공화국수도 두샨베의 시장에는 한국인코너가 따로설치돼있는데 김치한봉지 (약 1kg)에 우리돈으로 1천원정도. 【東京=聯合】

홍콩은 홍콩人이 다스려야

住民 4백명대상 여론조사

대부분의 홍콩주민들은 중공이 홍콩의 主權을 회복한 경우 『港人治港(홍콩인에 의한 홍콩통치)』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최근의 한 여론조사결과 밝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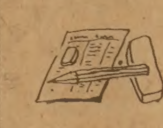
일단의 中文대학교 대학원생들은 지난달 29일~이달 5일사이 홍콩섬·九龍반도·新界등 3개지역에 거주하는 17세 이상의 남녀 4백18명(남녀 비율1대1)을 무작위로 추출,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17일 발표했다.

이 여론조사의 被조사자는 35세이하가 대부분을 차지했고 月收4천 홍콩달러 (한화 약52만원) 이상자는 기껏 13%, 그리고 1천홍콩달러(한화 약 13만원) 이하인 사람은 27%였다.

被조사자의 약 절반은 『港人治港』이 채택될 경우 홍콩에 그대로 남겠다고 밝혔으며 5%는 홍콩을 떠나겠다고 밝힌 것으로 이여론조사결과는 말했다. 【홍콩=聯合】

메아리

大入配點



金昌悅 <編輯委員>

17일字 한국일보3면 『日曜日 아침…』에 매우 示唆的인 글이 실렸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鄭元植학장의 기고다.

글의 주제는 大入학력고사에서 日語선택이 급증하고있는 現象이다. 그러나 鄭교수의 논의는 외국어 교육이나 고사과목 조정에 그치지않는 제안을 담고있다.

鄭교수는 그의 제안을 학력고사 성적의 「辨別的適用」이라 이름했다. 그뜻은, 각대학이 신입생을 전형할때, 고사성적의 총점만을 보지말고, 대학별 또는 학과별로 과목 마다 加重値를 달리하여 평가하자는 것이다.

예컨대, 英文科에서는 英語점수의 비중을 2배로한다. 이렇게하면, 英語대신 日語를 선택하여 총점에 몇점을 보탠다고 해서 덕볼 것이 없다. 日語시험을 치르고 英文科에 지원하겠다는 얌체 戰術은 통하지 않는다. 문교부 생각처럼, 英語출제의 수준을 떨어뜨려 英語선택과 日語선택의 균형을 잡겠다는 따위, 좀스러운 방안을 강구할 것도 없다.

이런 극단적인 예가 아니라도, 物理學科에 物理성적이 좋은 학생, 그 성적에 비추어 物理에 소질·취향이 있다고 생각되는 학생이 합격할 가능성은, 物理또는 그 유관과목의 加重値를 높임으로써, 훨씬『높아진다』. 이것이 適性과 능력있는 학생을 뽑는다는 大入전형의 본뜻에 맞음은 말할나위가 없다. 사정은 다른학과도 마찬가지다.

다른한편, 학생의 처지에서는 이같은 과목별 성적의 加重値가 대학과 학과선택의 요긴한 길잡이가 된다. 어떤 학생의 과목별 성적이 어느 정도 그의 適性을 반영한다고 하면, 합격가능성이 가장 높은 진로선택이 가장 適性에 맞는 진로선택일 수가 있다. 이로써 고교의 진로지도가 수월해지고, 그양상이 뚜렷하게 바뀔 가능성이 생긴다.

지금의 大入학력고사는 고교3년、모든 학과의 이수단위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고교에서의 학습도달도를 측정하는데는 적합할지 모르나、專攻을 전제로 대학진학 適性을 묻기에 합당치는 지극히 의심스런 配點제도다. 대학별 本考査가 없음을 생각할적에 더욱그렇다.

제도가 이렇게 되는데는 그 나름의 까닭이 있다. 고교교육의 정상화、大入지옥의 완화가 그중 큰 것들이다. 그러니 이제 와서 예전대로의 本考査를 부활시키자고 하기가 어렵다.

그렇기에 더욱、鄭교수의 제안은 하나의 妙方일수가 있다. 고교교육에 혼란이 미치지 않을 정도의 幅을 정하고、그 안에서 과목별 加重値를 대학이 재량하게 한다면、入試개혁의 방향에 크게 어긋난다고 생각되지도 않는다.

이 방안을 도입함으로써、무엇보다도 신입생 전형이 대학의 고유권한이란 뜻이 산다. 각대학、각 학과의 특성이나 개성이 조금은 살아 날 것이고、大入관리의 지나친 획일성을 완화하는 길도열린다. 또 加重點數가 있으므로해서、커트라인 총점만을 가지고 一流대학이니 人氣학과니하는 대학의 等級化·序列化 경향이 가려진다. 점수참구와 눈치作戰의 振幅도 줄어들것을 기대할수가 있다.

鄭교수의 글을 읽으며、비슷한 제도 아래서는 비슷한 문제가 생기고、그 대책또한 비슷할수밖에 없음을 생각한다.

지난79년 일본은 우리학력고사와비슷한 「共通一次」시험을처음시행했다. 그뒤 3년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된것이 우리와 비슷하고 그대책으로 나온 제안이 配點傾斜란것이다. 그 내용은 鄭교수의 제안과 꼭같은데、이것만으로는 모자란다고해서 새학년부터는 특정과목의 성적이 상위10위안에 드는 수험생을 무조건 합격시키자는 대학까지 나오고있다.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야할지는 의문이지만、그나마 本考査를 남겨놓고있는 일본에서의 논의가 그러함은 생각해볼만 하다.

이름은 뭐라붙이든、鄭교수의 제안은 살살이 검토해볼 가치가있다. 당연히 예상되는 기술적이고 사무적인 어려움을 내세워 묻어버리기는 아까운 착상이다. 대학과 고교、학부형의 3當事者사이에서 可否間의 활발한 논의가 있었으면한다.

교황도 妙策없어 눈물만

——西方、對波대응책에 腐心

지난 8일의 폴란드군사정부에 의한 자유노조해체조치는 계엄이후 10개월간이나 가슴을 억누르고 자제해왔던 교황 요한·바오로 2세의 눈에서 눈물을 자아내게했고 서방국가들에는 대응책을 짜내느라 부심케하고있다.

항상 평화적인 대화에의한 사태해결을 강조해왔던 교황은 자유 노조불법화조치가 취해졌다는 소식을듣자 조국 폴란드국민들이 섞여있는 1만여명의 순례자들 앞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나는 오늘 많은 폴란드인들의 눈물을 보는 듯합니다』며 군사정부와 직접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희망을 비쳤다.

교황은 지난해12월 계엄이 선포된 이래 폴란드의 제반사태에 대해 언급을회피하는듯한 인상을풍겼다. 이러한 교황의침묵은 지난 8월로 예정돼있던 고국방문이, 자칫 수포로돌아갈까 염려했기 때문인것으로 추측됐다.

그러나 교황의 조국방문은 취소되었고 폴란드정부나 교황청으로부터 이렇다할 설명은 없었다. 지금으로서는 교황이 군사정부와 직접대화를 나누고싶다는 바람이 이루어지리라는 시사는 없다.

자유노조 (솔리다르노스크)가 탄생했을때 폴란드국민들은 정치가 다원화되리라는 희망에 부풀어있었다. 국민95%가 포함되는 가톨릭교회、정부、자유노조가 각당사자가되어 경제악화로 빚어진 난국을 타개해나갈것이라고기대했다.

지난해 12월의 계엄령선포로 이같은희망은 무산됐고、노조지도자 레흐·바웬사의 석방을요구하는 요제프·글렘프대주교를 중심으로하는 가톨릭교회와 정부사이에는 냉랭한 기운이 감돌았다.

지난 8일의 노조해체조치는 군사정부와 국민간에 불신만을 남겨놓았고 대화가 아닌 침묵과 저항의 슬럼프속으로 빠져들게 한것이다.

자유노조 탄생지인 그다니스크를 선두로 벌어지기 시작한 저항시위는 근열흘간 몇개의대도시로번져 노동자수십명이 부상당하고 1명이 사망했다.

18일현재 파업과 시위는 일단 수그러든것으로 보도되고있으나 지하자유노조세력은 오는11월10일 전국적으로 4시간동안 일제파업을 벌이도록 호소하고있다.

◇폴란드 크라쿠드인근의 철강단지 노바디주민들이 지난13일 폭력충돌사태때 경찰의 발포로 한 20대청년이 사망한 장소에 꽃을 쌓아두고 이청년의 죽음을 애도하고있다。【크라쿠드UPI電話=聯合】

經濟제재 손발 안맞아

波 外債만 260억弗 自生거의불가능

현재 폴란드내의 저항에 맞추어 미국등 서방국가들이 폴란드계엄당국에 취할 수있는 제재조치의 범위는 별로 넓지못하다.

미국은 이미 23년간 폴란드에대해 취해오던 관세상의 최혜국대우를 잠정철폐했으나 서구국가들은 미국의 기대와는 달리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있다.

서구국가들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주축으로 對폴란드 장기전략이 세워지기를 기대하고있다.

서구국가들은 폴란드사태가 자기들이 바라는방향으로 개선되기까지는 우선 국민경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16개국의 나토가 통일된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는 제재조치에 찬성하는 국가와 반대하는 국가로 나뉘어있기 때문이다.

반대하는 측에서는 제재조치로 직접피해를입는 것은군사정부보다는선량한국민쪽이먼저라는주장이다. 한예로 미국産 양계용사료의 하역을 봉쇄한다면 이미 심각한 상태에 있는 육류공급에 커다란 또하나의 타격이 될것이라는 견해이다.

추운 겨울날씨때문에 육류 섭취가 많은 폴란드국민들에게 양계는 주요한 육류 공급源이다.

폴란드는 이미 서방에 2백60억달러의 민간및 정부차관을 지고있으며 현재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50억달러의 차관이 추가로 필요하다는것이 서방 경제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현재 미국이 최혜국 대우를 철폐함으로써 폴란드가 입게될 손해액은 연간 1백만달러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경제제재에 찬성하는 국가들은 제재를 가하지않는 것은 결과적으로 야루젤스키 군사정부의 책략에 말려들어가 이를 지원하는 셈이 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또 이미 심각해진 서구자체의 경제불황은 새로운 對폴란드 경제원조를 해줄 여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토를 중심으로한 서방국가들은 이미 지난 1월 경제제재를 가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3가지 조건을 내세운 바 있다.

그조건은 계엄령해제、바웬사 (현재 소련과의 국경부근에 수감된 것으로 전해짐) 등 구속자석방、정부·자유노조·가톨릭교회간의 대화재개 등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조건은 하나도 제대로 충족되지않은 상태에서 오히려 노조를 해체해버림으로써 서방국들을 경악케한 것이다.

현재 야루젤스키군사정부는 점진적인 정치적 개혁는 있을수 없다는 강경자세로 배수진을 치고있다. 【朴來富기자】

◇83년 春夏服쇼 프랑스의 디자이너 산더·토마스가 선보인 모슬린을재료로한 83년춘하복 패션。【파리UPI電話=聯合】

◇退役…샌프란시스코 名物전차 샌프란시스코의 名物인 전차가 모두 낡아 최근 새로운 시설로 바꾸기위해 당분간 運行을 中止했다고。마지막 電車에 五色풍선과 석별의 꽃다발을 장식했다。【키스톤=聯合】

海外토픽

結婚피로연은낭비

★蘇紙 國民폐단을 지적

소련공산당기관지 프라우다는 소련사람들이 결혼식 피로연에 너무많은 시간과 음식과 돈을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

이 신문은 신혼부부들을 위한 피로연이 며칠씩이나 계속될 정도로 낭비풍조가 생겨 일할시간을 빼앗기고 신혼부부가 유용하게 쓸수있는 돈을 허비하는 폐단이 많다면서 보다 검소한 피로연을갖도록 촉구。【모스크바=聯合】

"키신저는 거짓말의 名手" 밴스 과묵任務수행 지장

카터前職장관酷評

카터前미대통령의 前職국무장관들에 대한 혹평이 뒤늦게 공개되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보스턴·글로브紙는 17일 지난81년 카터대통령과 백악관출입기자단과의 송별파티석상에서 카터대통령이 헨리·키신저국무장관을 신뢰감을 주지못하는 『거짓말장이』이며 그의 후임자인 사이러스·밴스 국무장관은 너무 과묵해서 임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인물로 각각 평가했었다고 보도했다.

글로브紙에 따르면 카터대통령은 또 당시 레이건 행정부의 새국무장관으로 지명됐던 알렉산더·헤이그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사령관에대해 언급, 자신이 그를 나토사령관에 유임시킨것은 실수였다면서 그는 정치적인물로서 항상 대통령직을 꿈꾸고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한것으로 알려졌다. 【보스턴=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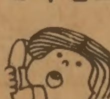
비밀訪臺위약격노

★솔제니친出國위협

2주간의 방문예정으로 최근 대만에 도착한 소련의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알렉산더·솔제니친은 애당초 자신이 원했던 방문사실의 비밀이 지켜지지 않은데 격분, 도착직후 방문을 취소하겠다고 위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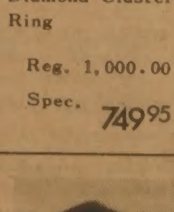
臺灣의 한 사립재단으로부터 초청을 받고 방문을 비밀에 붙인다는 조건으로 臺北에 도착한 솔제니친은 공항에 내리자마자 기자와 카메라맨들이 무섭게 몰려들자 몹시 화를 내면서 즉시 출국을 요구했다는것。【臺北=UPI】

예배에의 초대
주일오후 2:00시 (한국어·영어)
개혁장노교회
(문의 492-9889)
1355 Warden Ave, Scarboro
(Elsmere 와 Lawrence 사이)
THE WORD OF GOD-INCARNATE
THE FAITH OF 16C-REFORMERS
하나님의 말씀·개혁자들의 신앙

한국일보


Royal Conservatory of Music
Forest Hill Branch
(St. Clair와Spadina)
유회자박사가
매주 화요일
Forest Hill Branch
에서 피아노 학생을
지도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연락처 :
☎ 922－2935
☎ 960－0074

De Witt
JEWELS LIMITED
SPECIAL

1/2 Carat Diamond Cluster Ring
Reg. 1,000.00
Spec. 749.95
Coin Jewelly
고급시계
이태리 수입 고급
귀금속 취급

Assistant Manager
지니·장(Mrs. 장)
TORONTO EATON CENTRE
3RD LEVEL (MAIN FLOOR)
(EATON & SIMPSON사이)
☎ 979－99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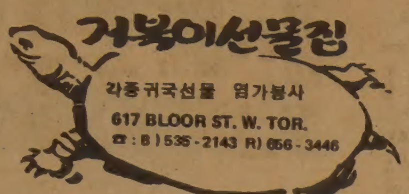
제2회 메시아 대연주회

때 : 1982년12월 4 일(토) 저녁 8 시
곳 : 메시홀(토론토)
■(12월 6 일(월)은 디트로이트 오케스트라홀에서 연주)
입장권 : $12(A), $11(B), $8(C)
구입처 : ● 합창단원들과
☎222－4662(MRS. 김)
222－2901(MR 리)
지휘 : 박재훈 박사
독창자 : 이주연(S), 양경자(M. S), 조영호(T)신경욱(B))
합창 : 토론토 한인합창단
(찬조 : 디트로이트 한인합창단, 연합교회 성가대(150명))
오케스트라 • 주로 토론토 심포니 멤버
주최 : 토론토 한인합창단이사회
후원 : 토론토 교역자협의회

KAWAI 피아노

- KAWAI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큰 회사 중의 하나입니다.
- KAWAI 피아노는 일본 정부에서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 KAWAI 피아노는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읍니다.
- HILLCREST MALL ☎ : 883－9407
- MARKHAM PLACE ☎ : 881－8211

대표 : 윤호섭
세일즈 매니저 : 알렌



한국관

기계로 뽑는
냉면 · 짬뽕 · 짜장면
해장국 · 곰탕 전문

628 Bloor St. W. ☎ : 531－02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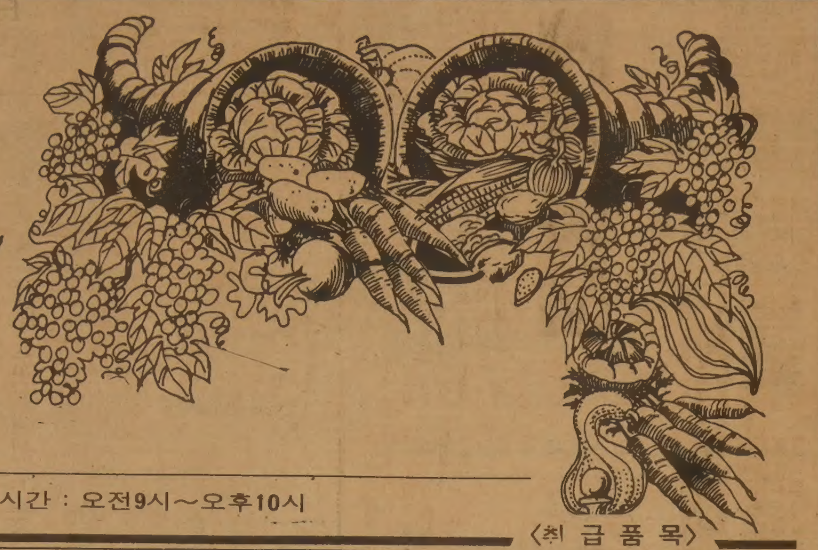
광고신청은
광고부로….

만족할만한 광고효과를 볼 수 있는 한국일보 광고를 많이 이용해 주십시요. 여러분께 보다 친절한 마음으로 신속, 정확히 맡은바 정성껏 여러분의 광고를 살펴 드리겠읍니다.

토론토 한국일보 : 533－236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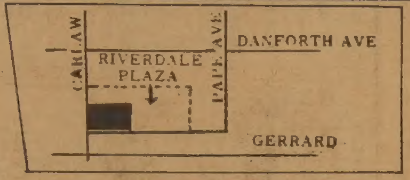
도매업
·채소 ·과일 ·화초

- 최저가격
- 최대봉사
- 최고품질



(PICK－UP 또는 주문) ($ 150이상) ＊시간 : 오전9시～오후10시

BROADWAY
FRUIT MARKET
437 CARLAW AVE.
☎ : 465－8167 대표 곽 덕열



〈취 급 품 목〉
- 모든 채소종류.
- 모든 과일종류
- CUT FLOWER
- 화분
- HANGING PLANT

- 백학같이 우아한 미!
- 미래를 수놓은 고상한 꿈

웨딩 드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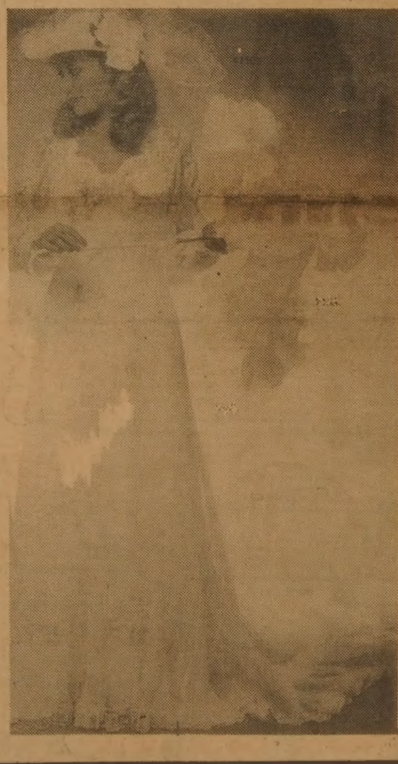
⊙웨딩·드레스 매매 또는 렌트.
⊙파티용등 스페샬 드레스 완비.
⊙꽃 어레인지먼트 및 청첩장등.

◀영업시간▶
월－목 : 오전8시～오후8시
금－토 : 오전8시～오후9시
일 : 12시～오후6시

※결혼을 위한 처음부터 끝까지 필요하신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실비아·원

1503 Bayview Ave. (베이뷰×밀우드)south of Eglinton
☎ : 485-9419 488-0639



이 세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성경강연회

초청 말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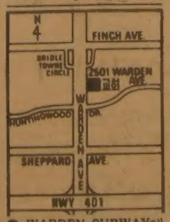
오늘날의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정치, 경제, 군사, 그리고 사회의 이례적 사태들은 단순히 우연한 일들인가, 아니면 성경의 예언에 따라 이루어져 가고있는 한 단면을 이야기하는가를 함께 생각하고저 한 기간을 마련하였읍니다.

인류 역사는 어디를 향하여 줄달음쳐 가고 있으며 이러한 역사의 뒤안길에 살고 있는 우리 각자 삶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며, 또 어디에서, 어떻게 그 참다움을 찾을 수 있을런지…….

짧은 기간이나마 이 기회를 통하여 우리의 공통된 관심사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으리라는 바람과 함께 여러분들을 초청하오니 참석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보람된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라옵니다.

- 지구는 고장난 비행체이다
  인구폭발, 기상이변, 식량위기, 석유파동, 공해, 핵무기의 공포, 대지진등
- 성경은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창조냐? 진화냐? 내세의 유무, 이적의 가능성등
- 소련의 이스라엘 침공설은 사실인가?
- 이스라엘의 회복과 인류의 종말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 인생은 많은 문제를 안고있다.
  생의 의미, 죽음, 내적갈등, 구원등의 많은 문제
- 거듭(구원)나지 못하고 사는 자들은 저그리스도의 표를 받아 멸망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과연 당신은 들림받음(휴거) 준비가 되어있는가?

교회약도



- WARDEN SUBWAY에서 68번 버스(FINCH 행)를 이용하실수 있읍니다.
- 집회기간중 어린이를 돌보아 드립니다.

- 강사 : 소 천 섭 목사(국제선교협의회 사무총장)
- 일시 : 1982년10월21일(목)～26일(화). 저녁 7 시30분부터 (일요일은 오후 2 시부터)
- 장소 : 2501 WARDEN AVE. SCARBOROUGH (BRIDLEWOOD PRESBYTERIAN CHURCH, SHEPPARD와 FINCH 사이)
- 연락처 : 439－1964

기독교복음침례회토론토교회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244>

朴婉緒 作 / 金光培 畵

안개속의 집 ⑪

수지는 강의준비한답시고 펼쳐놓은것들을 미련없이 밀어놓고는 불을 끄고 돌아누웠다。

그녀는 어둠의 부피와 함께 기욱의 누적된 불만의 부피를 피부로 느끼며 입을 열었다。

『당신이 뭐래도 상관 안해요。 파출부든, 지적인 허영심이든, 지적인 액세서리든、당신 좋을대로 생각해요。난 안 그만둘게요。왠줄 알아요。 당신 형수님처럼 안되기 위해서예요。 당신 형수님 그 거만하고 화려하던 여자 돈 없어지니까 얼마나 초라해요。 고여사가 세팅한 그 비싼 보석 다 팔아먹고나니까 영락없이 죽지 떨어진 촌닭 꼴되는거 당신도 봤죠? 그 여자 보니까 몸에 닿는 것에 신경 쓰는 것도 좋지만 골속에 챙겨넣는데도 신경써야겠다는 생각이 저절로납니다。 날 너무 깔보려고만 하지 말아요』

이렇게 못박는말에 기욱은 대답하지 않았다。그는자나? 그녀는 그의 숨결을 가늠하기 위해 귀를 기울였지만 알수 없었다。어둠이 톱밥처럼 정감없이 밀려와 그녀의 잠자리를 편안치못하게하고 입속을 텁텁하게했다。

잠 못이루는 그녀의 눈에 어둠이 조금씩 희석되면서 방구석에 밀어놓은 선물보따리의 금박지 은박지 리번이 곤충의 표본처럼 반짝이기 시작했다。

그 생기없는 반짝임이 새삼 그녀의 신경을 불안스레 자극했다。

고아원아이들의 작고 경직된 낯에 잠깐씩 품에 안아본 감촉이 되살아나면서 또 눈물이 나려고 했다。

수지는 그녀에게 선물을 준 아이, 재롱을 떤 아이를 골고루 다 안아주었지만 어떤 아이도 푸근히 오래 안지는 않았다。

그녀는 처음부터 끝까지 선녀처럼 사랑에 넘치는 미소로 일관했지만 어느 아이고 안자마자 밀어내고싶게 싫어졌었다。

그녀가 어떤 아이고 잠깐씩밖에 못안은건 여러 아이에게 골고루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가 아니라 싫어지는걸 참을수가 없어서였던 것이다。

그녀가 고아원에서 한 짓은 밖으로 나타난 여러 고아를 골고루 포옹하고 애무한 자비로운 선녀노릇이었지만 그녀의 기억력이 정직하게 기억하고 있는건 무수한 고아를 밀어내고 또 밀어낸 기억뿐이었다。

뜬내 비슷한 아이들의 몸냄새 때문이었을까?

그녀는 자신의 찰을 성음을 이렇게 변명하려 했지만 궁색했다。

생각나는건 아이들 공통의 냄새뿐 개별적인 얼굴은 하나도 떠오르지 않았다。기억에 남게 예쁜애도 없었지만 기억에 남게 미운 애조차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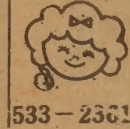
아이들은 다 비슷하거든、특히 고아들은。그녀는 문득 한기를 느끼고 이불을 어깨까지 추어올리며 쓸쓸하게 생각했다。

창밖에서 잎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것 같았다。2중창에 커튼까지 쳐진채인걸로 봐서 환청인가도 싶었다。

내일은 바바리를 걸칠까。

터미널에서 학교까지의 멀지않은 코스모스길을 바바리를 느슨히 걸치고 걸을 감미로운 생각이 스르르 단잠을 유도했다。

그때 문득 악몽처럼 한 아이가 스쳐갔다。 아까부터 생각나지않아 답답하던 고아의 얼굴이었다。 그건 매우 이물스러워 등골이 오싹했다。그러나 알고보니 그녀의 생애를 꾸준히 동반해온 벗이었다。그 아이는 그녀가 버린 다섯살적의 오목이었다。


533-2361

스포츠 話題

한국、對濠戰 판정불복…亞洲蹴聯에 제소검토

“져주면 즐거움提供”…濠감독 두여자電話받아

멀라이언컵 蹴球 첫골 오프사이드

【싱가포르UPI=聯】제1회 멀라이언컵 국제축구대회에서 준우승을차지한 한국은 17일 싱가포르국립경기장에서 벌어진 濠洲팀과의 최종 결승전에서 전반18분께 濠洲팀이 얻은 득점이 오프 사이드위치에서 골인된것이라는 이유로 아시아축구연맹에 제소할것을 검토하고 있는것으로 18일알려졌다。

한국팀의 김주원단장은 기자들에게 濠洲팀의 골이 오프 사이드위치에서 나왔음에도 불구, 싱가포르선심인 쿠날링감이 득점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이 경기에서 3—2로 패했다。

싱가포르 當局서 승부조작說 조사

【싱가포르AP=聯】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1회 멀라이언컵대회우승팀인 濠洲팀감독은 18일 말썽을빚고있는 승부조작음모와 관련, 2명의 여성이 최근 자신에게 전화를걸어 濠洲팀이 경기에서 져주는 대가로『즐거운시간』을 보내도록 해주겠다는 제의를해왔다고 밝혔다。

스티브·캐머츠감독은 인도네시아인을 자처한 한여성이 지난11일 전화를걸어 濠洲팀이득점을올리지말고 인도네시아팀에게 져줄것을 부탁했으며 지난14일에는 또한 여성이 전화로 말레이지아팀에게 져주도록 요청했다면서 두여성은 그대가로 즐거운 시간을보내게 해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말했다。

싱가포르 부정조사국은 뇌물공작관련혐의로 이미 한사람을 체포했다고 말했으나 더이상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지난9월 싱가포르에서는 멀라이언컵대회에 출전한 한 말레이지아 축구선수에게 뇌물을 제공하려한 혐의로 체포된 한말레이지아인에게 5천 싱가포르달러 (약2천3백달러) 의벌금을 부과했었다。

외다리 印度청년 자전거 世界一周

【싱가포르UPI=聯】한살때 소아마비로 오른쪽 다리를 잃은 한인도청년이 세계최초로 자전거세계일주에 도전 화제를 모으고있다。

구르남·싱씨 (23) 라는 이청년은 지난7월 자전거를타고 편잡주를시발로 인도 각지역을돌아 선박편으로 최근 싱가포르에도착, 『모든 역경을 극복, 세계최초의 자전거세계일주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吳龍煥, KO敗 日무라따 選手에

【東京AP=聯】한국의 吳龍煥은 18일 밤 東京서 벌어진 프로복싱 동양·태평양권투연맹 (OPBF) 밴텀급타이틀매치에서 챔피언 무라따·에이찌로(일본)에게 4회2분54초만에 KO패, 타이틀 탈취에실패했다。

李德姬선수 탈락 西獨 여자테니스

【필데르스타트 (西獨) AP=聯】한국의 李德姬는 18일 西獨 필데르스타트에서 개막된 총상금 12만5천달러의 西獨국제여자 테니스대회 1회전에서 헝가리의 안드레아·테메스바리에게 세트스코어 2—0 (2—6 3—6)으로 패했다。

蘇聯에 가짜비틀즈 旋風

외모·演奏모습·音樂까지 "진짜" 닮아

비디오製作 먼로映畵 인기

30年代스타 다류 銀幕컴백

海外演藝

○…소련에 해체된 비틀즈 선풍이 일고 있다. 현재 소련에서 순회공연중인 비틀즈는 브트렉·비틀즈 (밀조품 비틀즈의뜻) 로 불리는 가짜 비틀즈。 영국인 3명과 미국인 1명의 4인조 브트렉·비틀즈는 외모나 연주 스타일은 물론 음악까지도 비틀즈와 꼭 같으며 그룹명도 그대로 쓰고 있는데 지난 5주동안 공연티킷을 구입하기위해 수만명의 팝송팬들이 장사진을 치고 소란을 피웠다。

공연은 남부 얄타에서부터 북부 레닌그라드까지 가는곳마다 선풍을 이루었고 모스크바공연은 붉은 광장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한 로시야호텔에서 있었는데 2천5백석의 좌석은 수일전에 매진됐다。

공연중 중년여인이나 10대소녀 할것없이 흥분, 소리치며 춤추고 소란을 떨었다。 티킷을 손에넣은 것만으로도 흥분한 이들은 끝없이 앙코르를 요구했지만 브트렉·비틀즈는 1회공연에 한차례의 앙코르밖에 받지않았다。이유는 앙코르를 너무 받아주면 분위기가 과열될것을 겁내 제한했기때문。

지난68년 진짜비틀즈가 소련공연을 신청했을때 한마디로 거절했던 소련당국이 1회공연에 1천7백달러의 개런티를 지불하면서까지 순회공연을 허가해준 이유는 지금도 수수께끼다。

○…섹스의 심벌 마릴린·먼로가 죽은지 올해로 20년。 사인규명이 추진되고있는 한편에서 美20세기 폭스사는 먼로의 20주기를 맞아 그녀가 출연한 영화5편을 비디오·테이프로 제작, 먼로의 향수에 젖은 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비디오·테이프로 제작된5편의 영화는「7년만의 외출」「신사는 금발을 좋아한다」「백만장자와 결혼하는 법」「버스 정류장」「쇼처럼 즐거운 인생은없다」등인데 20세기 폭스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먼로 출연영화를 비디오·테이프로 만들어낼 예정。 그녀의 외모와 남성편력이 워낙 화려했던때문에 영화배우로서의 능력이나 자질등은 오히려 그늘에 묻혔었다。 따라서 이번 비디오·테이프 제작으로 배우로서의 가치를 차분히 음미해 볼수 있을것으로 영화팬들은 기대하고있다。

◇마릴린·먼로가 출연한 영화5편이 비디오·테이프로 제작됐다。 사진은 「7년만의 外出」에서의 먼로。

○…영화 「마이얼링」에서 좋은 연기를 보여주었던 30년대의 스타 다니엘·다류(65)가 은막에 복귀했다。 예전의 미모를 그대로 간직한 곱게 늙은 모습의 다류는 자크·드미갈록의 「로시의 침실」촬영을 끝내고 현재 폴·베키알라 감독의 「계단위에서」에 출연중。

14세때 데뷔, 「赤과 黑」「마리·옥토버」등 많은 주옥같은 작품에 출연한 다류는 「계단 위에서」의 촬영이 끝나는대로 4개월간 연극순회공연을 갖고 母女간의 사랑과 증오를 다룬 새 영화에 출연할 예정이다。 다류는 「내자신을 스타로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저는 조용한것을 좋아하지요。 데뷔당시 나이트·클럽같은데서 노래하기는 했지만 시끄러운 곳은 싫어 28년전부터는 일체 이런곳에 드나들지 않고 있지요」라고 근황을 밝혔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강건너 불구경」이지만 미국에서는 비디오·테이프의 복사권을 놓고 공방이 치열하다。 TV에서 방영되는 영화나 쇼프로그램을 가정에서 비디오로 녹화, 다시보고 싶을때 보는 것이 저작권 침해냐 아니냐 하는 것이 논쟁의 초점이다。

영화、쇼비즈니스 사업자측과 VTR기기메이커 사이에 벌어진 이 싸움은 그동안 각각 지역법원에서 1승1패를 기록、연방대법원에까지 사건이 올라가 있는데 이번에는 입법화 움직임을 보이고있어 공방전은 더욱치열해지고있다。

지난해 10월 유니버설사와 월트디즈니사는 VTR의 복사문제를 정식으로 법원에제소、샌프란시스코연방법원으로부터 『가정에서의 이용을 위한 녹화를 포함、전파로발사된 모든 프로그램을 허가없이 복사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러자 美VTR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소니사가 즉각항소, 州최고법원으로부터 『이유있다』는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外信=綜】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245>

朴婉緒 作 / 金光培 畵

안개속의 집 ⑫

『그냥 생돈을 내느니 바자를 하는게 어떻겠어』

수지는 갑자기 떠오른 생각처럼 무릎을 치며 말했지만 실은 며칠전서부터 구체적인 안까지 짜놓고 혼자서 결정을 본 생각이었다。

『바자? 아유 신나。그거 하면 한보름은 넘어 신나게 바쁠거 아냐?』

신여사가 제일 먼저 동의를 했다。 신여사는 집에선 손끝 하나 까딱 안하기로 작정하고 사는 여자였고、또 그럴수 있을만큼 팔자가 늘어진 여자였지만 밖에선 좀 창 바쁘게 움직일 거리가 있기를 바랐다。

손끝하나 까딱 안하고 마음 편하기 위해선 박에서 대단히 보람있는 일로 녹초가 됐다고 생각할 필요가 있는 모양이었다。

『그런데 그 바자라는게 정말 수익성이 있는걸까?』

『하기 나름아닐까? 파아트 하기위해 공짜나 뭔가로 욕진을 내줄만한 생산업체 몇개쯤은 쟁쟁한 우리 회원들 남편만 튺하면 남아돌지도 모를걸。 없는 우리도 낯짝이 있으니까 각자 재주를 좀 부려야지』

『재주』

『왜 있잖아。 잘아찌다 잼이다 젓갈이다 해서 병에 담아오고、참기름도 짜오고 수예품도 장만하고 하는거말야』

『얘、말이야 바른대로 말이지 우리 회원치고 손재주 있는 회원이 몇이나 되냐?』

『망할 것。 무재주들이 팔자는 좋아서…』

『전? 누가 누구더러 할 소린지 모르겠네』

『내가 재주를 부리란는 건 꼭 손수해야한다는 소리가 아냐? 수예품 같은 것만해도 평화시장에서 한목으로 떼다가 조금씩 손을 보고 포장을 잘하면 감각이 다른 물건이 될수도 있거들랑』

『갑자 좋아하네』난 애들 단추 떨어진 것도 세탁소에서 달아다 입히는 무재주야。 손 본다고 가뜩이나 싸구려 물건 더 오죽잖게 만들게?』

『그럼 비싼 걸로 사다가 싸게 팔렴。 미제 쨈을 사다가 작은 병에 담아 네가 만든 쨈이라고 팔든지』

『망할 것。난 돈으로 낼란다。천원 들여 팔백원을 만들어 내느니 천원을 그냥 내겠다 이거야。고생도 안하고…』

『얘는 그것도 재미지 뭔으로 척척 내놓고 끝나면 무슨 재미니?』

『그래 우선 일은 벌여놓고 보는 거야。 뭔가 보탬있는 일을…』

『우리 남편한테도 뭔가를 보여줘야한다고 생각지 않니? 돈을 쓰다쓰다 숨바닥나 없애고、노바하다 없애는 어뭔네들도 수두룩한데 모자 결연 맺은 고아원에 기부 좀 했다고 싶어할 영감도 없겠지만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불쌍한 아이를 도왔다고 해봐。아마 우리 영감같으면 감격해서 날 업어주려고 할걸』

『그래 그 동안은 시간도 줄일수가 있고、소비밖에 모르던 우리가 여봐란 듯이 수익을 올려 남편들을 깜짝 놀라게 할수도 있고、얼마나 신나는 일이니?』

이때 식모애와 파출부가 교자상을 맞잡고 들어왔다。

이번 크리스머스를 기해 그들과 모자결연을 맺은 고아원을 생색나게 도울수 있는 방법을 의논하기위해 우선 간사회원들을 수지네로 모은 자리였다。

세계적인 교안으로 철저히 책임지도함.

—사교댄스 지도—

●부르스, 지르박, 탱고, 포카, 디스코, 도롯도, 월츠, 차차….

●교사 : 김유수 (현Board of Education 과 Parks and Recreation의 댄스교사임)

●개 인
●소구룹
●단 체

*출장지도도 함.
*주말지도도 가능함

929—3613 (월—금 : 9~3시)
742—4208

맛 사 지

DIXIE HEALTH STUDIO

Whirlpool * Sauna
Gym * Massage
Luxurious Surroundings
OPEN 10 AM-1 AM
5170 Dixie Rd.
(near airport)
MISSISSAUGA
624-8822

Richard Y. K Wong
Insurance Broker

보 험

⊙자동차 보험
⊙주택 보험
⊙상업(가게 · 레스토랑등)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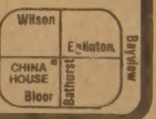
312 DUNDAS ST. W. TOR.
(B)977—4057 (H)461—7769
Registered Insurance Broker 리챠드 · 왕

CHINA HOUSE
차이나 하우스

두개의 벵큐잇 방,
오후 4 : 30이후 배달도 합니다.

CANTONESE & MANDARIN CUISINE

925 EGLINTON AVE.W.
781-9122



CENTRAL CANADA COLLEG

특수영어프로그램

◎ 고등학교 11학년~13학년을 위한 영어교육을 위한 신청
◎ 학기는 매년 1월.6월.8월에 시작함.
◎ 컴퓨터 · 싸이언스및 제2외국어로서 영어교육을 위한 훌륭한 선생 보유
◎ 학생들의 대학교입학을 위한 보조역활
◎ 외국학생들의 비자신청 역활

◎ 자세한 사항은
444—1136
MR. WAN 또는 월리암

사무실시간(월~금)오전9시~오후5시
60 Park Lane Circle (베이뷰×로렌스)
☎ : 444—1136

거구장

결혼, 회갑, 생일잔치, 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 환영
★★ 매혹의 가수 배성 특별출연 ★★

⊙7, 8월 여름휴가중 영업시간
월~목 : 오후2시~새벽2시
금 : 오전11시~새벽2시
토~일 : 오후2시~새벽2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LEASE 취급함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캐나다 전역에 걸친 콘테스트 세일
기간 : 1982년10월1일~12월31일까지

산요 자동·보온밥솥

왜 산요(Sanyo)를 사느냐구요?

●산요제품은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의 밥솥 부분을 차지합니다.
●가격이 항상 저렴합니다.
●결코 타는법이 없으며 자동조절이 됩니다.

각 식품점에서(소매상) 산요(SANYO) 일본밥통을 싼 가격에(경품티켙과 함께) 구입할수 있으며 티켙에 당첨되면 좋은 상품을 드립니다.

● JAPAN FOOD CORP(CANADA) LTD. TORONTO
● PRODUITS ALIMENTAIRES DU JAPON(CANADA) LTÉ MONTREAL
● ASIAN FOODS—VANCOUV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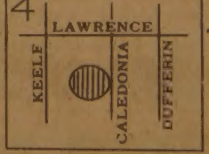
DOMINION SMALLWARES

CASH & CARRY

October 18 - October 30

		SPECIAL
Mailbox Full of Heart	24x39¢	$4.19
Fruitella	36x25	4.69
Dare Jubes	24x35	5.45
2¢ Double Bubble	480x.2	6.39
Lifesavers Candy	24x30	4.59
Peanutbrittle	24x40	6.29
Lollipops Lifesavers	120x10	8.17
Lollies	160x.5	5.29
Sour Tongue	100x10	6.29
Carefree Gum	18x35	4.05
Breathsavers Candy	18x35	4.05
Bubble Yum	18x30	3.30

DOMINION SMALLWARES
920 CALEDONIA RD.
789—7214(MR. 김)



안심하고 믿고 찾는
럭키 Drapery
◉품질 다양
◉저렴한 가격
◉성실한 써비스
4141 Dixie Rd.(딕시 × 버남돌프)
전화 : 625-0698 최 원 보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범한서적
◉한국전집류 ◉고전, 현대소설
◉유치원 백과, 새생활 백과사전
◉사전류, 가정요리, 꽃꽂이 ◉광복20년
1712 Queen E. 전화 : 690-2216
북미주총판책임자 최 규 홀

사진

새 하 칼 라 현 상 소(R)654-5691 전화 : 535-7772
결혼·돌사진·각종 증명사진·회갑·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상 담

김보경 박사 (심리상담, 성인및 아동)
연락처: 1-(705)-549-3454(Penetang, Ont)
" (토요일): (416)-923-3336(토론토)

생선

K & R Sea Food
▲얼리지 않은 각종생선. ▲싱싱한 횟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전화 : 259-1585

Forest Glen Sea Food.
3413 Fieldgate Dr. Missi.
(Bloor & Two Block East of Dixie) 624-3092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소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시설및수리

"Kim's Installation & Repair"
설계및 실내장식, 건물구조변경, 지하실 꾸밈,
Paint, 각종유리 일체를 취급, 상·하수도 욕탕 각종타일
시멘트공사, 전기시설및 수리(전기제품 포함)
전화 : 425-8585, 535-4441(R) Mr. Kim

"집수리·신건축·목수일" 합니다.
빈가게및 건물 주로 변경, 지하실 전문, 진열장 카운터 제작, 스틸 쉘빙, 페인팅, 타일, 세멘트일등, 설계, 실내장식, 신축, 상담, 허가 시공.
언제라도 전화 상담 환영.
전화 : 669-5784 (Mr. 심)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식당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서 울 하 우 스
615 BLOOR ST. W.
전화: 532-0602

Rose Garden(중국집) 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일류요리사, 홍콩식 중국요리 취급
전화 : 656-0456, 654-6609 유 창 균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클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693 Bloor St. W

식품점

삼복식품. (주7일 영업)
금요일 밤12시까지, 일요일 오후4시~오후10시까지
제일좋은 물건만을 골라, 제일 싼값으로 책임있게
봉사합니다. 여름철 야외 바베큐는 맛있고, 살많은
삼복갈비를 이용하세요. 시내어디든지 무료 배달합니다.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한 밭 식 품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 274-5401

제 일 식 품(구 단풍식품)
7 Days Open(오전10시 - 오후10시까지)
배달합니다.
뒤에 파킹 LOT마련.
전화 : 532-1054(아리랑식당 옆)
712 Bloor St. W. 김 덕 기

서 울 식 품(동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서울식품 (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 243-9544

실내장식

Office·Store·Restaurant·Residence
Design. Permit and Construction
FINE DESIGNS 622-5328 조 덕 남

악기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와그너 피아노
(B) 445-1516, 449-8644
(R) 286-1548, 박 성희

양장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530-1870
오전 11시~오후 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의류수선

양장 맞춤·주문배수(수리는 남녀양복 모두 취급)
여성복 Design 변경 또는 재단만 원하셔도 해드림
100 Glenshields Ave. 전화 : 669-5784 Mrs. Kim

액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추 성 호

에어콘 히팅 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532-2880, 2889(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Richvale
◉Heating, Cooling & Electrical
◉24시간 Service.
전화 : 752-0404 Mr. 오

여행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김종조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366-0960(B) 임 태 호

천 우 여 행 사
720 SPADINA AVE.
전화 : 928-3335 김 현 두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운전학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41-6099(B) 743-3377 Mr. Eastman

Agincourt Driving School(Eastside of Metro Toronto)
18년간의 운전교육 경험으로 성실히 모심. 스카보로(동쪽지역)은 Ride 제공함. 전화 : 291-8304 (블라도)

운동구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인벤토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STORE인수, 인계 INVENTORY
2)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전화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인쇄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789-7351, 789-7352 대표 : 이 인 용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New Toronto)
전화 : (B)251-9889, (R)242-4551 김 희 삼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Lisbon Auto Collision Inc.
★24시간 토잉써비스
★무료견적 ★수리중차 대여
★완전한 차체수리 37 Primrose Ave. Toronto
★Rust Proofing.
전화 : 533-8507, 533-8508 이 영두·이전하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장의사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Toronto Memorial Funeral Home
721 Bloor St. W.(at 크리스티 써브웨이)
전화 : 536-6250 호세환, 530-1222 Mr. 왕

카펫·카텐

싸다고 소문난 카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원 덕

카페트 크리닝 : 카페트·소파·체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박

태권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완인태권도 完人跆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 사범 직접책임지도
중앙도장 : 2281 YONGE ST. 전화 : 483-4002
동부도장 : 1865 LAWRENCE AVE. E. 전화: 759-2500

T · 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T.V 수리는 431-0102
전화 : 431-0102 Mr. 박

페인트 · 벽지

페인트 또는 벽지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안심하시고 저희에게 맡겨보십시요.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기술로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합니다.
전화 : 731-4204 (Mr. 신)

하드웨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 섭

한방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3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쪽)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보광한약방 (송계 김남집)
임상경력 30여년, 사암오행 침구전공
특히 만성질환, 상담환영, 보약 첩약 특선정제
627 Bloor St. W. Ste #202(외환은행 2층 한국관앞)
전화 B)(416)588-1984 (10:00a.m.-8:00p.m.)
92 Brantwood Dr. Scar. (R)(416)439-6717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 산삼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968-3586(R)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동방체질개선연구원 전화: 745-8899(우 봉)
◉한약과 침·뜸·특수부항료법·지압·단식료법. ◉고혈압·신경통·요통·두통·심신불안과 불면증 ◉2433 Finch W. #516

하르빈한약상사
각종 디스토마 특효약 입하.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정확한 진단과 처방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 옆)
전화 : (B)536-6854, (R)921-3382 서 춘 봉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회계사무소

K.G.S.Tax Accounting
과거 수년간 카나다정부 세무감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회계업무와 세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봐드립니다.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
◉전화 : 273-7300 공인회계사 이명세.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627 Bloor St. W. #302
외환은행 블루아지점 3층 534-3760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

아세아 한약방

◉ 복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10시 - 오후 8시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968-3586(R)), 530-0522(B).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도매함.

<영업시간>
월 · 토: 8:00 a.m-5:00 p.m
화·수·목: 오전8시-오후6시
금 : 오전8시-오후7시
16 Osler St.
전화 762-7255,7256,2700

구인

D.Y. Import Co. Canada

한국 밑반찬 만드는데 경험이 있는분 구함.

전화 : 622-5379 MRS. 오

웨이터, 웨이트레스
18세이상 주말 학생 파타임 구함 (1명)
(목·금·토 저녁에만) 경험 없어도 됨.
114 Laird Dr. 전화 : 421-6016
일본식당(오후 2시30분 이후 연락바람)

출퇴근 하시면서 애들 돌봐 주실분
(베더스트 × 휜치)
전화 : 665-9585

샌드위치숍에서 일하실 카운터 헬퍼구함. ◉주5일. 추레인 시킴. 직접 내방바람.
68 Yonge St. LULU'S CAFE.

입주 또는 출·퇴근 하시면서 애기 봐주실분 구함
◉주5일. 스카보로 북쪽.
전화 : 496-1664 Mrs. 리

Sales Help wanted (베다스트×로렌스)
현대식 사무실, Leads supplied, parking
Mr. Roy 전화: 789-1241 Louis Roy Ltd., Realtors

주말에 도넛숍에서 일하실분 구함.
전화 : 977-0303 다운타운 지역.

용모단정하고 경험있는 여자 캐쉬어 구함
하루 7시간. 전화: 532-6143

캐네디안회사에서 일할 여직원 구함
영어 잘 해야하고 타이프 60자이상 치는자.
전화: 677-4749(MR. 리) 미시사가지역

그로서리스토아 메니저 구함
주매상: $5,000 ★스탁은 전부 인수받아야 함.
전화: 782-7254(낮12시~오후6시)

맥스밀크에서 금·토·일 일할 헬퍼구함
○미시사가지역.
전화 : 278-4867.

개인지도

바이올린 교습생 모집
전화 : 535-0708 박 명 진

피아노 레슨함.
몬트리얼에서 레슨함. 선생: STEPHEN CH'IN
주소: 4328 RUN SHERBROOKE, WESTMOUNT.
전화: 932-7000
All grades, Royal Conservatory, All Festivals, Competitions, or for Personal accomplishment

Grade 7부터 Grade 9까지의 수학·과학을, 미국에서 대학을 나온 엔지니어가 개인지도 또는 그룹을 지도함.
전화 : 293-3149 Mr. Sam Lee

양장, 재단 재봉 개인지도(휜치 & 베더스트) 맞춤, 수선(남녀복 아동복 취급함) 재봉은 하지만 재단못하시는분 특별지도.
전화 : 665-4230 Mrs. 장

구혼

결혼상담, 전자침 (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 (18부터 60세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최·김

기타

걱정이 있으신 분은 오십시요.
Card, 손금, Tarot등으로 당신의 걱정을 해결해 드리겠읍니다. 전화 : 652-1280(Mrs. Adroe) 636 Vaughan Rd. #1(at Oakwood St.)

매매

남자옷 맞춤과 남자옷 파는가게 매매
스카보로 플라자.
1년 Sales $200,000
주인이 정년퇴직 관계로 팔고자 함.
전화 : 752-6466 · 491-2573(저녁)

그로서리 Store 매매. (이층은 살림집)
년매상: $200,000. 가격: $95,000 (일요일 휴점)
모개지: $30,000 at 8¾%. 연락처: 519-327-8368

TUCK SHOP(시간 짧고 이윤좋은 가게) $15,000다운+모기지 개인사정으로 급매. 주매상: $2,500 아스킹: $25,000+스탁
전화 : 275-9507 20 Mississauga Valley Blvd.

버라이어티 가게 급매
주매상 : $4,000. 리스: 1년(650불) + 5년
550 Sheppard Ave. W.

★Coffee & Snack Shop(주6일 Open)
Office Building 과 Shopping Mall내에 위치함.
주매상: $10,000. 리스: 4년+5년 옵션
가격: $400,000
★Dry Cleaning Business
고급주택과 Apt.가 밀집한 위치.
주매상 : $7,000. 리스: 9년 가격: $265,000
A.E.Lepage Mrs. Woo(우) 전화 : 741-9170

각종 알로베라제품 판매. 쥬스·크림·로숀·약용크림외 다수품목 보유. 최저 염가 봉사합니다.
5439 Yonge St. 전화 : 222-4717 Mrs. 김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좋은 가격
Ossington × Bloor.
전화 : 531-1023, 531-5005

COIN LAUNDRY 급매코자 함.
(그린우드×코스본) 가격: $16,000
리스2년+옵션 전화 : 537-4910 Mrs.김

"가 구"
직접 공장에서 만들어 파는 까닭에 여러모로 고객에게 도움을 드립니다.
1) 3 pcs. Wall Unit. $259
2) 7개의 설합달린 책상 $65
3) 거울달린 화장대 $79
4) Bed room set(9 pcs) with mattress $399
5) 5 pcs. Kitchen Set (식탁 + 4개의 의자) $89
6) 쇼파 4 pcs. set $399 etc.
Rema furniture 937 Queen St. W.

성업중인 Variety Store for Sale. 가정사정으로 급매.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하겠음. 주매상 : $3,000. 렌트 : $300(M)
전화 : 259-0323

오샤와 시내 주택가에 위치한 3층 아파트빌딩 좋은 가격에 팝니다. 한달인컴 : $1,200
아스킹 : 11만8천불. 전화 : 293-3515 MIKE

버라이어티스토아 급매(이윤좋은 가게)
주매상: $2,500. 렌트: $450. 리스: 4년반
아스킹: $12,000+스탁. 전화: 654-4709

주인이 여러 가게 운영으로 그로서리 가게 매니저를 급히 구합니다.
전화 : 923-9948 Mrs.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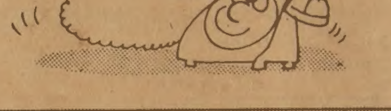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좋은 조건의 가게 싸게 팝니다.
관심있으신 분 직접 내방요. 주매상: $4,000
430 York Blvd., Hamilton(해밀톤)

Tuck Shop 급매
좋은조건으로 양도 하겠음. 직접내방 요망.
2233 Hurontario St. missi.

비데오 게임머신 버라이어티스토아,그로서리스토아 그리고 음식점. ◉24시간 써비스
전화: 636-0906

한국일보 안내광고는
내보신 분만이
그 효과를 압니다.

한국일보 광고문의
광고국직통전화 :
☎ : 533-2361



아파트렌트

간이모텔 단기·장기 불문, 여행자에게도 크게 편리함. 693 Bloor St. W. Clinton House(Christie 지하철정거장옆 아리랑식당 앞) 전화 : 535-9541

베츨러 아파트 서부렛(Sublet) 합니다.
11월초 부터 입주 가능. 월: $168.-
전화 : 292-6067 (저녁 7시이후)

방세 혹은 하숙합니다. 1 Bedroom
Near Dufferin Subway. 여성에 한함.
전화 : 279-2369(R) 533-2361(B) Mrs. 조

집렌트

4 Bed Room House전체를 세놓고자함(Brampton지역)
2 Bath Room, Family Room, Fire Place, 차고등.
학교와 Shopping plaza근처에 있음. 593-8943

Flat for Rent(Euclid & Harbord)
$375/M. 오전 10시부터 오후6시사이에 연락바람.
전화 : 977-3758

집세놓음 (4 Bed Rms) mimico area.
중앙식 Air Con . 차고 있음. 교통 매우 편리.
Downtown에서 5분 거리 전화 : 368-9018, 366-0960

단층집(Semi Detaches) 4 Bed Room 세놓음.
Home Bar등 지하실 꾸며져 있음. ($650/M)
스카브로지역(Neilson & Sheppard). 전화 : 968-9450

기관및단체

총영사관	598-4608
한인회	755-9288
노년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 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조흥은행	363-3448
코리아타운번영회	532-2727
호남향우회	651-8835
무역진흥공사	977-8784
동우회	261-2917
캐나다체육회	533-9336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K. A. L.	862-8250

부동산

복덕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석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용현부동산(주택매매, 사업체일체.)
(B)449-8644~5 (R)286-1548
★이헌영 (R)686-0207 ★강정숙 (R)244-8918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 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SINCERE REALTY INC. (채준성 :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차매매

GRANT BROWN
1575 Weston Rd.
전화 : 247 - 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G.M.(폰티악·뷰익)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가구점

ecosys Ecosys Furniture
• 고급가구 전문 • 저렴한 가격 • 신용보장
2300 Yonge (영 × 에그링톤)
전화 : 486-0397 (김 만구)

LEON'S 가구·카페트·전자제품
20 McLevin Ave(세파드×마캄)
전화 : (B) 291-3818. (R) 749-9687. 746-0981 조 석 민

간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 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조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at Warden & Eglinton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관 광

코라메 관광(주)(제일여행사 2층).
일년내내 관광을 함께·····
649 A Bloor St. W. 전화 : 535-0853

꽃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 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 751-5851(B) 757-6711(R) 이 동환

제인· 팍 꽃집(JANE PARK PLAZA안)
각종 행사·생일·결혼·장례꽃 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B)769-0609 R)242-5194(여정웅)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 622-8516(B). 279-3719(R)허소피아

한인경영 최대꽃집 Yonge Flower Shop
◉각종 플랜트, 어렌지멘트
◉화환 전문(일류 꽃전문가 고용)
◉토론토 전 지역 배달
589 Yonge St.(영×웰스리)
전화 : 960-6265 Mr. 김

도서판매

World Book (백과사전)
전화 : 533-2364, 242-5774 (Mrs. 김)

귀 사업체는···.
어디에서 무엇하는 곳입니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한국일보 인내광고 : 533-2361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쓰
WESTON MALL(웨스톤 × 휜치)
전화 : 746-3458

광고문의 533-2361

번역및통역

번역통역(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M4A 2R1 전화 : 759-9505(5시 이후)

미용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전화 : 532-7094(B) 438-0628 (R) Mrs.Oh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741-4410 (R)742-0827

마야미용실 632 Bloor St. W.
한국관앞 서울여행사 2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Annie's 미용실.◉여드름, 주름살 치료 전문
◉남녀 파마, 커트 전문. 812 Queen St. E.
전화 : 463-9071 Mrs. 리 (퀸×브로드·뷰)

레이몬드미용실(수잔 : 한국인)-◉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로얄욕) 전화: 255-4745

미술연구소

U.C.Painting Studio
미술 개인지도, 유화·수채화·뎃상
전화 : 530-4991

삼우스튜디오(SAM WOO STUDIO)
Free Workshop(성인 미술교실)
58 Wade Ave. Tel : 537-7630

변호사

"이민법과 그에 따른 제반업무 전문"
새로 이전한 주소: 390 Bay St. 19층
Tor. Ont. ▲ 361-0404
▲ 593-1818
Barrister and Solicitor
SHELDON M. ROBINS

RALPH M. LEVINE B.A.(Barrister and Solic tor)
627 Bloor St. W. #302(외환은행 블루어지점 3층)
전화 : 533-8539 • 통역 항상 가능함

보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험

CANADA LIFE (강학수)
전화 : 868-0922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배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791-8196

비데오 센타

◉ 각종 비데오 테이프 대여전문
◉ 품질보장,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손 병 헌

사무용구및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휜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보증)
전화 : 252-7377 (R)762-4536 Mr. 안 수일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